

CHAPTER 03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1. 개요
2. 2021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3.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4.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제1절

개요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상의 마약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범죄유형

- 마약류 밀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밀매 행위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3

기타 특이사항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제2절

2021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의 환수

1

마약류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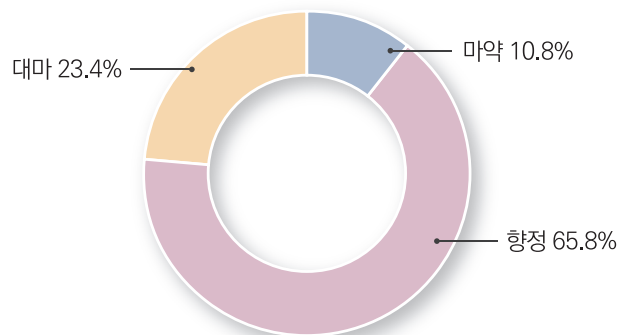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합계(명)	인원(명)	
				구속	불구속
합계		12,407	16,153(100)	2,197	13,956
마약		1,510	1,745(10.8)	67	1,678
향정		8,280	10,631(65.8)	1,926	8,705
대마		2,617	3,777(23.4)	204	3,573

※ ()는 구성비 %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18,050명) 대비 10.5% 감소함
- 마약사범은 1,745명으로 전년(2,198명) 대비 20.6% 감소함
 - 향정사범은 10,631명으로 전년(12,640명) 대비 15.9% 감소함
 -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전년(3,212명) 대비 17.6% 증가함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표 3-2] 범죄유형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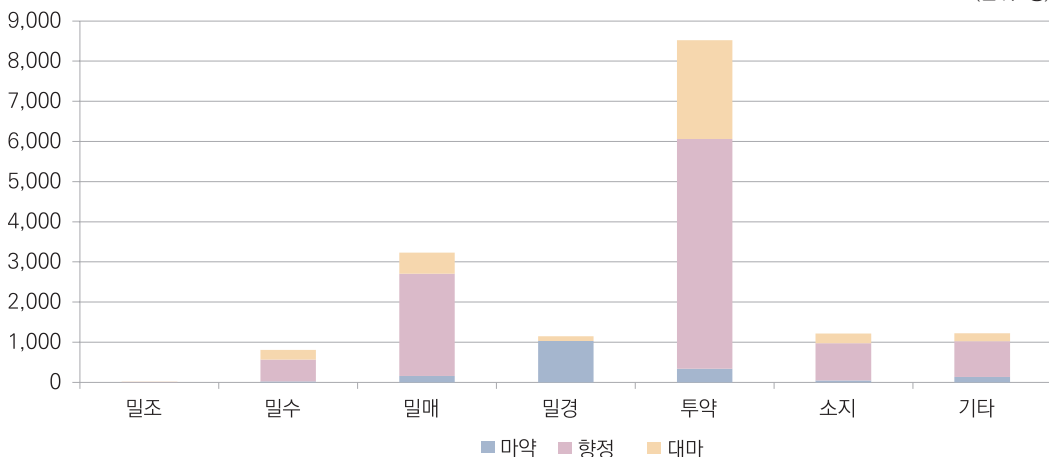
마약류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9 (0.1)	807 (5.0)	3,229 (20.0)	1,151 (7.1)	8,522 (52.8)	1,214 (7.5)	1,221 (7.6)	16,153 (100)
마약	0	26	161	1,033	338	50	137	1,745
향정	8	543	2,544	0	5,726	923	887	10,631
대마	1	238	524	118	2,458	241	197	3,777

※ ()는 구성비 %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045명으로 전년도(4,793명) 대비 15.6% 감소, 전체 마약류사범의 25.0%(전년도 26.6%)를 점유함
- 투약사범은 8,522명으로 전년도(9,044명) 대비 5.8% 감소, 전체 마약류사범의 52.8%(전년도 50.1%)를 점유함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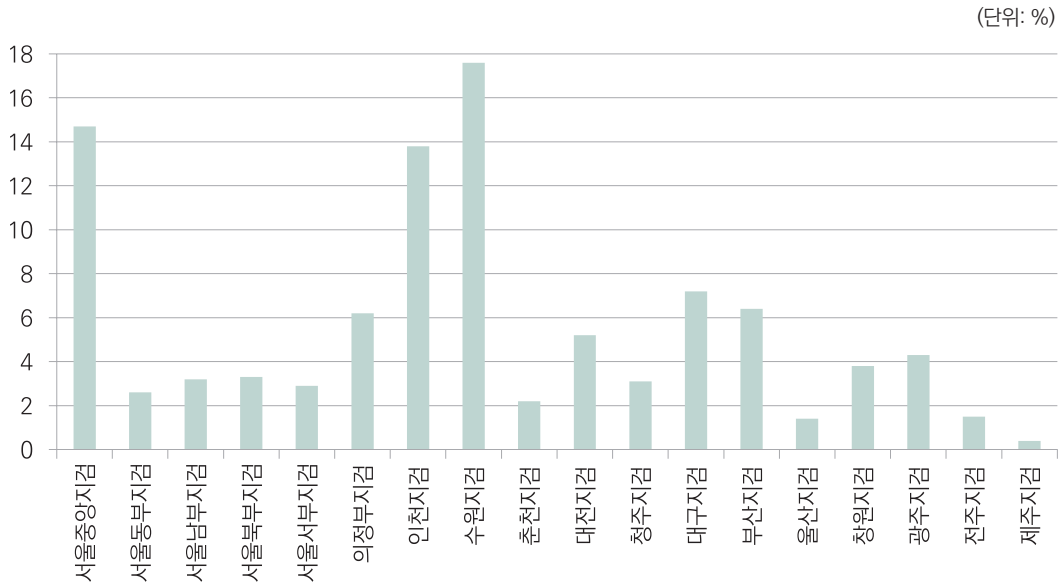
(단위: 명)

청별	구분	2020		2021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계		18,050	100	16,153	100	-10.5
서울중앙지검		2,443	13.5	2,381	14.7	-2.5
서울동부지검		325	1.8	428	2.6	31.7
서울남부지검		572	3.2	518	3.2	-9.4
서울북부지검		493	2.7	534	3.3	8.3
서울서부지검		475	2.6	468	2.9	-1.5
의정부지검		1,239	6.9	1003	6.2	-19.0
인천지검		2,272	12.6	2,231	13.8	-1.8
수원지검		2,958	16.4	2,850	17.6	-3.7
춘천지검		403	2.2	362	2.2	-10.2
대전지검		969	5.4	832	5.2	-14.1
청주지검		464	2.6	496	3.1	6.9
대구지검		1,419	7.9	1,170	7.2	-17.5
부산지검		1,623	9.0	1,032	6.4	-36.4
울산지검		234	1.3	224	1.4	-4.3
창원지검		948	5.3	619	3.8	-34.7
광주지검		781	4.3	695	4.3	-11.0
전주지검		297	1.6	244	1.5	-17.8
제주지검		135	0.7	66	0.4	-51.1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 송치분 포함

- ▶ 청별 단속 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26.8%, 수원지검 17.6%, 인천지검 13.8%, 대구지검 7.2%, 부산지검 6.4% 순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64.5%(전년도 59.7%)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됨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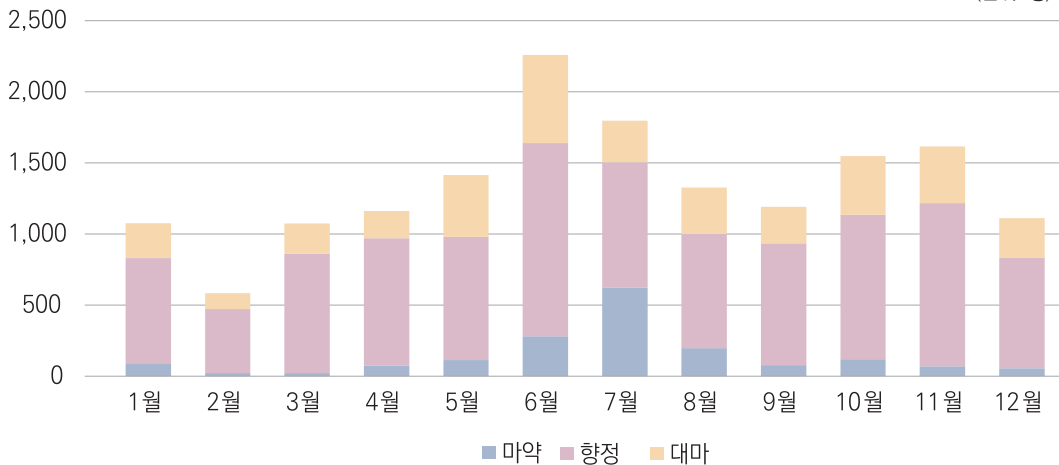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월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구성비	
합계	1,745	10,631	3,777	16,153	100
1월	86	745	244	1,075	6.7
2월	23	450	110	583	3.6
3월	22	839	213	1,074	6.6
4월	76	893	192	1,161	7.2
5월	114	865	434	1,413	8.7
6월	282	1,356	621	2,259	14.0
7월	622	882	292	1,796	11.1
8월	197	802	328	1,327	8.2
9월	78	857	256	1,191	7.4
10월	119	1,017	412	1,548	9.6
11월	70	1,147	398	1,615	10.0
12월	56	778	277	1,111	6.9

-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6월(14.0%)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7월(11.1%), 11월(1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단위: 명)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전체 마약류사범	5,684	10,469	16,153
	(35.2)	(64.8)	(100)
마약류 공급사범	1,563	2,482	4,045
	(38.6)	(61.4)	(100)
마약류 밀수사범	377	430	807
	(46.7)	(53.3)	(100)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의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35.2%, 경찰 64.8%임
- 적발된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 대비 검찰 4.9%(전년도 5,974명), 경찰 13.3%(전년도 12,076명) 각각 감소함
- 적발된 마약류 공급사범은 전년 대비 검찰 23.9%(전년도 2,055명), 경찰 9.3%(전년도 2,738명) 각각 감소함
- 마약류 밀수사범은 검찰 46.7%, 경찰 53.3%임

6

처리내역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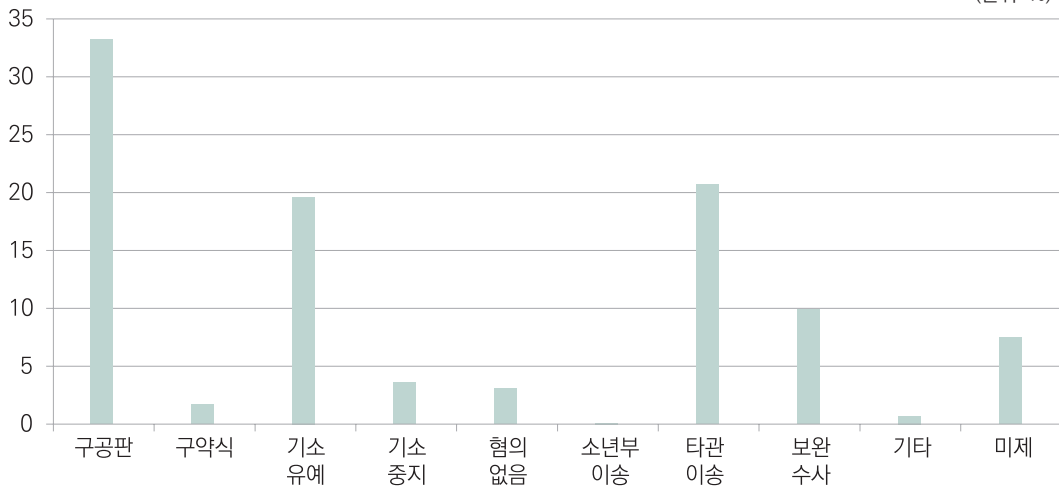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¹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합계	18,695	6,205	315	3,668	672	584	26	3,861	1,844	123	1,397
	(100)	(33.2)	(1.7)	(19.6)	(3.6)	(3.1)	(0.1)	(20.7)	(9.9)	(0.7)	(7.5)
마약	1,702	101	64	985	90	46	4	178	142	5	87
	(100)	(5.9)	(3.8)	(57.9)	(5.3)	(2.7)	(0.2)	(10.5)	(8.3)	(0.3)	(5.1)
향정	12,761	5,158	219	1,709	388	441	18	2,579	1,223	101	925
	(100)	(40.4)	(1.7)	(13.4)	(3.0)	(3.5)	(0.1)	(20.2)	(9.6)	(0.8)	(7.2)
대마	4,232	946	32	974	194	97	4	1,104	479	17	385
	(100)	(22.4)	(0.8)	(23.0)	(4.6)	(2.3)	(0.1)	(26.1)	(11.3)	(0.4)	(9.1)

※ []는 구성비 %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단위: %)



¹ 처리계는 구수(2021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
- 전체 마약류사범 중 구공판율은 33.2%, 구약식률은 1.7%, 기소유예율은 19.6%임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40.4%(전년도 34.0%), 대마사범 22.4%(전년도 20.6%), 마약사범 5.9%(전년도 3.5%)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3.8%(전년도 3.5%), 향정사범 1.7%(전년도 2.1%), 대마사범 0.8%(전년도 0.9%)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57.9%(전년도 74.5%), 대마사범 23.0%(전년도 18.7%), 향정사범 13.4%(전년도 11.8%) 순으로 나타남

7

범죄수익 환수

[표 3-7] 몰수·추징 보전 실적

연도	구분	건수		금액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2017		1,992	100	5,491억원	16억9,640만원
2018		2,422	138	2조4,390억원	76억1,261만원
2019		2,862	218	1조1,354억원	89억4,076만원
2020		2,502	115	2조9,170억원	87억6,516만원
2021		2,512	150	5조9,488억원	47억404만원

※ 자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

- ▶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 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 ②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③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함
- ▶ 2021년 마약류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47억404만원으로 전년(87억6,516만원) 대비 46.3% 감소
- ▶ 주요 보전 사례로는 대만 마약조직, 일본 야쿠자 및 국내 유통조직 등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밀매 등 사건에서 20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8년)

-
-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분석, 채팅 내역 등을 통해 판매 내역 확인하여 범죄수익 합계 1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8년)
 - 국내 최초로 ‘모바일상품권과 가상계좌’를 이용한 필로폰 대량 판매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의 모(母)계좌, 이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추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어 50억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8년)
 -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 ‘이나가와카이’와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및 국내 밀수·유통조직이 합작하여 필로폰 약 22kg을 밀수·판매한 사건에서 7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9년)
 -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 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총 495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3억2천만여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에서 3억2천만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9년)
 - 마약 운반책을 모집 후, 이들에게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및 MDMA 등을 밀수입하게 한 다음, 인터넷 및 SNS ‘위챗’ 등에 광고하여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1,981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15억9천만여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에서 15억9천만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9년)
 - 지인들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2019. 6.경 및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 각 7.92kg, 2kg를 밀수입한 사건에서 5억2천만여 원 보전 조치(부산지검, 2020년)
 - 마약사범들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0. 2.경 ~ 5.경까지 총 448회에 걸쳐 합계 185,7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2020. 2.경 ~ 5.경까지 총 359회에 걸쳐 합계 255,970,0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사건에서 4억4천만여 원 보전 조치(수원지검, 2020년)

- ▶ 다크웹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대마를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2019. 8.경 ~ 2020. 2.경까지 총 711회에 걸쳐 대마 5.5kg을 판매하고 3억7천만여 원을 송금 받은 사건에서 3억4천만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20년)
- ▶ 필리핀 및 국내에 거주하는 마약사범들이 공모하여 2020. 7. 31.경 ~ 2021. 4. 13.경까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 합계 6억1천만여 원 보전 조치(대구지검, 2021년)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

마약류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123 (-0.6)	12,613 (-10.7)	16,044 (27.2)	18,050 (12.5)	16,153 (-10.5)
마약	1,475 (6.7)	1,467 (-0.5)	1,804 (23.0)	2,198 (21.8)	1,745 (-20.6)
향정	10,921 (-4.2)	9,613 (-12.0)	11,611 (20.8)	12,640 (8.9)	10,631 (-15.9)
대마	1,727 (20.3)	1,533 (-11.2)	2,629 (71.5)	3,212 (22.2)	3,777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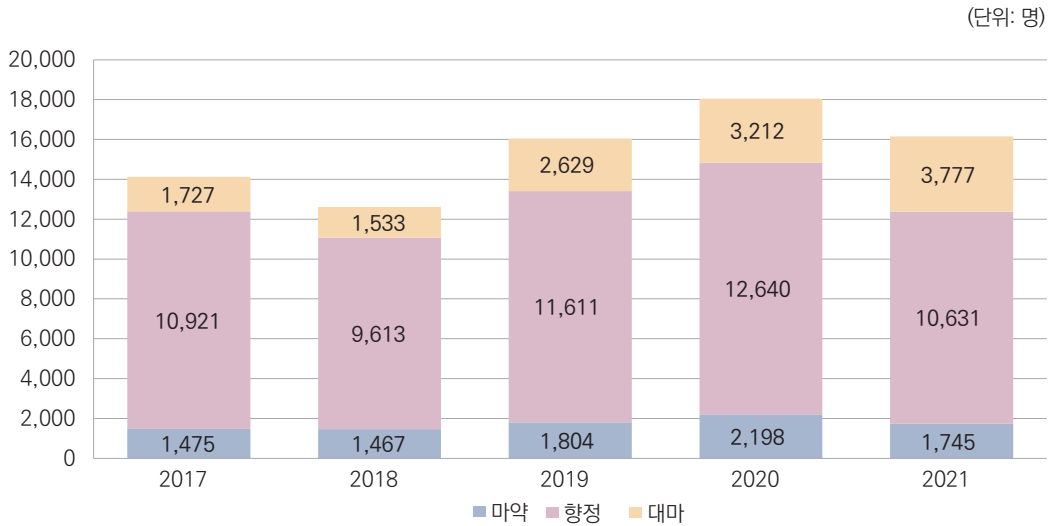
※ ()는 증감률 %

- ▶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함
- ▶ 그러나, 2002년도에 강력한 단속으로 필로폰 밀수조직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7,000명 대로 감소됨

- ▶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10,000명 선 아래로 적발됨
- ▶ 이후, 2015년도부터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16년도 14,214명, 2017년도 14,123명, 2018년도 12,613명, 2019년도 16,044명, 2020년도 18,05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도 16,153명으로 소폭 감소함.
- ▶ 2020년도에 비해 2021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이는,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6년도 80.2%, 2017년도 77.3%, 2018년도 76.2%, 2019년도 72.4%, 2020년도 70.0%, 2021년도 65.8%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특히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보여주고 있음
- ▶ 마약류사범별 추세를 분석해 보면,
 - 마약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0여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2015년도 1,100여명, 2016년도 1,300여명, 2017년도 및 2018년도 1,400여명 선, 2019년도 1,800여명에서 2020년도에는 2,1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도 1,700여명으로 감소함. 마약사범의 대부분은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을 단속한 결과임
 - 향정사범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었고, 2014년도 8,100여명, 2015년도 9,600여명, 2016년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 10,900여명, 2018년도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이후 2019년도 11,600여명, 2020년도 12,600여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1년도에 10,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 대마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소폭 감소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100여명 선으로 감소되었다가 2016년도 1,400여명, 2017년도 1,700여명,

2018년도 1,500여명으로 유지되다가 2019년도에 2,600여명, 2020년도에 3,200여명으로 급증함. 특히 2021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이 감소하였음에도 대마 사범은 3,77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임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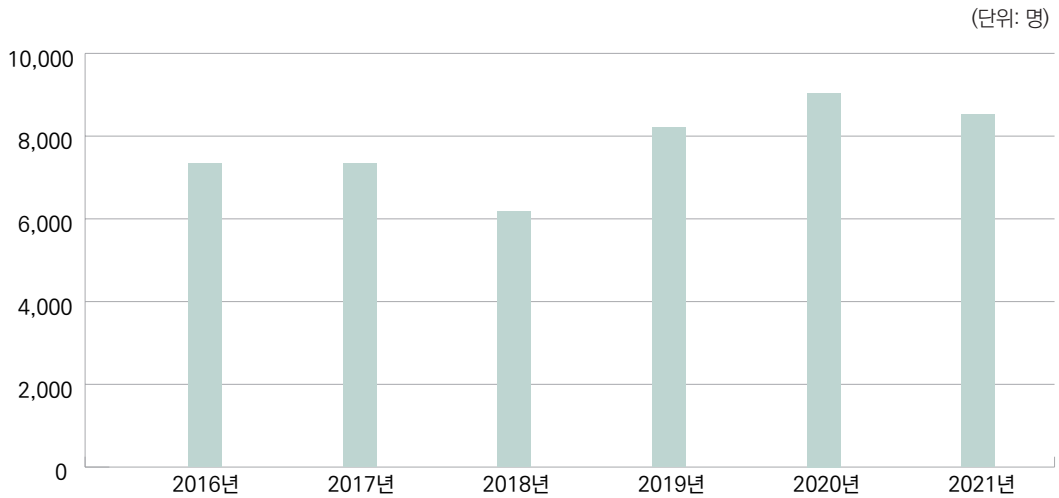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9 (0.1)	807 (5.0)	3,229 (20.0)	1,151 (7.1)	8,522 (52.8)	1,214 (7.5)	1,221 (7.6)	16,153 (100)
마약	0	26	161	1,033	338	50	137	1,745
향정	8	543	2,544	0	5,726	923	887	10,631
대마	1	238	524	118	2,458	241	197	3,777

※ ()는 구성비 %

- ▶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52.8%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0.0%), 소지(7.5%)사범 순임
- ▶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투약(흡연)사범이 각각 53.9%, 6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59.2%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구분 마약류	품명	단위	2019	2020	2021
마약	양귀비	주	178,387	174,250	114,667
	생아편	g	44	187	8
	헤로인	g	0	8.81	1,213
	코카인	g	106,932	47,948	435,741
	기타 ²	g	248	126	2,368
향정	메트암페타민	g	87,340	64,114	569,866
	MDMA	g	3,139	11,914	11,894
	YABA	g	17,373	22,786	50,137
	LSD	g	35	23	52
	JWH-018 및 그 유사체	g	1,729	3,166	18,747
	기타 ³	g	38,464	74,859	76,375
대마	대마	주	3,175	1,326	3,429
	대마초	g	81,899	37,333	91,240
	대마종자	g	411	5,923	922
	대마수지 (해시시)	g	2,686	3,086	145
	기타 ⁴	g	21,734	49,932	36,945

²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³ 지에이치비(GHB),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알킬 니트리트류 (isobutyl nitrite 등), 페노바르비탈, 케타민 (Ketamine), 사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등⁴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대마쿠키,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캔디 등 대마제품

3

마약류 및 원료물질⁵ 압수 현황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메트암페타민		(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7		30,463	0	14.19 ⁶
2018		187,947	660 ⁷	0
2019		87,340	2,280 ⁸	0
2020		64,114	0	0
2021		569,866	0	0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연도별	구분	헤로인		무수초산	
		건수	압수량(단위: g)	건수	압수량(단위: ton)
2017		1	3.73	0	0
2018		1	1.92	0	0
2019		0	0	0	0
2020		5	8.81	0	0
2021		3	1,213	0	0

⁵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한 37종[1군 30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판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 피페로날,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페닐초산, 벤질시아나이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엔-펜에틸-4-피페리딘,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 2군 7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염류 제외), 메틸에틸케톤, 황산(염류 제외), 톨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⁶ 2017. 2.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데 그친 사건 관련, 슈도에페드린 9.83g 을 압수(인천지검), 2017. 10.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에페드린 4.36g 압수(서울동부지검)

⁷ 2018. 2.~5.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660g을 제조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 불검출 (부산 지검)

⁸ 2019. 4. 14. ~ 4. 28.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숯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제조한 메트암페타민 완제품 약 1.32kg 및 반제품 약 2.28kg 등 총 3.6kg 압수 (서울중앙지검)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원제품	반제품
2017		3	513	0
2018		2	0	660
2019		2	1,320.67 ⁹	2,280
2020		3 ¹⁰	1.8	0
2021		2	1,556 ¹¹	0

-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제조는 2006년도 1건, 2007년도 1건 적발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과 살빼는 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약국 등에서 구입한 후 그 약품에서 추출한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들임
- ▶ 2010년도에는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외국인 선원이 원료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화학과 교수가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γ -Hydroxide Butyrolactone, 일명 ‘물뽕’)를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1년도에는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 약 10kg을 매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예비한 사례가 적발됨
- ▶ 2012년도에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회사원이 인터넷을

⁹ 2019. 1.~4.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0.67g을 제조(순도 66.6%) 및 판매(서울중앙지검), 2019. 4. 14. ~ 4. 28.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숯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32kg을 제조 (서울중앙지검)

¹⁰ 2019. 9. ~ 2020. 4.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아세톤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8g 제조 (창원지검), 2020. 6. ~ 2020. 12. 피의자 주거지에서 에페린, 염산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 단속으로 정제과정 중단됨으로써 제조 미수(평택지청), 마약 원료 구입, 자금 제공, 메트암페타민 제조 기술 습득 등 피의자들(3명) 각 역할 분담하고, 2018. 6. 중국 산둥성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조 미수(서울남부지검)

¹¹ 2021. 2.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에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첨가 등 정제 과정을 거쳐 메트암페타민 656g 제조(서울중앙지검), 2021. 4.~7. 구미 소재 원룸에서 플라스크, 여과기 등 설비를 구비하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을 주된 원료로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900g 제조(부산지검)

통해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사례, 학원강사가 원료물질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3년도에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검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자가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호주 국적의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2kg을 제조한 사례, 가정집에서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4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5년도에는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8.5g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조직 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예비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6년도에는 메트암페타민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드린’ 주사액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7년도에는 인터넷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제조방법을 습득, 주택가에 목공예장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500g을 제조한 사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 데 그친 사례,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13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 2018년도에는 외국 포털사이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제조방법을 습득, 서울 소재 영세 공장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660g을 제조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 중국인 필로폰 기술자를 고용하여 지방 소재 폐가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마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9년도에는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숯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6kg(완제품 약 1.32kg, 반제품 약 2.28kg)을 제조한 사례, 대구 소재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0.67g(완제품, 순도 66.6%)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됨
 - 2020년도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에 아세톤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8g 제조한 사례, 피의자 주거지에서 에페린, 염산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 단속으로 정제과정 단계에서 중단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례, 마약 원료 구입, 자금 제공, 메트암페타민 제조 기술 습득 등 피의자들(3명)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2018. 6. 중국 산둥성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조 미수에 그친 사례 등이 각각 적발됨
 - 2021년도에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메트암페타민에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첨가 등 정제과정을 거쳐 메트암페타민 656g을 제조한 사례, 구미 소재 원룸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900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이후 국내 밀조사범은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소량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적발됨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4]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¹²

(단위: g)

마약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합계		247	26,984 (26,228)	250	292,405 (272,081)	312	234,328 (234,328)	280	131,068 (130,525)	243	1,016,108 (1,012,661)
코카인		11	119 (119)	16	88,301 (88,301)	11	105,803 (105,803)	18	47,438 (47,438)	9	435,720 (435,600)
헤로인		1	3.73 (3.73)	1	1.93 (1.93)	0	0 (0)	2	4.54 (4.54)	0	0 (0)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79	17,117 (16,761)	62	193,240 (171,165)	81	70,626 (70,626)	95	45,365 (45,149)	84	502,905 (502,083)
엑스터시 (MDMA)		51	686 (686)	68	1,842 (1,752)	63	2,623 (2,623)	52	6,817 (6,742)	36	5,383 (5,383)
LSD		28	17 (17)	26	11 (11)	51	27 (27)	26	18.5 (18.3)	33	46 (41)
YABA		9	847 (847)	17	7,934 (7,934)	36	13,330 (13,330)	28	13,776 (13,776)	25	49,469 (49,469)
대마초		51	7,896 (7,496)	55	30,924 (30,924)	57	39,131 (39,131)	45	13,493 (13,241)	35	11,997 (11,997)
대마수지 (해시시)		11	244 (244)	2	25 (25)	11	2,673 (2,673)	11	3,056 (3,056)	4	5.4 (5.4)
JWH-018 및 그 유사체		6	57 (57)	4	439 (439)	2	115 (115)	3	1,100 (1,100)	17	10,583 (8,083)

※ ()는 압수량

- ▶ 2021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kg(243건)으로 전년(131.1kg, 280건) 대비 675% 증가함

¹² 단속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 포함. 마약류 출처(외국 국가)가 확인된 경우만 산출

-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18년도 193.2kg, 2019년도 70.6kg, 2020년도 45.4kg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도 502.9kg로 크게 증가
- 야바(YABA)는 2018년도 7.9kg, 2019년도 13.3kg, 2020년도 13.8kg, 2021년도 49.5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반면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MDMA)는 2018년도 1.8kg, 2019년도 2.6kg, 2020년도 6.8kg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1년도 5.4kg로 소폭 감소하였음

[표 3-15] 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멕시코	0	0	0	0	0	0	1	404,230	404,230
	미국	7	13,822	13,822	11	18,155	18,155	18	44,336	44,336
	태국	30	5,670	5,670	43	10,805	10,805	45	29,462	29,462
	말레이시아	13	29,708	29,708	7	3,616	3,616	4	12,440	12,440
	라오스	4	5,893	5,893	3	3,168	3,168	4	4,254	3,432
	캄보디아	3	3,555	3,555	8	4,640	4,523	2	2,485	2,485
	대만	2	6,964	6,964	1	44	44	0	0	0
	베트남	4	486	486	3	88	88	5	3,929	3,929
	독일	0	0	0	4	4,113	4,113	0	0	0
	영국	2	2,271	2,271	5	10	10	0	0	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	1,850	1,850	0	0	0	0	0	0
	파키스탄	0	0	0	0	0	0	1	1,100	1,100
	필리핀	2	48	48	3	204	104	2	553	553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0	1	502	502	0	0	0
	캐나다	6	304	304	1	2	2	0	0	0
	중국	3	45	45	1	1	1	1	44	44
	네덜란드	3	3	3	2	3	3	1	73	73
	호주	0	0	0	2	14	14	0	0	0
	인도네시아	1	7	7	0	0	0	0	0	0
	소계	81	70,626	70,626	95	45,365	45,149	84	502,905	502,08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코카인		페루	0	0	0	0	0	0	1	400,418	400,418
		콜롬비아	1	100,764	100,764	0	0	0	3	35,090	35,000
		브라질	2	4,999	4,999	1	47,000	47,000	0	0	0
		미국	3	23	23	5	380	380	3	142	142
		네덜란드	3	8	8	8	24	24	2	70	40
		영국	1	7	7	2	25	25	0	0	0
		호주	0	0	0	1	5	5	0	0	0
		태국	0	0	0	1	4	4	0	0	0
		스페인	1	2	2	0	0	0	0	0	0
		소계	11	105,803	105,803	18	47,438	47,438	9	435,720	435,600
헤로인		네덜란드	0	0	0	2	5	5	0	0	0
		소계	0	0	0	2	5	5	0	0	0
크라툼		미국	0	0	0	1	15	15	1	180	180
		소계	0	0	0	1	15	15	1	180	180
대마수지 (해시시)		네덜란드	1	0	0	3	2,283	2,283	3	3	3
		이집트	1	2,000	2,000	0	0	0	0	0	0
		미국	4	532	532	0	0	0	1	2	2
		캐나다	0	0	0	2	526	526	0	0	0
		우크라이나	0	0	0	1	200	200	0	0	0
		영국	1	100	100	2	32	32	0	0	0
		베트남	1	24	24	1	1	1	0	0	0
		프랑스	0	0	0	1	11	11	0	0	0
		이탈리아	1	9	9	0	0	0	0	0	0
		인도	1	7	7	0	0	0	0	0	0
		스위스	0	0	0	1	3	3	0	0	0
		덴마크	1	1	1	0	0	0	0	0	0
		소계	11	2,673	2,673	11	3,056	3,056	4	5	5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MDMA (엑스터시)	독일	4	190	190	4	4,143	4,143	4	1,658	1,658
	미국	11	799	799	15	1,258	1,238	8	295	295
	네덜란드	28	746	746	21	667	667	12	873	873
	베트남	2	461	461	4	322	268	3	1,336	1,336
	폴란드	0	0	0	0	0	0	1	1,003	1,003
	영국	7	214	214	2	94	94	0	0	0
	캐나다	4	30	30	1	1	1	1	168	168
	벨기에	0	0	0	1	195	195	0	0	0
	호주	0	0	0	2	101	101	0	0	0
	슬로바키아	1	83	83	0	0	0	0	0	0
	태국	2	64	64	0	0	0	5	6	6
	말레이시아	0	0	0	1	42	42	0	0	0
	스페인	3	35	35	0	0	0	0	0	0
	프랑스	0	0	0	1	3	3	1	31	31
	싱가포르	0	0	0	0	0	0	1	13	13
	일본	0	0	0	1	3	3	0	0	0
	홍콩	1	1	1	0	0	0	0	0	0
	소계	63	2,623	2,623	53	6,829	6,755	36	5,383	5,383
케타민	독일	0	0	0	3	124	124	3	2,292	2,292
	미국	11	115	115	8	606	606	5	788	788
	태국	1	348	348	0	0	0	1	494	494
	베트남	0	0	0	4	268	268	0	0	0
	말레이시아	0	0	0	1	255	255	0	0	0
	네덜란드	5	7	7	3	10	10	6	128	128
	대만	1	127	127	0	0	0	0	0	0
	영국	0	0	0	0	0	0	2	111	111
	프랑스	0	0	0	0	0	0	1	106	106
	싱가포르	0	0	0	0	0	0	1	69	69
	캐나다	1	1	1	1	10	10	0	0	0
	소계	19	598	598	20	1,273	1,273	19	3,987	3,987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YABA (야바)	태국		33	13,250	13,250	25	13,189	13,189	20	34,552	34,552
	라오스		0	0	0	0	0	0	4	14,801	14,801
	말레이시아		0	0	0	1	323	323	0	0	0
	중국		0	0	0	1	198	198	0	0	0
	캄보디아		2	67	67	1	66	66	0	0	0
	미국		0	0	0	0	0	0	1	116	116
	베트남		1	13	13	0	0	0	0	0	0
	소계		36	13,330	13,330	28	13,776	13,776	25	49,469	49,469
JWH-018 및 그 유사체 (합성대마)	베트남		0	0	0	0	0	0	12	9,990	7,490
	베트남		1	100	100	2	645	645	0	0	0
	영국		0	0	0	1	455	455	0	0	0
	싱가포르		0	0	0	0	0	0	2	199	199
	필리핀		0	0	0	0	0	0	1	160	160
	네덜란드		0	0	0	0	0	0	1	148	148
	말레이시아		0	0	0	0	0	0	1	85	85
	중국		1	15	15	0	0	0	0	0	0
	소계		2	115	115	3	1,100	1,100	17	10,583	8,083
메틸페니데이트	네덜란드		0	0	0	1	3	3	0	0	0
	소계		0	0	0	1	3	3	0	0	0
사일로신	스위스		0	0	0	0	0	0	2	225	225
	네덜란드		3	142	142	0	0	0	0	0	0
	영국		0	0	0	1	33	33	0	0	0
	베트남		1	13	13	0	0	0	0	0	0
	미국		2	5	5	2	5	5	0	0	0
	캐나다		1	0	0	2	1	1	1	3	3
	독일		1	1	1	0	0	0	0	0	0
	소계		8	162	162	5	39	39	3	228	228
GHB	중국		2	1,217	1,217	1	28,800	28,800	0	0	0
	미국		3	799	799	1	388	388	0	0	0
	벨기에		3	374	374	0	0	0	0	0	0
	소계		8	2,390	2,390	2	29,188	29,188	0	0	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알프라졸람	중국	8	414	414	2	374	374	0	0	0
	일본	0	0	0	2	99	99	1	59	59
	캐나다	0	0	0	1	5	5	1	129	129
	태국	0	0	0	1	17	17	1	93	93
	벨기에	1	40	40	0	0	0	0	0	0
	대만	0	0	0	2	38	38	0	0	0
	베트남	0	0	0	1	29	29	0	0	0
	영국	1	19	19	0	0	0	0	0	0
	미국	0	0	0	0	0	0	1	1	1
	소계	10	473	473	9	562	562	4	282	282
에티졸람	일본	4	96	96	8	463	463	5	339	339
	태국	0	0	0	0	0	0	1	109	109
	미국	0	0	0	0	0	0	1	20	20
	소계	4	96	96	8	463	463	7	467	467
졸피뎴	일본	3	50	50	11	216	216	3	26	26
	미국	2	5	5	1	10	10	3	83	83
	프랑스	0	0	0	1	66	66	0	0	0
	스페인	1	40	40	0	0	0	0	0	0
	중국	1	29	29	0	0	0	0	0	0
	대만	0	0	0	1	9	9	1	10	10
	캐나다	0	0	0	1	4	4	0	0	0
	네덜란드	0	0	0	1	2	2	0	0	0
	소계	7	124	124	16	307	307	7	119	119
디아제팜	태국	1	332	332	2	92	92	0	0	0
	중국	3	157	157	1	50	50	0	0	0
	홍콩	0	0	0	0	0	0	1	69	69
	영국	1	7	7	0	0	0	0	0	0
	소계	5	496	496	3	142	142	1	69	69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중국	1	31	31	0	0	0	0	0	0
	우크라이나	0	0	0	1	23	23	0	0	0
	소계	1	31	31	1	23	23	0	0	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클로나제팜	네팔	1	119	119	0	0	0	1	167	167
	일본	0	0	0	1	7	7	3	237	237
	캐나다	1	20	20	0	0	0	1	158	158
	미국	2	89	89	0	0	0	1	85	85
	대만	0	0	0	0	0	0	1	59	59
	중국	1	55	55	0	0	0	0	0	0
	태국	0	0	0	1	20	20	1	16	16
	이탈리아	0	0	0	1	33	33	0	0	0
	인도네시아	0	0	0	1	33	33	0	0	0
	소계	5	283	283	4	93	93	8	723	723
로라제팜	태국	1	20	20	3	79	79	1	528	528
	중국	1	14	14	2	100	100	0	0	0
	대만	0	0	0	0	0	0	1	112	112
	베트남	0	0	0	1	19	19	1	88	88
	스페인	1	82	82	0	0	0	0	0	0
	일본	1	2	2	1	20	20	2	59	59
	미국	0	0	0	1	20	20	0	0	0
	캐나다	0	0	0	1	9	9	0	0	0
	네팔	0	0	0	1	7	7	0	0	0
	소계	4	118	118	10	254	254	5	788	788
브로마제팜	스페인	1	40	40	0	0	0	0	0	0
	일본	0	0	0	0	0	0	2	19	19
	소계	1	40	40	0	0	0	2	19	19
트리아졸람	일본	0	0	0	5	64	64	0	0	0
	미국	0	0	0	0	0	0	2	12	12
	소계	0	0	0	5	64	64	2	12	12
브로티졸람	일본	0	0	0	3	173	173	3	89	89
	소계	0	0	0	3	173	173	3	89	89
클로티아제팜	일본	0	0	0	2	134	134	1	59	59
	소계	0	0	0	2	134	134	1	59	59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플루니트라제팜	일본	0	0	0	7	138	138	5	86	86
	네덜란드	0	0	0	1	1	1	0	0	0
	소계	0	0	0	8	139	139	5	86	86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2	21	21	1	30	30	0	0	0
	네덜란드	2	17	17	1	2	2	1	10	10
	독일	3	10	10	0	0	0	0	0	0
	프랑스	0	0	0	0	0	0	1	7	7
	영국	0	0	0	0	0	0	1	6	6
	소계	7	48	48	2	32	32	3	23	23
리스덱스 암페타민 (Lisdex amphetamine)	캐나다	0	0	0	1	66	66	0	0	0
	미국	0	0	0	1	30	30	0	0	0
	소계	0	0	0	2	96	96	0	0	0
플루오르메트 암페타민	네덜란드	0	0	0	1	3	3	0	0	0
	소계	0	0	0	1	3	3	0	0	0
5-메톡시- 다이소프로필트립타민	네덜란드	0	0	0	1	0	0	0	0	0
	소계	0	0	0	1	0	0	0	0	0
에페드린	캐나다	0	0	0	1	6	6	0	0	0
	소계	0	0	0	1	6	6	0	0	0
옥시코돈	미국	2	21	21	1	1	1	2	10	10
	소계	2	21	21	1	1	1	2	10	10
LSD	네덜란드	29	15	15	19	16	16	14	14	14
	프랑스	0	0	0	1	0	0	7	17	17
	미국	8	6	6	3	1	1	3	5	0
	폴란드	0	0	0	1	1	1	1	8	8
	영국	6	4	4	0	0	0	2	1	1
	독일	6	1	1	1	1	1	0	0	0
	태국	0	0	0	1	1	1	4	1	1
	베트남	1	0	0	0	0	0	2	0	0
	홍콩	1	0	0	0	0	0	0	0	0
	소계	51	27	27	26	19	18	33	46	41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디메틸트립타민 (DMT)	미국	0	0	0	1	54	54	0	0	0
	네덜란드	0	0	0	1	4	4	0	0	0
	영국	1	2	2	0	0	0	0	0	0
	스페인	0	0	0	1	1	1	0	0	0
	소계	1	2	2	3	59	59	0	0	0
조피클론	중국	1	557	557	0	0	0	1	27	27
	홍콩	0	0	0	2	52	52	0	0	0
	대만	0	0	0	0	0	0	1	10	10
	일본	0	0	0	1	5	5	0	0	0
	소계	1	557	557	3	57	57	2	37	37
에틸로플라제페이트	일본	0	0	0	2	58	58	2	39	39
	소계	0	0	0	2	58	58	2	39	39
1P-LSD	네덜란드	0	0	0	3	4	4	0	0	0
	벨기에	0	0	0	0	0	0	1	1	1
	소계	0	0	0	3	4	4	1	1	1
알킬니트리트 류 [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	중국	66	8,974	8,974	64	10,430	10,430	8	4,238	4,238
	대만	4	190	190	65	5,696	5,696	1	2,640	2,640
	말레이시아	5	190	190	13	4,888	4,888	1	375	375
	태국	14	966	966	9	1,807	1,807	0	0	0
	프랑스	13	688	688	11	1,689	1,689	0	0	0
	캄보디아	0	0	0	4	1,585	1,585	0	0	0
	베트남	6	760	760	6	500	500	1	20	20
	미국	6	400	400	8	576	576	1	136	136
	네덜란드	6	409	409	2	384	384	0	0	0
	영국	2	740	740	0	0	0	0	0	0
	오스트리아	1	394	394	1	197	197	0	0	0
	싱가포르	3	70	70	5	240	240	0	0	0
	슬로바키아	1	30	30	3	267	267	0	0	0
	체코	1	160	160	2	96	96	0	0	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알킬니트리트 류 [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	키르기즈스탄	1	20	20	4	187	187	0	0	0
	러시아	2	160	160	0	0	0	0	0	0
	미얀마	1	150	150	0	0	0	0	0	0
	일본	1	20	20	1	60	60	0	0	0
	홍콩	2	50	50	0	0	0	0	0	0
	벨기에	1	40	40	0	0	0	0	0	0
	뉴질랜드	1	30	30	0	0	0	0	0	0
	독일	0	0	0	1	20	20	0	0	0
	스웨덴	1	20	20	0	0	0	0	0	0
	소계	138	14,461	14,461	199	28,622	28,622	12	7,409	7,409
2C-D, 2C-B, 4-OH-DIT, 3-HO-PCP	프랑스	0	0	0	0	0	0	1	325	325
	네덜란드	1	3	3	5	122	121	3	51	51
	독일	0	0	0	0	0	0	1	20	20
	미국	0	0	0	0	0	0	1	5	5
	소계	1	3	3	5	122	121	6	401	401
25B-NBOME	네덜란드	1	0	0	0	0	0	0	0	0
	소계	1	0	0	0	0	0	0	0	0
페이오트	중국	1	127	127	0	0	0	0	0	0
	소계	1	127	127	0	0	0	0	0	0
덱스트로 메토르판 (러미닐)	인도네시아	0	0	0	1	302	302	0	0	0
	소계	0	0	0	1	302	302	0	0	0
페노바르비탈 (거통편)	중국	0	0	0	9	6,070	6,070	43	34,812	34,812
	베트남	0	0	0	1	264	264	0	0	0
	소계	0	0	0	10	6,334	6,334	43	34,812	34,812
부탄허니오일	스페인	1	120	120	0	0	0	0	0	0
	캐나다	3	11	11	0	0	0	0	0	0
	미국	2	6	6	0	0	0	0	0	0
	소계	6	137	137	0	0	0	0	0	0
펜타닐 패치	독일	1	20	20	0	0	0	0	0	0
	네덜란드	1	8	8	0	0	0	0	0	0
	소계	2	28	28	0	0	0	0	0	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에스타졸람	중국	1	33	33	0	0	0	1	183	183
	소계	1	33	33	0	0	0	1	183	183
실비노린 에이	네덜란드	1	3	3	1	3	3	0	0	0
	소계	1	3	3	1	3	3	0	0	0
양귀비종자	호주	0	0	0	0	0	0	1	2,150	2,150
	소계	0	0	0	0	0	0	1	2,150	2,150
대마초	미국	27	4,878	4,878	21	7,813	7,561	20	9,052	9,052
	남아프리카공화국	1	19,840	19,840	1	7	7	0	0	0
	나이지리아	3	6,368	6,368	0	0	0	0	0	0
	태국	3	3,837	3,837	2	598	598	1	2	2
	필리핀	0	0	0	1	3,838	3,838	0	0	0
	캐나다	12	2,685	2,685	5	231	231	1	166	166
	베트남	2	338	338	2	539	539	3	200	200
	가나	0	0	0	0	0	0	1	1,000	1,000
	폴란드	0	0	0	0	0	0	2	843	843
	프랑스	0	0	0	0	0	0	1	539	539
	체코	1	500	500	0	0	0	0	0	0
	스리랑카	1	370	370	0	0	0	0	0	0
	영국	5	176	176	5	145	145	2	36	36
	말레이시아	2	139	139	1	90	90	0	0	0
	이집트	0	0	0	0	0	0	1	145	145
	우크라이나	0	0	0	1	103	103	0	0	0
	스위스	0	0	0	1	95	95	0	0	0
	스페인	0	0	0	2	21	21	0	0	0
	네덜란드	0	0	0	3	13	13	0	0	0
	모로코	0	0	0	0	0	0	1	12	12
	중국	0	0	0	0	0	0	1	2	2
	홍콩	0	0	0	0	0	0	1	1	1
	소계	57	39,131	39,131	45	13,493	13,241	35	11,997	11,997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종자	베트남	0	0	0	0	0	0	1	205	205
	미국	3	98	98	2	0	0	0	0	0
	네덜란드	1	10	10	0	0	0	0	0	0
	스위스	0	0	0	1	1	1	0	0	0
	일본	0	0	0	1	1	1	0	0	0
	캐나다	1	1	1	0	0	0	0	0	0
	소계	5	109	109	4	3	3	1	205	205
대마오일	미국	37	7,920	7,920	57	32,782	32,782	27	115,125	114,125
	중국	2	705	705	4	2,224	2,224	0	0	0
	베트남	1	1,440	1,440	3	120	120	0	0	0
	독일	0	0	0	2	1,108	1,108	0	0	0
	이탈리아	1	955	955	0	0	0	0	0	0
	네덜란드	1	150	150	5	537	537	0	0	0
	대만	0	0	0	12	640	640	0	0	0
	홍콩	1	220	220	2	120	120	0	0	0
	영국	0	0	0	2	310	310	0	0	0
	러시아	1	300	300	0	0	0	0	0	0
	태국	0	0	0	1	120	120	1	90	90
	우크라이나	0	0	0	0	0	0	1	200	200
	일본	0	0	0	4	150	150	0	0	0
	필리핀	0	0	0	3	120	120	0	0	0
	캐나다	1	60	60	1	50	50	0	0	0
	말레이시아	0	0	0	2	105	105	0	0	0
	스페인	1	20	20	1	30	30	0	0	0
	뉴질랜드	0	0	0	0	0	0	1	30	30
	인도네시아	0	0	0	0	0	0	1	30	30
	싱가포르	1	20	20	0	0	0	0	0	0
	소계	47	11,790	11,790	57	14,135	13,883	31	115,475	114,475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कु키		미국	3	171	171	1	135	135	2	103	103
		영국	1	100	100	0	0	0	1	71	71
		소계	4	271	271	1	135	135	3	174	174
대마캡슐 (알약)		미국	2	32	32	2	33	33	2	20	20
		스페인	1	1	1	0	0	0	0	0	0
		소계	4	33	33	2	33	33	2	20	20
대마카트리지		미국	110	799	782	39	880	880	49	441	441
		베트남	3	10	10	1	1	1	1	51	51
		독일	0	0	0	0	0	0	1	35	35
		캐나다	5	28	28	1	3	3	0	0	0
		일본	2	4	4	3	19	19	1	4	4
		영국	0	0	0	3	8	5	2	10	10
		필리핀	1	14	14	0	0	0	0	0	0
		우크라이나	0	0	0	0	0	0	1	5	5
		말레이시아	0	0	0	1	1	1	1	3	3
		러시아	2	3	3	0	0	0	0	0	0
		스페인	0	0	0	0	0	0	1	2	2
		네덜란드	1	1	1	0	0	0	0	0	0
		소계	124	859	842	48	912	909	57	551	551
대마초콜릿		미국	5	135	135	2	130	130	3	358	358
		소계	5	135	135	2	130	130	3	358	358
대마캐러멜		미국	2	228	228	0	0	0	0	0	0
		소계	2	228	228	0	0	0	0	0	0
대마크림		미국	9	1,562	1,562	9	1,763	1,763	4	545	545
		러시아	1	1,099	1,099	0	0	0	0	0	0
		홍콩	0	0	0	1	150	150	0	0	0
		중국	0	0	0	1	100	100	0	0	0
		네덜란드	0	0	0	1	5	5	0	0	0
		소계	10	2,661	2,661	12	2,018	2,018	4	545	545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9			2020			202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차	미국	0	0	0	0	0	0	1	4	4
	영국	1	2	2	0	0	0	0	0	0
	소계	1	2	2	0	0	0	1	4	4
대마캔디 (사탕)	미국	2	74	74	1	39	39	1	94	94
	캐나다	0	0	0	1	12	12	0	0	0
	소계	2	74	74	2	51	51	1	94	94
대마젤리	미국	9	1,075	1,075	6	1,022	1,022	15	3,048	3,048
	영국	1	41	41	2	470	470	1	80	80
	태국	0	0	0	1	36	36	0	0	0
	캐나다	1	17	17	0	0	0	0	0	0
	소계	11	1,133	1,133	9	1,528	1,528	16	3,128	3,128
기타 대마제품	미국(스틱)	1	920	920	1	1	1	0	0	0
	러시아(짬)	0	0	0	0	0	0	1	676	676
	미국(물담배)	0	0	0	1	500	500	0	0	0
	미국(입욕제)	1	284	284	1	10	10	3	19	19
	영국(껌)	2	102	102	0	0	0	0	0	0
	미국(파스)	0	0	0	1	68	68	2	14	14
	미국	1	73	73	0	0	0	0	0	0
	미국(립밤)	1	50	50	0	0	0	0	0	0
	미국(대마치약)	0	0	0	1	48	48	0	0	0
	일본(껌)	0	0	0	1	20	20	0	0	0
	미국(버터)	0	0	0	0	0	0	1	7	7
	중국(버터)	0	0	0	0	0	0	1	5	5
	소계	6	1,429	1,429	6	647	647	8	721	721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 2021년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502.9kg이며, 멕시코에서의 밀반입량이 404.23kg으로 전체 필로폰 밀반입량의 80.4%를 차지하고, 미국에서의 밀반입량은 44.34kg, 태국에서의 밀반입량은 29.46kg, 말레이시아에서의 밀반입량은 12.44kg
- ▶ 2021년도 멕시코에서 필로폰 404.23kg이 밀반입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임
- ▶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중 미국과 태국에서의 필로폰 밀반입량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2021년도 대량 필로폰 밀반입 적발 사례는 아래와 같음
 - 2019. 12.경 및 2020. 7.경 2회에 걸쳐 멕시코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필로폰 402.23kg 이상의 불상량(약 904kg 추정)을 밀반입한 한국인을 검거하고 402.23kg 압수
 - 2020. 12. ~ 2021. 3.경 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6.8kg 밀반입한 한국인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 2021. 1.경 말레이시아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8.2kg 밀반입한 한국인 1명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 2021. 4.경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9kg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 2021. 5.경 태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kg 밀반입한 태국인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 2021. 7.경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3kg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 2021. 8.경 라오스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7kg 밀반입한 중국인을 검거하고 전량 압수

나. 코카인

- ▶ 2013년도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씩을 은닉하여 총 1,180g 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 2014년도에는 미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 ▶ 2015년도에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캐나다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 ▶ 2016년도에는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코카인 각 6,400g, 4,478g을 휴대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 2017년도에는 한국인이 코카인 59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 2018년도에는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19.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카타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마카오)하여 밀반입, 성명 불상자가 에콰도르에서 코카인 약 63.88kg을 선적한 후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부산항에 입항(최종 목적지 중국)하여 밀반입, 콜롬비아인이 파나마에서 코카인 약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라오스)하여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 ▶ 2019년도에는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코카인 불상량이 함유된 와인 10병(총중량 13kg 상당) 밀반입,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등 밀반입,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밀반입,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6.17g을 밀반입, 코카인

약 100kg을 싣고 콜롬비아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해상으로 진입한 홍콩 국적의 선박을 적발하여 코카인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각 사례가 적발됨

- ▶ 2020년도에는 2020. 6. 브라질을 출발하여 7. 싱가포르 경유, 8.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안에 47박스에 나눠 은닉된 코카인 약 47kg을 적발하여 전량 압수(최종 목적지는 일본), 2020. 7. ~ 10. 3회에 걸쳐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약 1g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2020. 3. 한국인 대학생이 호주에서 코카인 4.6g 등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밀반입, 2020. 1. 중국계 호주인이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11g 밀반입 등 각 사례가 적발됨
- ▶ 2021년도에는 2021. 1.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35kg을 선적한 후, 파나마 운하, 부산신항, 중국, 미국을 경유하여 콜롬비아로 밀반입하려다가 부산신항에서 적발하여 전량 압수, 2021. 10.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하여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을 경유하여 부산신항에 도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코카인 400kg을 밀반입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다. 헤로인

- ▶ 2010년도와 2012년도에는 소량의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음
- ▶ 2015년도 헤로인 총 압수량은 4.54g으로, 미국에서 밀반입된 3.19g(3건)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량은 국적불명임
- ▶ 2016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0.03g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 2017년도에는 캐나다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3.73g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93g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2020년도에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22g 밀반입, 네덜란드에서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3.32g과 대마수지 5.01g 및 5.04g, 코카인 3.99g을 함께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라. 대마초

- 2021년도 대마초 밀반입량은 총 11,997g으로 전년(13,493g) 대비 11.1% 감소하였으나, 최근 북아메리카 일부 주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로 인해 미국, 캐나다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대마쿠키 등 대마 제품류의 밀반입 건수와 반입량은 급격히 증가함
- 2013년도에는 음반 판매업자가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837g을 밀반입,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가루 1kg을 밀반입, 주한미군이 지인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435g을 밀반입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5년도에는 대만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초 6.5k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됨
- 2017년도에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하려 한 사건, 한국인이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에서 대마 약 450g을 밀반입한 사건, 중고차 판매원 등이 베트남에서 대마 약 1.1kg을 밀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됨
- 2018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경유 김해국제공항으로 대마 약 18kg을 밀반입,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에서 대마 약 2.25kg을 밀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됨

- ▶ 2019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비닐포장 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항공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1.9kg 밀반입,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행용가방 안에 대마 약 2.7kg을 은닉하여 밀반입, 미국인이 나이지리아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1.3kg 밀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됨
- ▶ 2020년도에는 중국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을 통해 대마초 약 3.8kg을 밀반입, 미국에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260g 등 밀반입,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433g 밀반입,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225g 밀반입한 사건 등 사례가 적발됨
- ▶ 2021년도에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1.6kg을 밀반입한 사례, 난민신청 비자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인 2명이 가나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1kg을 밀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됨
- ▶ 한편 최근 범죄 수법으로 마약사범들은 딥 웹(deep web)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음
- ▶ 주요 적발 사례
 - 2018년도에는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의 유명 판매상인 'OO킹' 일당 3명이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 놓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후, 200회 이상 판매광고를 통해 약 5개월간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
 - 2019년도에는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OO코리아'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함과 동시에, 창고 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다음 약 5개월간 합계 9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사건, 트위터 등에 총 42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됨
 - 2020년도에는 경기도 OO시에 있는 약 30평 2층 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후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OO코리아' 및 'OO숍'에 712회에 걸쳐 3억 8,200만 원 상당 대마 5.6kg을 판매한 사례(대마 약 3.4kg 압수),

대마사범 주거지에서 재배한 대마와 캐나다에서 밀반입한 대마 농축액을 공범에게 제공하여 대마카트리지로 제조하게 하고, 다크웹 ‘OO코리아’에 판매 광고하여 대마를 판매한 사례(대마 농축액 514g 및 대마카트리지 69개 압수)

마. 야바¹³

- ▶ 최근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다음, 공장 기숙사, 아시아 식료품 가게, 노래방 등지에서 주로 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함
- ▶ 2018년도에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반입, 태국인 3명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990g 밀반입, 태국인 2명이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147g 밀반입,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329g 밀반입한 사례 등이 각 적발됨
- ▶ 2019년도에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594정 등을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99정 등을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야바 1,330정 등을 밀반입, 태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여행용 가방에 야바 14,118정을 은닉한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태국에서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야바 5,094정을 밀반입한 사례 등이 각 적발됨
- ▶ 2020년도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야바 1,354정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태국에서 야바 2,011정 및 필로폰 174g을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하여 야바 2,745정 밀반입, 태국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하여 야바 1,937정 밀반입, 태국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야바 796정 밀반입한 사례 등이 각 적발됨

¹³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 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식을 이끌었던 군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 (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 ▶ 2021년도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태국 국적 노동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을 이용하여 야바 1,177정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1,007정을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라오스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11,936정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50,000정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3,003정 밀반입, 라오스 국적 불법체류자가 라오스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14,016정 밀반입,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4명이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1,185정을 밀반입한 사례 등이 각 적발됨

바. 기타

- ▶ 기타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LSD, GHB(일명 ‘물뽕’), 알킬 니트리트류¹⁴, 케타민, 사일로신, 알프라졸람, 졸피뎀,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콜릿,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대마계 제품류 등으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 ▶ 특히, MDMA, LSD, 알킬 니트리트류 등은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작용은 수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과 유학생 등 젊은층이 밀반입하고 있음
- ▶ 2019년도에는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국제화물을 이용하여 해시시 23.7g과 마약버섯(사일리신) 13.46g을 밀반입,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MDMA 1,125정 및 7.76g, 케타민 31.05g을 밀반입, 이집트인이 해시시 약 2kg을 크로스백 및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한국인 2명이 베트남에서 MDMA 1,000정을 신체에 은닉하여 밀반입,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LSD 300장 밀반입한 사례 등이 각 적발됨

¹⁴ 일명 ‘러시’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
- ▶ 2020년도에는 한국 대학생이 호주에서 엑스터시 300정과 코카인 4.63g을 손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독일에서 엑스터시 2,244정, 케타민 104g 등 밀반입,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GHB(일명 ‘물뿔’) 357g 밀반입,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합성대마 630g 등을 밀반입,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3,413정, 케타민 293g 등 밀반입, 한국인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대마수지 11.6g, 9.6g 및 LSD 100장, 엑스터시 101정 등 밀반입, 한국인이 미국에서 케타민 97g 및 엑스터시 55정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 ▶ 2021년도에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엑스터시 2,932정 밀반입,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983정, 케타민 97g 등 밀반입, 한국인이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엑스터시 999정 밀반입,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케타민 105g 밀반입, 베트남인이 독일에서 국제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케타민 820g, 엑스터시 1,003정 등 밀반입,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국제등기우편 이용하여 LSD 601장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표 3-16]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속사범수	932	948	1,529	1,958	2,339
증감률(%)	-2.6	1.7	61.3	28.1	19.5

- ▶ 2000년도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자들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010년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1년도에는 27개국 295명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함
- ▶ 2015년도에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34개국 640명이 단속됨
- ▶ 2016년도에는 31개국 957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49.5% 증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34개국 932명, 2018년도에는 35개국 948명이 단속되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 2019년도에는 43개국 1,529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61.3% 증가한 바, 태국인 551명, 중국인 431명, 미국인 111명, 우즈베키스탄인 84명, 러시아인 75명, 베트남인 61명 순임
- ▶ 2020년도에는 45개국 1,958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28.1% 증가한바, 태국인 885명, 중국인 405명, 베트남인 145명, 미국인 125명, 러시아인 104명 순임

- ▶ 2021년도에는 71개국 2,339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19.5% 증가한바, 태국인 888명, 중국인 504명, 베트남인 310명, 러시아인 147명, 우즈베키스탄인 128명 순임
- ▶ 최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은 취업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본국 등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동료 근로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특히 태국인들은 건설 및 공장 근로자들이 야바 등을 밀반입하여 투약한 사례가 많았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 제품을 쉽게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사례가 많았음
- ▶ 2021년도에는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 JWH-018(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한 범죄조직 등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마약류사범이 두드러지게 증가

[표 3-17]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932 (100)	948 (100)	1,529 (100)	1,958 (100)	2,339 (100)
마약	14 (1.5)	36 (3.8)	32 (2.1)	18 (0.9)	35 (1.5)
향정	784 (84.1)	770 (81.2)	1,215 (79.5)	1,582 (80.8)	1,990 (85.1)
대마	134 (14.4)	142 (15.0)	282 (18.4)	358 (18.3)	314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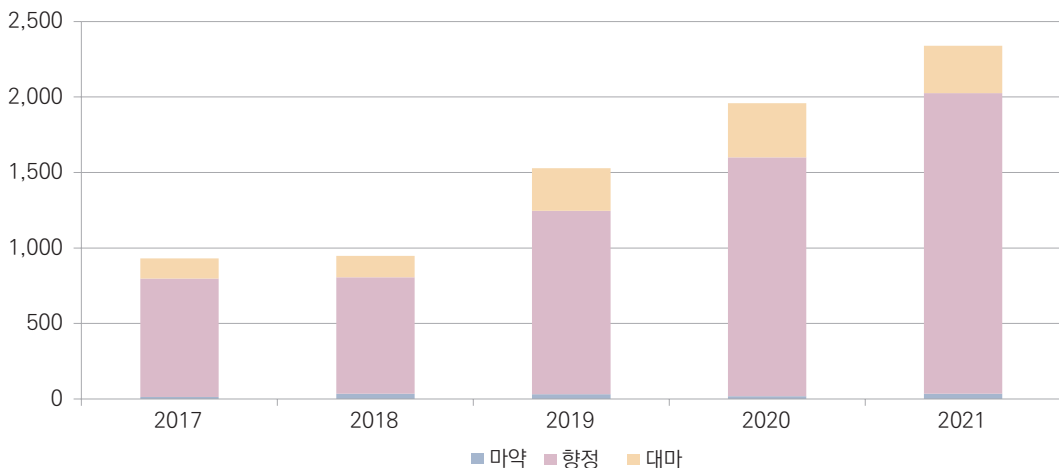
※ ()는 구성비 %

- ▶ 1999년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마사범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함
- ▶ 2021년도에는 향정사범이 85.1%, 대마사범이 13.4%, 마약사범이 1.5%를 점유함

-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야바(YABA), 엑스터시(MDMA) 밀반입 및 투약 사례,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의 JWH-018 제조·유통 및 투약 사례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 국내 체류 태국인 및 베트남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여 투약하며, 특히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태국인 사이에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함
- ▶ 국내 체류 태국인 마약 공급책(밀수범)이 태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반입한 후 중간 판매상에게 도매가로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 ▶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하기 보다는 속칭 ‘프리베이스’¹⁵ 방식으로 투약하고, 주로 위챗(WeChat)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함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¹⁵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이나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 물병 속에 2개의 빨대를 꽂아서 그 중 한 개의 빨대로 연기를 들여보내 물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지도록 한 다음 나머지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표 3-18]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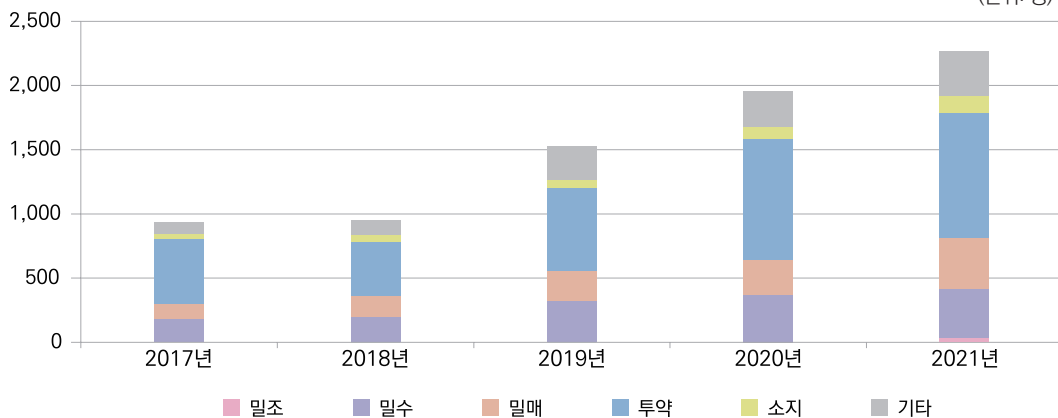
연도별 유형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932 (100)	948 (100)	1,529 (100)	1,958 (100)	2,339 (100)
밀조	0 (0.0)	3 (0.3)	2 (0.1)	1 (0.1)	5 (0.2)
밀수	186 (20.0)	196 (20.7)	323 (21.1)	370 (18.9)	480 (20.5)
밀매	115 (12.3)	165 (17.4)	235 (15.4)	273 (13.9)	280 (12.0)
투약	504 (54.1)	417 (44.0)	643 (42.1)	942 (48.1)	1,046 (44.7)
소지	38 (4.1)	54 (5.7)	65 (4.3)	94 (4.8)	119 (5.1)
기타	89 (9.5)	113 (11.9)	261 (17.1)	278 (14.2)	409 (17.5)

※ ()는 구성비 %

- ▶ 외국인 마약류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2021년에는 투약 44.7%, 밀수 20.5%, 밀매 12.0% 순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하여 동료나 지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함에 따라 밀수와 투약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용이,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등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표 3-19]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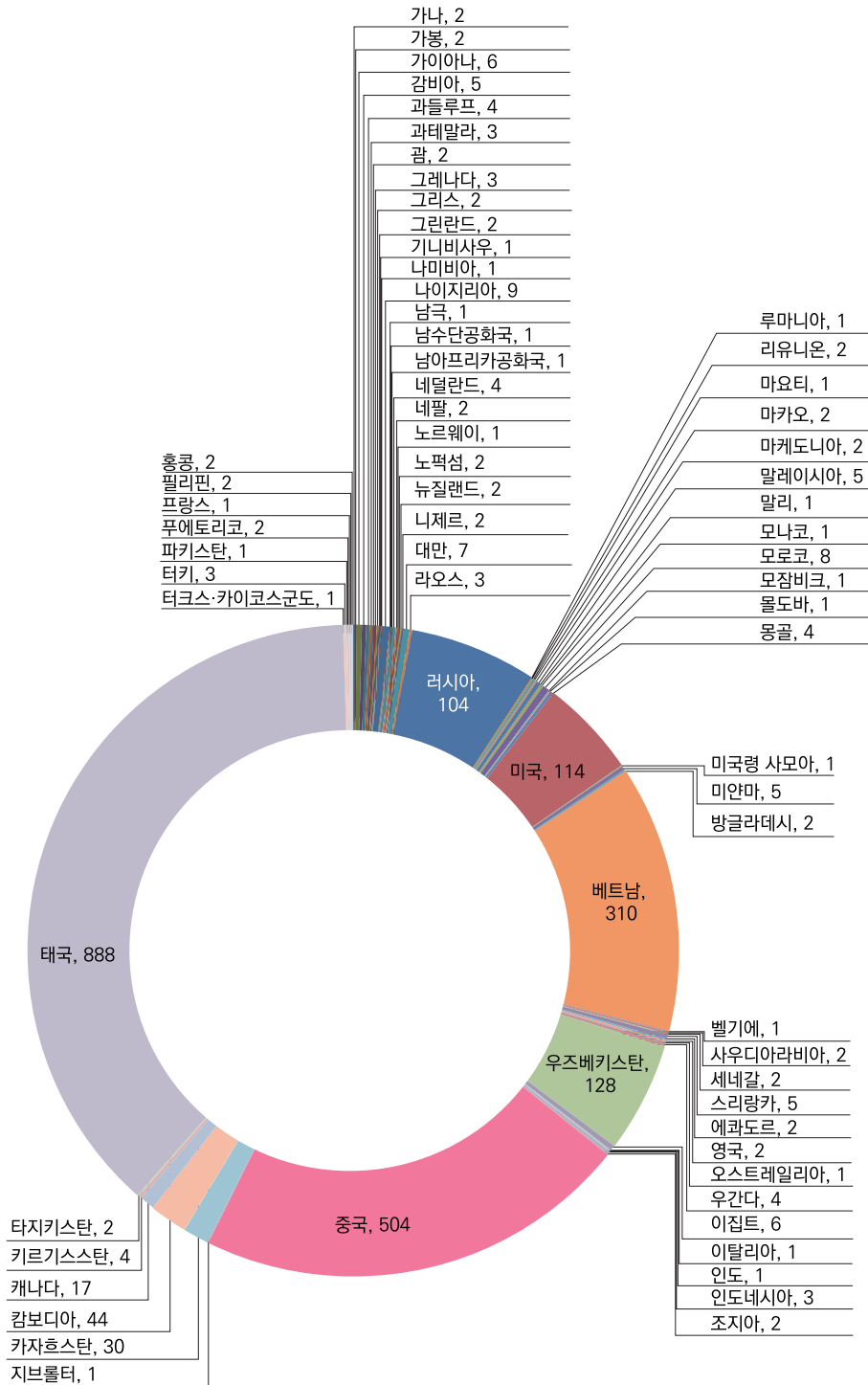
순위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1	중국	중국	태국	태국	태국
2	태국	태국	중국	중국	중국
3	미국	미국	미국	베트남	베트남

[표 3-20] 2021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리스
2	2	6	5	3	2	3	2
그린란드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2	1	1	9	1	1	4	2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대만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마카오
1	2	2	7	3	147	1	2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나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도바	몽골
2	5	1	3	8	1	1	4
미국	사모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114	1	5	2	310	1	2	1
스리랑카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탈리아
5	2	2	1	4	128	6	1
인도	인도네시아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1	3	2	504	30	44	17	4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홍콩	기타
2	888	3	1	1	2	2	14

[그림 3-10] 2021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구성



[표 3-21]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국적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86	(100)	196	(100)	323	(100)	370	(100)	480	(100)
태국	75	(40.4)	70	(35.7)	145	(44.9)	192	(51.9)	210	(43.8)
중국	89	(47.9)	90	(45.9)	74	(22.9)	80	(21.6)	89	(18.5)
베트남	-	-	3	(1.5)	14	(4.3)	41	(11.1)	73	(15.2)
우즈베키스탄	-	-	3	(1.5)	33	(10.2)	17	(4.6)	28	(5.8)
러시아	1	(0.5)	-	-	16	(5.0)	18	(4.9)	40	(8.3)
미국	7	(3.8)	17	(8.7)	5	(1.5)	6	(1.6)	6	(1.3)
카자흐스탄	-	-	1	(0.5)	7	(2.2)	3	(0.8)	1	(0.2)
캐나다	-	-	3	(1.5)	3	(0.9)	1	(0.3)	5	(1.0)
대만	6	(3.2)	2	(1.0)	4	(1.2)	-	-	-	-
캄보디아	-	-	2	(1.0)	-	-	2	(0.5)	8	(1.7)
나이지리아	3	(1.7)	1	(0.5)	2	(0.6)	1	(0.3)	4	(0.8)
일본	1	(0.5)	2	(1.0)	3	(0.9)	-	-	-	-
이집트	1	(0.5)	-	-	1	(0.3)	-	-	2	(0.4)
말레이시아	1	(0.5)	-	-	2	(0.6)	-	-	1	(0.2)
콜롬비아	-	-	-	-	3	(0.9)	1	(0.3)	-	-
키르기스스탄	-	-	-	-	2	(0.6)	-	-	1	(0.2)
스리랑카	-	-	-	-	2	(0.6)	1	(0.3)	-	-
브라질	-	-	1	(0.5)	1	(0.3)	1	(0.3)	-	-
모로코	-	-	-	-	-	-	-	-	3	(0.6)
영국	1	(0.5)	-	-	1	(0.3)	-	-	-	-
이탈리아	-	-	-	-	-	-	1	(0.3)	1	(0.2)
가나	-	-	1	(0.5)	-	-	-	-	1	(0.2)
카메룬	-	-	-	-	-	-	2	(0.5)	-	-
에콰도르	-	-	-	-	-	-	-	-	2	(0.4)
우간다	-	-	-	-	-	-	-	-	2	(0.4)
우크라이나	-	-	-	-	1	(0.3)	-	-	-	-
몽골	-	-	-	-	-	-	1	(0.3)	-	-
감비아	-	-	-	-	1	(0.3)	-	-	-	-
방글라데시	-	-	-	-	-	-	-	-	1	(0.2)

연도별 국적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앙골라	.	.	.	.	.	.	1	(0.3)	.	.
인도	.	.	.	.	.	.	1	(0.3)	.	.
예멘	1	(0.5)	.	.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1	(0.3)	.	.	.	.
스페인	.	.	.	.	1	(0.3)	.	.	.	.
인도네시아	.	.	.	.	1	(0.3)	.	.	.	.
파키스탄	.	.	.	.	.	.	.	.	1	(0.2)
니제르	.	.	.	.	.	.	.	.	1	(0.2)

※ ()는 구성비 %

[표 3-22]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연도별 순위	2017	2018	2019	2020	2021
1	중국	중국	태국	태국	태국
2	태국	태국	중국	중국	중국
3	미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베트남

-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도에는 이란인(39.1%), 2005년도에는 미국인(13.0%)과 중국인(13.0%), 2006년도에는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에서 2010년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하였음
- ▶ 2011년도에는 중국인이 44.4%를, 2012년 및 2013년도에는 미국인이 각 38.1%, 38.3%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2014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중국인이 각 56.6%, 67.0%, 65.9%, 47.9%, 45.9%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 원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큰 수익을 노린 중국인(특히, 조선족)들이 마약류 밀거래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2019년도에는 태국인이 44.9%, 중국인이 22.9%, 우즈베키스탄이 10.2%를 점유함. 태국인의 경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사례가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의 경우 광주 OO동 일대 ‘OOO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구소련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동포 및 그 후손들이 대마초 밀수 및 흡연 사실로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임
- ▶ 2020년도에는 태국인이 51.9%, 중국인이 21.6%, 베트남인이 11.1%를 점유함. 태국인 및 베트남인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야바’ 밀수입 및 투약 사례가 많았음. 특히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내(대구 OO공단, 문경 OO공단 등)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야바 4,400정, 필로폰 130g, 엑스터시 800정, 케타민 120g 등을 압수하였음
- ▶ 2021년도에는 태국인이 43.8%, 중국인이 18.5%, 베트남인이 15.2%를 점유하여 전년도와 순위가 동일하나, 러시아인 8.3%, 우즈베키스탄인 5.8%로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적인 마약류사범이 급증하였음
-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점차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가. 개요

- ▶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로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약류 밀수·밀매를 하지는 않았음
- ▶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금기시하던 관행을 깨고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류 밀매와 밀수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 2011년도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대파」 조직원이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중국 연태항 등에서 부산항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5.95kg을 밀수하여 유통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도 일본 야쿠자 「쿄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밀수하여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 2017년도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파」 조직원 및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26kg을 밀수하여 유통 및 일본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 2018년도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50kg 이상을 밀수하여 국내 또는 일본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016년도 48개파 65명, 2017년도 44개파 72명, 2018년도 35개파 77명, 2019년도 21개파 29명, 2020년도 29개파 40명, 2021년도 29개파 53명임

[표 3-23]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17		14,123	72	0.5
2018		12,613	77	0.6
2019		16,044	29	0.2
2020		18,050	40	0.2
2021		16,153	53	0.3

[표 3-24]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2017		72 (100)	0 (0.0)	2 (2.8)	19 (26.4)	28 (38.9)	23 (31.9)
2018		77 (100)	0 (0.0)	1 (1.3)	20 (26.0)	39 (50.6)	17 (22.1)
2019		29 (100)	0 (0.0)	0 (0.0)	8 (27.6)	15 (51.7)	6 (20.7)
2020		40 (100)	0 (0.0)	0 (0.0)	12 (30.0)	15 (37.5)	13 (32.5)
2021		53 (100)	0 (0.0)	0 (0.0)	17 (32.1)	26 (49.1)	10 (18.9)

※ ()는 구성비 %

[표 3-25] 2021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1	1	18	26	11	57
인천	간석식구파(인천)	-	-	2	-	-	2
경기	구리남양주식구파(구리)	-	1	-	-	-	1
	시흥식구파(시흥)	-	-	1	-	1	2
충청	청주파라다이스파(청주)	-	-	1	-	-	1
대구	동구연합파(대구)	-	-	1	-	-	1
	평리동파(대구)	-	-	-	1	-	1
영남	신20세기파(부산)	-	-	-	2	-	2
	재건20세기파(부산)	-	-	1	1	1	3
	괴정사거리파(부산)	-	-	1	-	-	1
	하단파(부산)	-	-	-	1	1	2
	인수파(부산)	-	-	-	-	2	2
	칠성파(부산)	-	-	1	1	2	4
	재건칠성파(부산)	-	-	1	1	-	2
	광안칠성파(부산)	-	-	-	1	-	1
	재동파(부산)	-	-	1	2	-	3
	대운파(부산)	-	-	1	-	-	1
	재건서동파(부산)	-	-	-	2	-	2
	재건연산통합파(부산)	-	-	-	1	-	1
	악마파(부산)	-	-	-	1	-	1
	채은이파(부산)	-	-	-	1	-	1
	영도파(부산)	-	-	2	3	1	6
	부전동파(부산)	-	-	-	1	-	1
	병철이파(부산)	-	-	-	-	1	1
	부대식구파(부산)	-	-	1	-	1	2
	신서면파(부산)	-	-	-	1	-	1
	재건서면파(부산)	-	-	-	1	-	1
	통합서면파(부산)	-	-	-	1	-	1
	사상통합파(부산)	-	-	-	2	-	2
	포항사보이파(포항)	-	-	3	-	-	3
호남	무등산파(광주)	-	-	-	2	-	2
기타	외국인 범죄조직(평택)	1	-	1	-	1	3

나. 대표적 개입사례

밀제조 관련 사건

-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9kg을 밀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서 밀매 (대구지검)
-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서 밀매 (서울중앙지검)
- ▶ 2003. 11.경 일본 야쿠자 「마쓰바카이(松葉會)」 부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반제품을 밀반입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은닉하여 경유지인 우리나라로 밀반입하여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 ▶ 2015. 1.~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제조, 마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물질 2.4kg을 압수 (광주지검)
- ▶ 2015. 12.경 강원지역 폭력조직 「강릉식구파」 행동대장 등이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 필로폰 제조 예비 (부산지검)
- ▶ 2020. 2. ~ 2021. 1.경 구 소련 지역 국적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들 16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JHW-018(일명 ‘스파이스’) 약 640g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검거됨 (수원지검)

밀수 관련 사건

- ▶ 2007. 8.경 성남지역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11.9g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 2007. 9.경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의 중간 보스 등이 홍콩에서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약 615g 밀반입 후,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9.74g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갯단 「LGKK」 조직원이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48.2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간부가 중국에서 필로폰 987g을 구입한 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이 태국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 밀반입 (청주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46.58g 밀반입 (부산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黑社會)」 심양지역 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900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1. 10.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밀반입 (수원지검)
 - 2011. 12.~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5g 밀반입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98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 2012. 6.~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 등 4명이 대만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 밀반입 (부산지검)
- ▶ 2012.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4kg 밀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 2013. 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홍콩에서 필로폰 약 63g 밀반입 (수원지검)
- ▶ 2013.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7kg을 대형 커피 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 2014.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로 포장한 뒤 허리부위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 공항으로 밀반입 (울산지검)
- ▶ 2015. 5.경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필로폰 약 10kg을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행동대장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 불상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8kg을 건네받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 2016.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조직원이 중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261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 2016.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강화월드파」 행동대장이 조선족 운반책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6g을 밀반입하도록 지시 (인천지검)
- ▶ 2017. 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천안남산파」 고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7.77g을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 공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 2018. 4.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삼방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대마 약 130.3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인천지검)
 - 2021. 8.경 구리지역 폭력조직 「구리남양주식구파」 조직원들이 태국 소재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1,502.73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의정부지검)

밀매 관련 사건

- 2007. 3.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8g을 밀매, 투약 (고양지청)
- 2007.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 필로폰 약 8.62g을 160만원에 밀매 (대전지검)
-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제주지검)
-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 필로폰 약 0.18g을 3회에 걸쳐 밀매 (대구서부지청)
-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밀매, 수 회에 걸쳐 소지, 투약 (수원지검)
-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80g 밀매, 투약 (인천지검)
-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3.5g 매매 알선 및 2g 밀매 (인천지검)
-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1.4g 매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이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고 6회에 걸쳐 매매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 필로폰 약 3g 밀매 (울산지검)
- ▶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 필로폰 약 20g 밀매, 투약 (의정부지검)
- ▶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 필로폰 밀매 (대구서부지청)
- ▶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12g 밀매, 투약 (울산지검)
- ▶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투약 (인천지검)
- ▶ 2009. 3.~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수수 (서울중앙지검)
- ▶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서울중앙지검)
- ▶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창원지검)
- ▶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부산동부지청)
- ▶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g 밀매 및 교부 (수원지검)
- ▶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투약 (서울중앙지검)

-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g 밀매 (부산지검)
 -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g 밀매 (고양지청)
 -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천안지청)
 -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5g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이 필로폰 약 3.8g 밀매 (평택지청)
 -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이 필로폰 0.4g 밀매, 투약 (평택지청)
 - 2010. 12.~2011.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 프로포폴 8,000앰플 (20㎖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 2011. 1.경 부천지역 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9.8g 밀매, 필로폰 약 11.3g 매매 알선 (전주지검)
 -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 밀매 (부천지청)
 -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1g 밀매 (부천지청)
 -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 2011.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전주지검)

-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0.5g을 밀매 (전주지검)
-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 등 2명이 필로폰 3.5g 밀매, 투약 (수원지검)
- ▶ 2012.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대전지역 폭력조직 「진술파」 행동대원 등 4명이 필로폰 48g 밀매 (대전지검)
- ▶ 2013. 1.경 경북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청주지검)
- ▶ 2013.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진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알선 (광주지검)
- ▶ 2013. 3.경 경남 거제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 ▶ 2013.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 ▶ 2013. 4.경 천안지역 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이 필로폰 1.5g 밀매 (천안지청)
- ▶ 2013.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8g 매매 알선 (광주지검)
- ▶ 2013. 5.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 2013.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교부 및 필로폰 2g 매매 알선 (부산동부지청)
- ▶ 2013.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 2013.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 2014. 1.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회에 걸쳐 필로폰 16g 밀매 (정읍지청)
 - 2014. 3.~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2회에 걸쳐 필로폰 0.1g 밀매, 필로폰 2회 투약 (인천지검)
 - 2014. 5.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여주지청)
 - 2014. 10.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75g 밀매 및 대마 2회 흡연 (홍성지청)
 - 2014. 10.~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 필로폰 1g 밀매 및 1회 투약 (원주지청)
 - 2014.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인파」 추종 폭력배가 필로폰 수회 밀매, 필로폰 4.93g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김포지역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0.2g 밀매 및 4회 투약 (청주지검)
 - 2015. 3.경 미국 LA지역 「멕시코 갱」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0.9g 소지 (서울 동부지검)
 - 2015.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밀매 (안산지청)
 - 2015.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지청)
 - 2015. 4.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지청)
 - 2015.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1.6g 밀매 (성남지청)
 - 2015.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추정 폭력배가 필로폰 약 0.1g 밀매 (인천지검)

- ▶ 2015.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5g 밀매 및 0.33g 소지 (부산지검)
-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1g 밀매 및 1.93g 소지 (부산지검)
-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약 0.07g 소지 (부산지검)
-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400g 밀매 (부산지검)
- ▶ 2015.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산지검)
- ▶ 2015. 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 필로폰 매매 알선 (대구 서부지청)
- ▶ 2015. 12.경 미국 LA지역 한인 갠단 「LGKK」 조직원이 필로폰 약 150g 밀매 (의정부지검)
- ▶ 2016.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광안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g 밀매 (부산지검)
- ▶ 2016.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및 필로폰 약 5g 수수 (인천지검)
- ▶ 2016. 2.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g 밀매 (인천지검)
- ▶ 2016. 2.~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4g 교부, 필로폰 0.14g 밀매 및 2016. 6.경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6. 8.~11.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여주 희망상조회」 행동대장, 「하남청개구리파」 중간간부, 「양평남한강식구파」 간부 3명이 공모하여 부산에서 필로폰 10g 밀매 (여주지청)

-
- 2016. 7.~2017.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회 밀매, 6회 투약 (인천지검)
 - 2015. 8.~2017. 12.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전 「온양 태평양파」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 밀매 및 투약 (서산지청)
 - 2018. 3.경 창원·마산지역 폭력조직 「연합오동동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200g 밀매 (부산지검)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창수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4g 밀매하고, 필로폰 약 14.59g 및 대마 약 4.2g 소지 (울산지검)
 - 2018. 9.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무상 교부 (의정부지검)
 - 2019. 6.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0g 밀매 (대구지검)
 - 2021. 4.~8.경 경기 시흥지역 폭력조직 「시흥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1.58g 소지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투약·수수·소지 등 관련 사건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투약 (부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울산지검)
-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인천지검)
-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5g 수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03g 투약 (부산지검)
-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4.46g 소지 (인천지검)
-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4g 투약 (평택지청)

-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등 3명이 필로폰 투약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73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등 2명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35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포항지청)
 -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인천지검)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9g 소지, 투약 (부산 동부지청)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0.18g 소지, 투약 (전주지검)

- ▶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8g 소지, 투약 (안양지청)
- ▶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68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서울남부지검)
- ▶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창원지검)
- ▶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밀양지청)
- ▶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 2013. 11.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서울북부지검)

-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수수, 흡연 (서울중앙지검)
 - 2014. 4.경 제천지역 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3.17g 소지 (제천지검)
 - 2014. 5.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정읍지청)
 - 2014. 9.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2회 투약(대구지검)
 - 2014.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30g 소지 (울산지검)
 - 2014. 10.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4. 11.경 영광지역 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3g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홍성지청)
 - 2015.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3.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의정부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6g 소지, 투약 및 대마 0.13g 소지 (부산지검)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4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7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 2015. 9.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03g 교부 및 투약 (순천지청)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고문이 대마 약 470g 소지 및 대마 3회 흡연 (부산지검)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전동파(물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 2016. 5.~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익산구시장파」 조직원이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투약 (청주지검)
- ▶ 2017. 1.~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창원지검)
- ▶ 2017.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회 투약 및 약 6.2g 소지 (울산지검)
- ▶ 2017. 8.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72.69g 소지 (울산지검)
-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부두목이 필로폰 불상량 투약 (부산서부지청)

- 2019. 2.경 경남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0.05g씩 2회 투약 (통영지청)
- 2020. 2.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자산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수 회 투약 및 필로폰 4.4g 소지 (대구지검)
- 2020.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대마 2회 흡연 및 대마초 0.39g 소지 (부산동부지청)

보복범죄 관련 사건

- 1998. 4.경 서울지역 조직폭력배가 필로폰 10g에 소금을 섞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서울중앙지검)
- 1999.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등이 필로폰 1kg의 판매대금 7,000만원을 갚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부산지검)
- 2000.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등이 필로폰 거래 문제로 같은 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 칼로 찔러 살해미수 (서울중앙지검)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경 피해자가 청주지검에서 필로폰 취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협박 (대전지검)
- 2021. 2.경 구 소련 지역 국적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범죄단체의 수괴 및 간부 등이 조직 내에서 유통하던 JWH-018(일명 ‘스파이스’)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빼앗기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 상해를 가함 (수원지검)

8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가. 개요

- ▶ 마약류 밀조·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SNS 등 이용 광고행위』로 인해 마약류사범 증가함
- ▶ 마약류 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 ▶ 2017. 6. 3.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매매 등 광고 행위처벌 신설, '16. 12. 2. 공포) 시행

1.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제3조 제12호)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제62조 제1항 제4호)

[표 3-26] 2021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1	서울중앙지검	1	대마초	다크웹 OO 위드샵	-
2	대전지검	1	펜디메트라진	네이버카페	-
3	충주지청	1	필로폰	텔레그램	-
4	충주지청	1	알프라정등	OO마켓	-
5	대구지검	1	규시미아	OO마켓	-
6	대구지검	1	디에타민	OO마켓	-
7	대구지검	1	펜디메트라진	OO장터	-
8	안동지청	1	스틸녹스, 졸피뎀	SNS	3정
9	부산지검	1	펜터민	OO장터	81정
10	서울중앙지검	1	대마	SNS	대마종자 0.5g
11	서울중앙지검	2	대마	SNS, 왓츠앱	대마 67.02g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12	서울중앙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공개채널	-
13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14	대전지검	1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	네이버카페	-
15	대전지검	1	펜터민	네이버카페	-
16	대전지검	1	대마	페이스북	-
17	서울중앙지검	1	대마	다크웹	1,867.9g
18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다음카페	-
19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20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21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22	안동지청	1	필로폰	SNS	-
23	부산지검	1	졸피뎴	트위터	-
24	부산지검	1	졸피뎴	트위터	-
25	서울중앙지검	1	대마초	텔레그램 공개채널	-
26	수원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27	수원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28	대전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29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30	대전지검	1	펜터민 등	다음카페	-
31	대구지검	2	대마초 등	텔레그램 공개채널	-
32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33	대구지검	1	GHB	채팅어플	-
34	부산지검	1	5F-MDMB-PICA	SNS 등	-
35	부산지검	1	디아타민	네이버카페	-
36	부산지검	1	펜터민	OO마켓	-
37	의정부지검	1	펜디라정,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38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39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40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41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42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43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44	대전지검	1	GHB	채팅어플	-
45	부산지검	1	에티졸람	OO장터	-
46	부산지검	2	대마	SNS 트위터	-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47	부산지검	1	트리아졸람	OO장터	-
48	부산지검	1	메틸페니데이트	SNS 트위터	58정
49	부산지검	1	졸피뎀	SNS 트위터	10정
50	부산동부지청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51	부산동부지청	1	디에타민	다음카페	-
52	수원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블로그	-
53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54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55	대구지검	1	졸피뎀	채팅어플	-
56	부산지검	1	대마	인터넷사이트	1.9g
57	부산지검	1	페니드정	트위터	60정
58	부산지검	1	에티졸람	OO장터	-
59	부산지검	2	필로폰	트위터	-
60	의정부지검	1	트리아졸람	OO장터	-
61	수원지검	2	펜타닐	대한통증학회 홈페이지 배너	-
62	대구지검	1	졸피뎀	채팅어플	-
63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64	대전지검	1	디에타민	SNS	-
65	안동지청	1	졸피뎀 등	SNS 트위터	135정
66	부산지검	1	JWH-018 등	우편 발송	-
67	부산지검	1	필로폰 등	트위터	-
68	부산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69	의정부지검	1	합성대마	페이스북	-
70	수원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71	수원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72	수원지검	1	졸피뎀	트위터	-
73	천안지청	1	졸피뎀	트위터	24정
74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75	대구지검	1	졸피뎀	채팅어플	-
76	창원지검	2	GHB, 졸피뎀 등	유튜브 등	-
77	서울중앙지검	1	대마초	다크웹	-
78	서울중앙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트위터	-
79	의정부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80	수원지검	1	졸피뎀	채팅어플	-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81	수원지검	1	대마초	텔레그램	-
82	대전지검	1	디에타민	네이버카페	-
83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84	대구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85	부산지검	1	JWH-018	우편 발송	-
86	부산지검	1	엑스터시 등	트위터	-
87	서울중앙지검	3	CBD오일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88	서울중앙지검	1	물봉, GHB 등	구글코리아 블로그	-
89	서울중앙지검	2	LSD, 대마 등	다크웹 탐코리아	LSD 346점, 엑스터시 40점, 케타민 20.27g, 코카인 43.64g
90	서울중앙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91	충주지청	1	필로폰	채팅어플	-
92	부산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필로폰 0.04g
93	부산지검	1	졸피뎀	트위터	-
94	부산동부지청	1	필로폰	텔레그램	-
95	서울중앙지검	3	펜타닐시트르산염	홈페이지 배너	-
96	서울중앙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97	서울중앙지검	1	대마오일	네이버 등	-
98	서울중앙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99	의정부지검	1	대마오일	네이버스토어	-
100	수원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101	천안지청	1	졸피뎀	트위터	-
102	부산지검	1	졸피뎀	트위터	-
103	창원지검	2	필로폰	텔레그램	-
104	서울중앙지검	1	대마오일	해외구매대행사사이트	-
105	서울중앙지검	1	대마초	다크웹	-
106	의정부지검	1	졸피뎀	채팅어플	-
107	평택지청	1	필로폰	트위터	-
108	부산지검	2	대마초	구글, 트위터	-
109	부산지검	1	필로폰	채팅어플	-
총계		122			

나. 주요 수사 사례

- ▶ 2017. 6.경 인터넷에 4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 희망자 13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4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전력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 2017. 10.경 ‘즐톡’에 “아이스 작대기 있다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등과 같은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안동지청)
- ▶ 2018. 3.경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신상ㄴ 냄새풀풀 고약, ... 신상 chrystal”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의정부지검)
- ▶ 2018. 1. ~ 3. ‘트위터’, ‘유튜브’ 및 ‘다크웹’ 등에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대마초 팝니다.....와이어 메신저 ID: ○○○ 친추.... 사진 선명도 확인 보유한 제품의 양 확인....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고 ... 이용하세요....” 등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234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 2018. 3. ~ 10. ‘다크웹’에 “... 대마 품종의 한 종류 팝니다. ○○리 시드샵에서 구매했습니다. ... 전날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 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총 16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 2018. 11.초순 ‘다크웹’에 [ON][서울 경기] ice, mess 순도 97%↑ 원산지: north korea’라는 제목 아래, “... 여러분께 순도 높은 북한산 얼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 최소 수량 1작대기 ○○에 모십니다. 대량 도매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 2019. 2. ~ 12. 다크웹 하이코리아 및 미미숍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238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대마 약 2k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 2019. 4. ~ 7. ‘트위터’ 등 인터넷에 “제가 단골 되어드리구 확실한 놈이란 꼬리표 붙게끔 열심히 뛰어댕겨요. 언제든지 통신보안, 안전드랍, 생명입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42회에 걸쳐 대마 약 84g 및 엑스터시

6정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구속, 대마초 약 600g 및 엑스터시 47정 등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16. 2. ~ 2019. 4.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 짹짹! 솔루션의 재배력도 같이 자라는지 안팎으로 트라이콤이 짹 찬드들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74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대마초 약 400g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18. 11. ~ 2019. 3.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안녕하세요! 풀○○선생님입니다. 1월31자로 재입고 완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마 약 1kg을 약 9,000만 원에 판매한 마약사범 3명 적발하여 2명 구속, 곤○○ 지역 창고 건물에서 재배 중인 대마 351주 및 대마초 약 877g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19. 2. ~ 2020. 2. 다크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 약 16회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712회에 걸쳐 3억 8,2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5.6kg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적발하여 1명 구속, 대마 197주 및 대마초 약 3.4kg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19. 11. ~ 2020. 3. 마약사범 주거지에서 재배한 대마 및 캐나다에서 밀수한 대마 농축액을 공범에게 제공하여 대마카트리지를 제조하게 하고,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수회 대마카트리지를 판매한 마약사범 3명 적발, 2명 구속, 대마 농축액 514.76g 및 대마카트리지 69개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19. 8. ~ 2020. 2. 서울시 OO구 상가 지하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후 인터넷, SNS, 다크웹 등에 123회에 걸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5천9백만 원 상당의 대마 580g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적발, 1명 구속, 대마 56주 및 대마초 488g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20. 4. ~ 6. 경북 OO시 주거용 빌라에서 환각버섯·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환각버섯·대마를 재배한 후 인터넷에 43회에 걸쳐 환각버섯, 대마, LSD, 아편 등 판매 광고를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환각버섯 106주 및 12g, 대마 7주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20. 5. ~ 10.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다음 “도매 전문점입니다. 술, 아이스가 부족 해서 판매하지 못하거나 혹은 동술, 명술 뿐이라면 판매를 접했습니다” 등과 같이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광고를 게시한 마약사범 4명 적발, 2명 구속, 엑스터시 3,000정, 케타민 2kg 압수 (창원지검)
- ▶ 2020. 7. ~ 10. 텔레그램 공개채널 ‘OO이네’를 개설하여, 그 채널에 마약류 촬영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증딜러 OO환입니다. 서울 인천 드랍 안전을 최우선으로 엘, 캔디 ㅇㅇ스입고!!” 등과 같이 LSD, 엑스터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29회에 걸쳐 게시하고, 총 472회에 걸쳐 함께 2억5천9백만 원 상당의 LSD 25탭, 필로폰 9g, 엑스터시 126정, 대마 1,551g, 액상대마 94개를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LSD 28탭, 필로폰 10.15g,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g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20. 10. ~ 12. 텔레그램 공개채널을 개설한 다음, 그 채널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OOO체 인사드립니다. 취급품목 : 엑스터시, 아이스 빠른 거래 빠른 좌표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과 같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판매광고를 30회에 걸쳐 게시한 마약사범 2명 구속, 필로폰 68.85g, 케타민 59.09g, MDMA 88정, 대마초 154.58g, LSD 5탭 압수 (서울중앙지검)
- ▶ 2020. 7. ~ 2021. 3.경 안산시 OO구 상가건물 내에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후, 대마 약 82g(가액 약 1,060만원)을 매매, 위 건물 내 대마 약 1,867.98g 보관하여 소지한 마약사범 구속, 대마 약 1,867.98g 압수 (서울중앙지검)

[표 3-27]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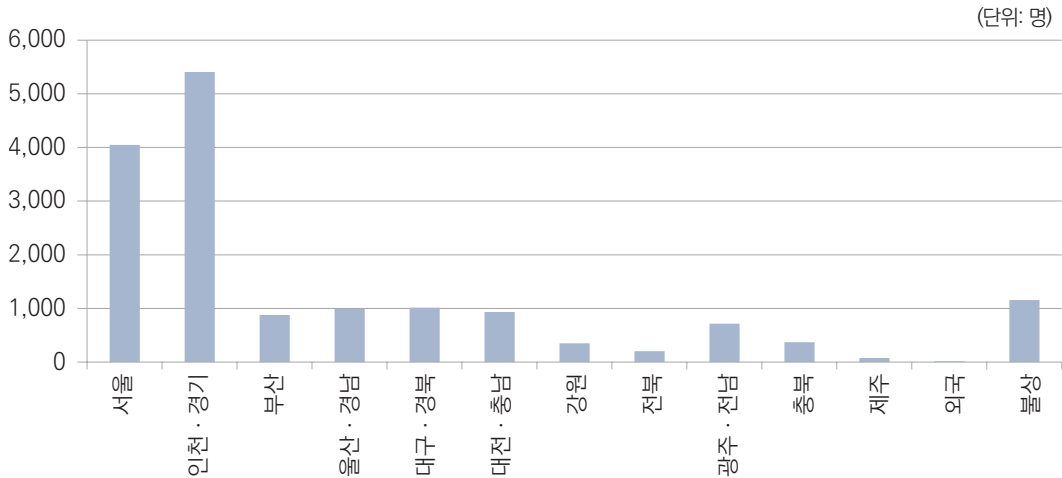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123 (100)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16,153 (100)
서울	2,789 (19.8)	2,677 (21.2)	3,607 (22.5)	4,015 (22.2)	4,044 (25.0)
인천·경기	4,045 (28.6)	3,530 (28.0)	4,931 (30.7)	5,555 (30.8)	5,407 (33.5)
부산	1,380 (9.8)	1,125 (8.9)	935 (5.8)	1,191 (6.6)	880 (5.4)
울산·경남	1,308 (9.3)	1,001 (7.9)	1,156 (7.2)	1,278 (7.1)	988 (6.1)
대구·경북	1,133 (8.0)	977 (7.7)	1,193 (7.4)	1,320 (7.3)	1,015 (6.3)
대전·충남	792 (5.6)	751 (6.0)	923 (5.8)	1,112 (6.2)	932 (5.8)
강원	384 (2.7)	363 (2.9)	538 (3.4)	465 (2.6)	351 (2.2)
전북	150 (1.1)	140 (1.1)	226 (1.4)	274 (1.5)	204 (1.3)
광주·전남	381 (2.7)	391 (3.1)	468 (2.9)	751 (4.2)	715 (4.4)
충북	371 (2.6)	362 (2.9)	419 (2.6)	455 (2.5)	370 (2.3)
제주	81 (0.6)	56 (0.4)	89 (0.6)	93 (0.5)	75 (0.5)
외국	20 (0.1)	53 (0.4)	61 (0.4)	107 (0.6)	16 (0.1)
불상	1,289 (9.1)	1,187 (9.4)	1,498 (9.3)	1,434 (7.9)	1,156 (7.2)

※ ()는 구성비 %

- ▶ 2021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58.5%), 대구·경북(6.3%), 울산·경남(6.1%), 대전·충남(5.8%), 부산(5.4%) 순으로 전체사범 중 76.4%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표 3-28]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단위: 명)

지역별	구분	2020	2021	증감률(%)
서울		4,015	4,044	0.7
인천·경기		5,555	5,407	-2.7
부산		1,191	880	-26.1
울산·경남		1,278	988	-22.7
대구·경북		1,320	1,015	-23.1
대전·충남		1,112	932	-16.2
강원		465	351	-24.5
전북		274	204	-25.5
광주·전남		751	715	-4.8
충북		455	370	-18.7
제주		93	75	-19.4
외국		107	16	-85.0
불상		1,434	1,156	-19.4

- ▶ 전년대비 단속인원 증감률은 부산지역 26.1%, 전북지역 25.5%, 강원지역 24.5%, 대구·경북지역 23.1%, 울산·경남지역 22.7% 순으로 각 감소하였고, 서울지역만 0.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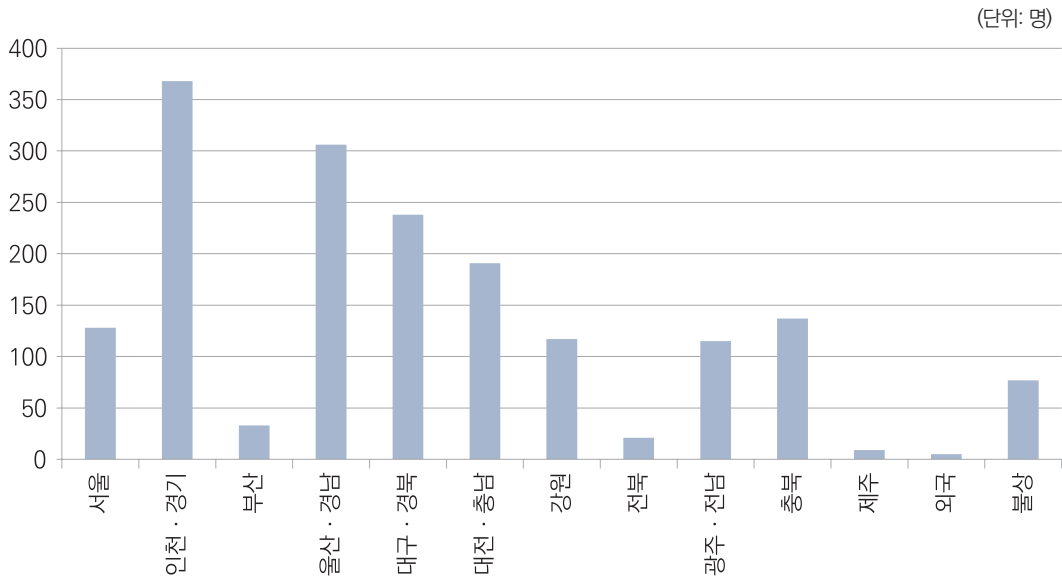
[표 3-29]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75 (100)	1,467 (100)	1,804 (100)	2,198 (100)	1,745 (100)
서울	98 (6.7)	97 (6.6)	161 (8.9)	121 (5.5)	128 (7.3)
인천·경기	279 (18.9)	352 (24.0)	408 (22.6)	499 (22.7)	368 (21.1)
부산	42 (2.8)	41 (2.8)	40 (2.2)	62 (2.8)	33 (1.9)
울산·경남	174 (11.8)	148 (10.1)	157 (8.7)	279 (12.7)	306 (17.5)
대구·경북	195 (13.2)	181 (12.3)	191 (10.6)	293 (13.3)	238 (13.6)
대전·충남	197 (13.4)	136 (9.3)	136 (7.5)	224 (10.2)	191 (10.9)
강원	141 (9.6)	180 (12.3)	230 (12.7)	212 (9.6)	117 (6.7)
전북	30 (2.0)	15 (1.0)	25 (1.4)	39 (1.8)	21 (1.2)
광주·전남	112 (7.6)	110 (7.5)	138 (7.6)	173 (7.9)	115 (6.6)
충북	158 (10.7)	139 (9.5)	172 (9.5)	215 (9.8)	137 (7.9)
제주	5 (0.3)	1 (0.1)	0 (0.0)	2 (0.1)	9 (0.5)
외국	0 (0.0)	7 (0.5)	2 (0.1)	0 (0.0)	5 (0.3)
불상	44 (3.0)	60 (4.1)	144 (8.0)	79 (3.6)	77 (4.4)

※ ()는 구성비 %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 2021년도 마약사범은 1,745명으로 전년(2,198명) 대비 20.6% 감소하였으며, 부산 지역이 33명으로 전년(62명) 대비 46.8% 감소, 전북지역이 21명으로 전년(39명) 대비 46.2% 감소, 강원지역이 117명으로 전년(212명) 대비 44.8%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울산·경남지역이 306명으로 전년(279명) 대비 9.7% 증가, 서울지역이 128명으로 전년(121명) 대비 5.8% 증가함
- ▶ 마약사범은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유율은 인천·경기 지역(21.1%), 울산·경남지역(17.5%), 대구·경북지역(13.6%), 대전·충남지역(10.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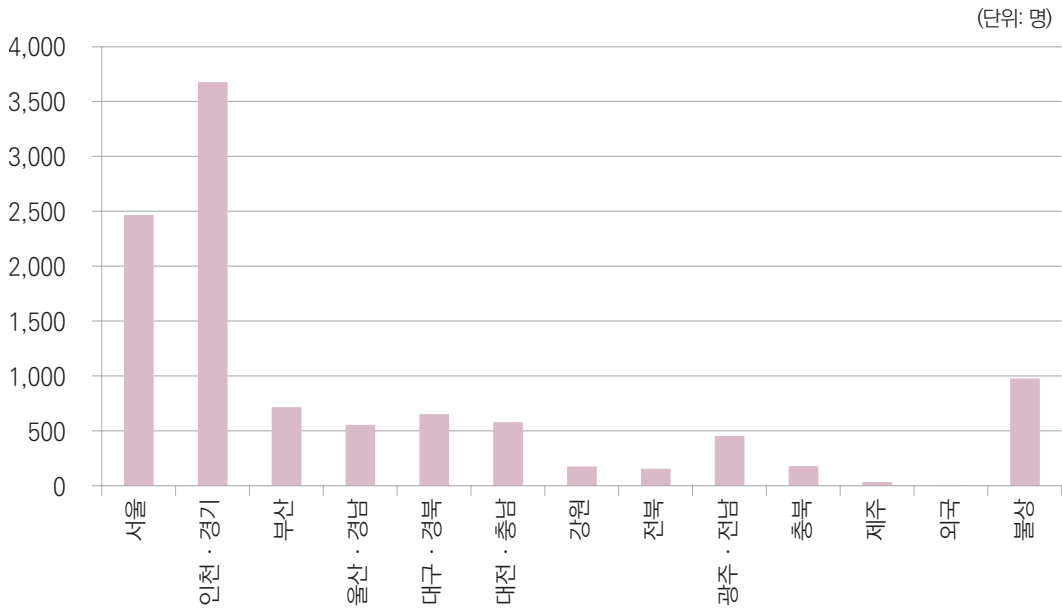
[표 3-30]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0,921 (100)	9,613 (100)	11,611 (100)	12,640 (100)	10,631 (100)
서울	2,109 (19.3)	2,131 (22.2)	2,401 (20.7)	2,746 (21.7)	2,466 (23.2)
인천·경기	3,215 (29.5)	2,703 (28.1)	3,725 (32.1)	4,037 (31.9)	3,677 (34.6)
부산	1,217 (11.2)	973 (10.1)	839 (7.2)	980 (7.8)	716 (6.7)
울산·경남	1,072 (9.8)	778 (8.1)	893 (7.7)	849 (6.7)	554 (5.2)
대구·경북	853 (7.8)	706 (7.3)	870 (7.5)	898 (7.1)	654 (6.2)
대전·충남	517 (4.7)	522 (5.4)	687 (5.9)	722 (5.7)	578 (5.4)
강원	180 (1.6)	136 (1.4)	236 (2.0)	210 (1.7)	175 (1.6)
전북	106 (1.0)	111 (1.2)	177 (1.5)	206 (1.6)	155 (1.5)
광주·전남	250 (2.3)	250 (2.6)	282 (2.4)	466 (3.7)	455 (4.3)
충북	189 (1.7)	197 (2.0)	205 (1.8)	209 (1.7)	181 (1.7)
제주	67 (0.6)	46 (0.5)	68 (0.6)	70 (0.6)	36 (0.3)
외국	12 (0.1)	39 (0.4)	43 (0.4)	45 (0.4)	7 (0.1)
불상	1,134 (10.4)	1,021 (10.6)	1,185 (10.2)	1,202 (9.5)	977 (9.2)

※ ()는 구성비 %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 ▶ 2021년도 향정사범은 10,631명으로 전년(12,640명) 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제주 지역이 7명으로 전년(45명) 대비 48.6% 감소, 울산·경남지역이 554명으로 전년(849명) 대비 34.7% 감소, 대구·경북지역이 654명으로 전년(898명) 대비 27.2% 감소, 부산지역이 716명으로 전년(980명) 대비 26.9%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소함
- ▶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34.6%), 서울지역(23.2%), 부산지역(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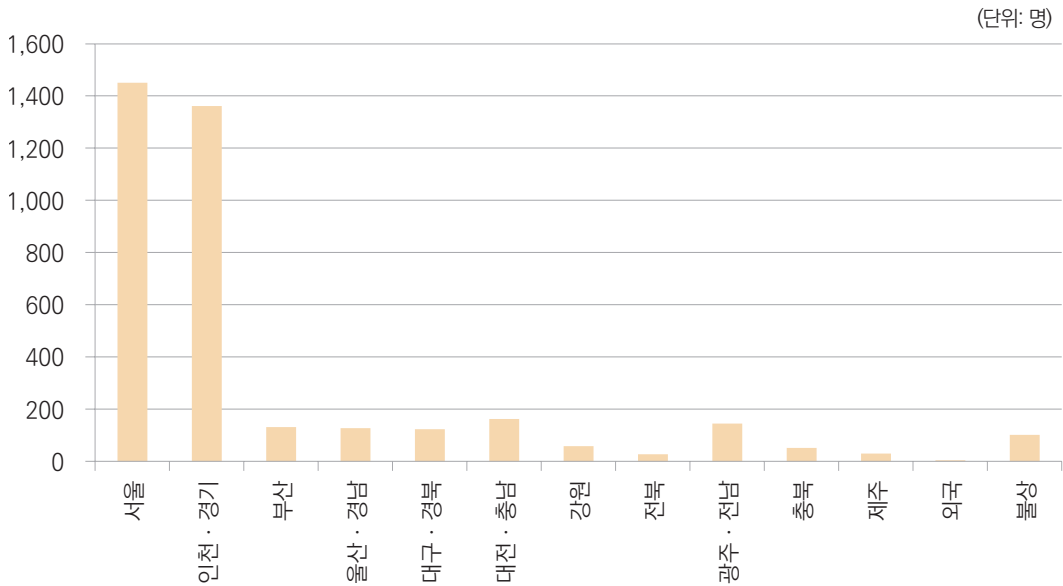
[표 3-31]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727 (100)	1,533 (100)	2,629 (100)	3,212 (100)	3,777 (100)
서울	582 (33.7)	449 (29.3)	1,045 (39.7)	1,148 (35.7)	1,450 (38.4)
인천·경기	551 (31.9)	475 (31.0)	798 (30.4)	1,019 (31.7)	1,362 (36.1)
부산	121 (7.0)	111 (7.2)	56 (2.1)	149 (4.6)	131 (3.5)
울산·경남	62 (3.6)	75 (4.9)	106 (4.0)	150 (4.7)	128 (3.4)
대구·경북	85 (4.9)	90 (5.9)	132 (5.0)	129 (4.0)	123 (3.3)
대전·충남	78 (4.5)	93 (6.1)	100 (3.8)	166 (5.2)	163 (4.3)
강원	63 (3.7)	47 (3.1)	72 (2.7)	43 (1.3)	59 (1.6)
전북	14 (0.8)	14 (0.9)	24 (0.9)	29 (0.9)	28 (0.7)
광주·전남	19 (1.1)	31 (2.0)	48 (1.8)	112 (3.5)	145 (3.8)
충북	24 (1.4)	26 (1.7)	42 (1.6)	31 (1.0)	52 (1.4)
제주	9 (0.5)	9 (0.6)	21 (0.8)	21 (0.7)	30 (0.8)
외국	8 (0.5)	7 (0.5)	16 (0.6)	62 (1.9)	4 (0.1)
불상	111 (6.4)	106 (6.9)	169 (6.4)	153 (4.8)	102 (2.7)

※ ()는 구성비 %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 2021년도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전년(3,212명)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충북 지역이 52명으로 전년(31명) 대비 67.7% 증가, 제주지역이 30명으로 전년(21명) 대비 42.9% 증가, 인천·경기지역이 1,362명으로 전년(1,019명) 대비 33.7% 증가, 광주·전남지역이 145명으로 전년(112명) 대비 29.5% 증가함
- ▶ 대마사범 점유율은 서울지역(38.4%), 인천·경기지역(36.1%), 대전·충남지역(4.3%) 순으로 나타남

[표 3-32]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123 (100)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16,153 (100)
무직	4,073 (28.8)	3,753 (29.8)	4,972 (31.0)	5,826 (32.3)	5,492 (34.0)
농업	487 (3.5)	426 (3.4)	406 (2.5)	553 (3.1)	287 (1.8)
도소매업	96 (0.7)	63 (0.5)	93 (0.6)	56 (0.3)	83 (0.5)
유흥업	131 (0.9)	104 (0.8)	151 (0.9)	126 (0.7)	94 (0.6)
서비스업	184 (1.3)	175 (1.4)	225 (1.4)	231 (1.3)	238 (1.5)
금융/증권	15 (0.1)	21 (0.2)	13 (0.1)	34 (0.2)	20 (0.1)
부동산업	37 (0.3)	32 (0.3)	19 (0.1)	25 (0.1)	38 (0.2)
노동	534 (3.8)	407 (3.2)	588 (3.7)	691 (3.8)	693 (4.3)
회사원	522 (3.7)	534 (4.2)	723 (4.5)	962 (5.3)	1,010 (6.3)
공업	233 (1.7)	126 (1.0)	206 (1.3)	278 (1.5)	246 (1.5)
건설	118 (0.8)	80 (0.6)	130 (0.8)	127 (0.7)	76 (0.5)
의료	42 (0.3)	98 (0.8)	130 (0.8)	222 (1.2)	156 (1.0)
운송업	116 (0.8)	98 (0.8)	109 (0.7)	88 (0.5)	75 (0.5)
가사	152 (1.1)	168 (1.3)	180 (1.1)	270 (1.5)	195 (1.2)

※ ()는 구성비 %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4.0%), 회사원(6.3%), 노동(4.3%), 학생(3.1%) 순으로 나타남
- ▶ 그 중 마약사범의 경우 무직(37.1%), 농업(14.0%), 학생(6.7%) 순이고, 향정사범은 무직(37.4%), 노동(5.2%), 회사원(4.7%) 순이며, 대마사범은 무직(22.8%), 회사원(12.2%), 학생(4.6%) 순임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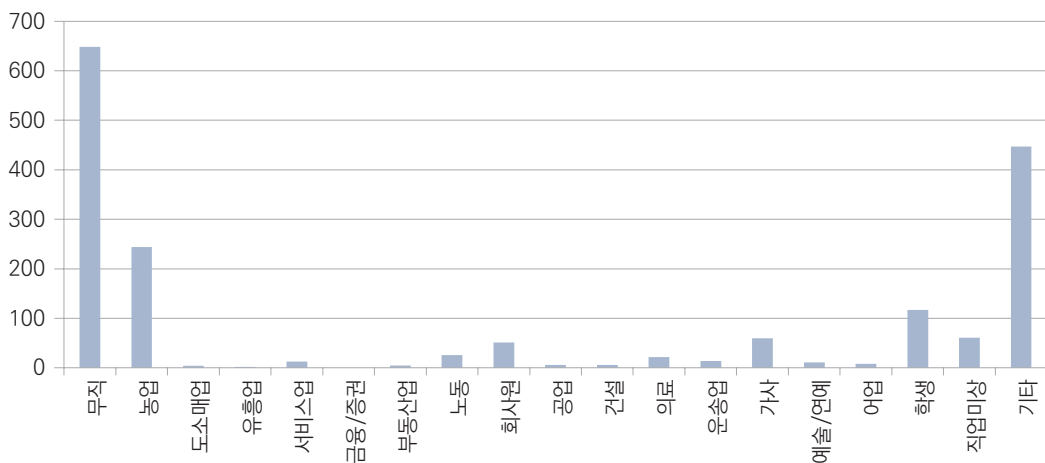
[표 3-33]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475	1,467	1,804	2,198	1,745
무직	460	438	595	788	648
농업	406	351	336	465	244
도소매업	3	2	8	4	4
유흥업	1	0	10	0	2
서비스업	27	17	12	18	13
금융/증권	0	0	0	0	0
부동산업	1	2	1	0	5
노동	27	27	21	24	26
회사원	34	36	46	28	51
공업	4	3	6	1	6
건설	10	2	4	11	6
의료	12	22	32	22	22
운송업	9	10	6	8	14
가사	60	63	71	111	60
예술/연예	0	2	4	0	11
어업	3	3	2	12	8
학생	2	1	4	35	117
직업미상	63	61	153	124	61
기타	353	427	493	547	447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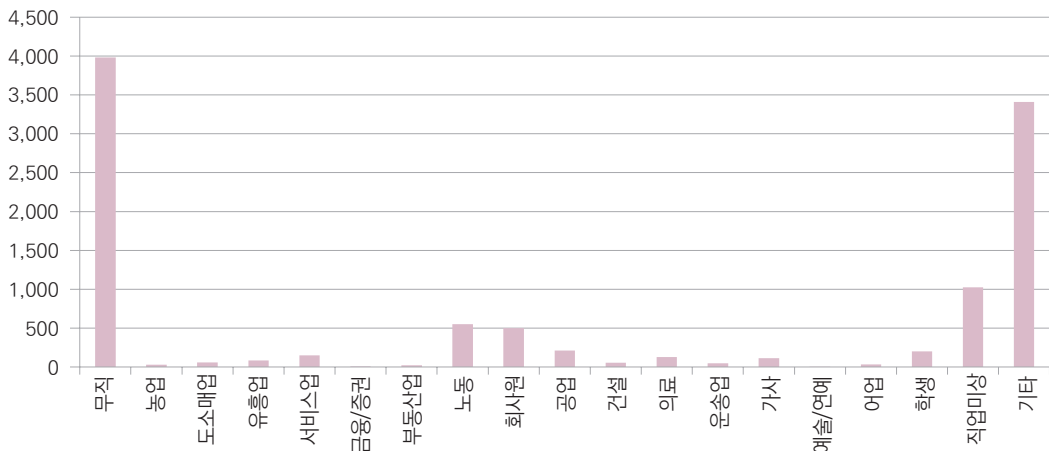
[표 3-34]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0,921	9,613	11,611	12,640	10,631
무직	3,245	2,996	3,744	4,268	3,981
농업	39	37	41	61	30
도소매업	86	51	73	41	61
유흥업	119	94	108	108	85
서비스업	128	143	157	162	152
금융/증권	15	17	8	25	9
부동산업	27	25	15	22	25
노동	460	335	487	543	552
회사원	393	403	512	667	500
공업	209	99	180	247	214
건설	93	70	113	103	55
의료	30	76	96	196	130
운송업	103	77	91	71	49
가사	81	100	100	143	113
예술/연예	14	16	19	13	7
어업	40	23	35	16	34
학생	66	73	140	191	203
직업미상	932	1,140	1,300	1,376	1,024
기타	4,841	3,838	4,392	4,387	3,407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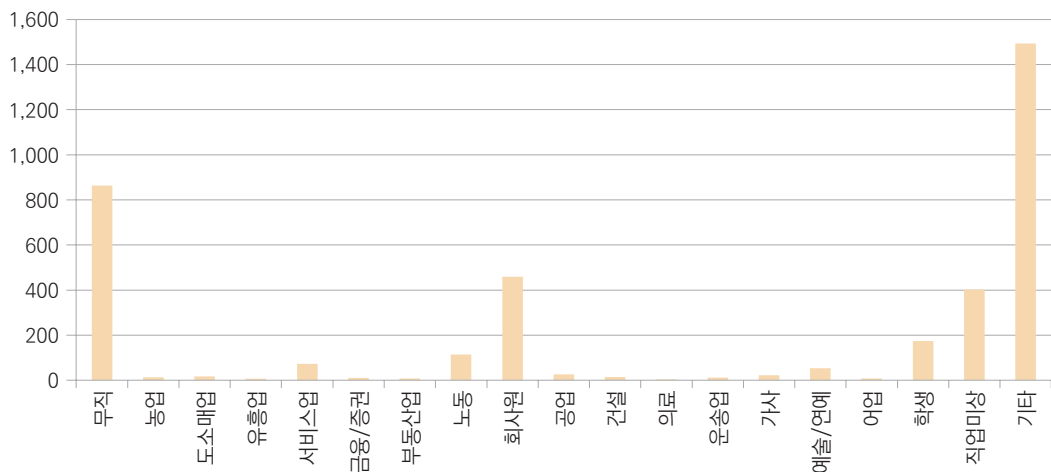
[표 3-35]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727	1,533	2,629	3,212	3,777
무직	368	319	633	770	863
농업	42	38	29	27	13
도소매업	7	10	12	11	18
유흥업	11	10	33	18	7
서비스업	29	15	56	51	73
금융/증권	0	4	5	9	11
부동산업	9	5	3	3	8
노동	47	45	80	124	115
회사원	95	95	165	267	459
공업	20	24	20	30	26
건설	15	8	13	13	15
의료	0	0	2	4	4
운송업	4	11	12	9	12
가사	11	5	9	16	22
예술/연예	32	25	26	49	54
어업	2	3	1	6	8
학생	37	49	97	142	174
직업미상	195	181	242	305	402
기타	803	686	1,191	1,358	1,493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11

연령별 현황

[표 3-36]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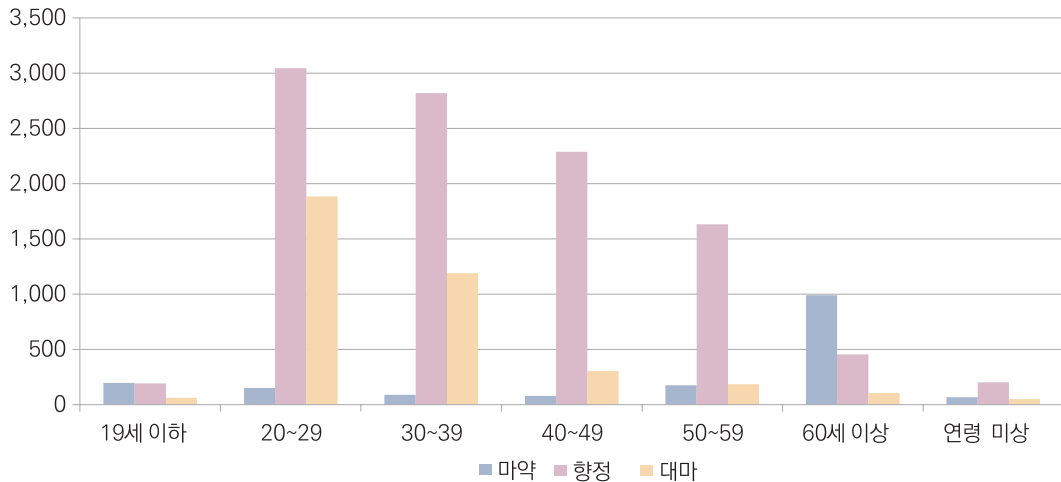
(단위: 명)

마약류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450 (2.8)	5,077 (31.4)	4,096 (25.4)	2,670 (16.5)	1,992 (12.3)	1,550 (9.6)	318 (2.0)	16,153 (100)
마약	196 (11.2)	150 (8.6)	88 (5.0)	78 (4.5)	176 (10.1)	990 (56.7)	67 (3.8)	1,745 (100)
향정	192 (1.8)	3,044 (28.6)	2,819 (26.5)	2,287 (21.5)	1,632 (15.4)	455 (4.3)	202 (1.9)	10,631 (100)
대마	62 (1.6)	1,883 (49.9)	1,189 (31.5)	305 (8.1)	184 (4.9)	105 (2.8)	49 (1.3)	3,777 (100)

※ ()는 구성비 %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1년도에는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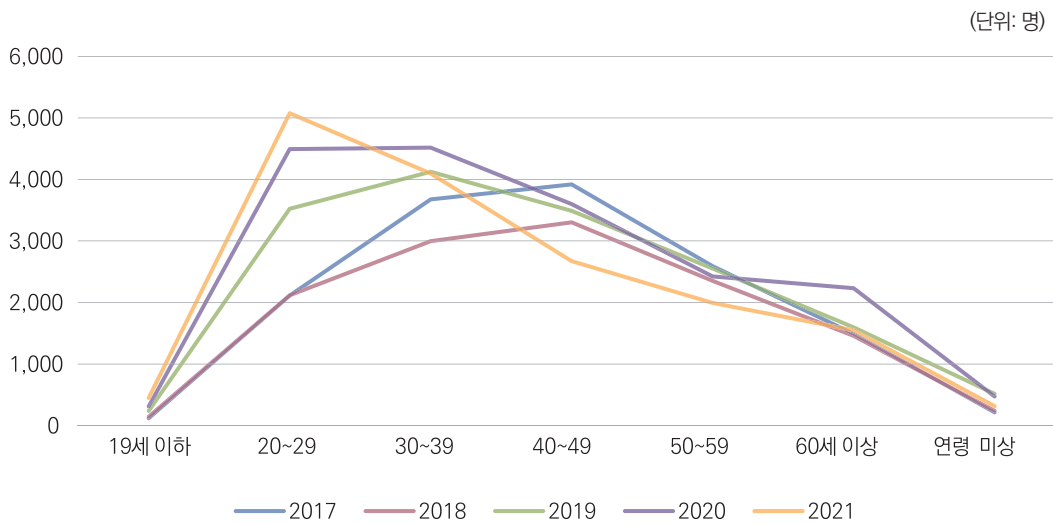
[표 3-37]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 ()는 구성비 %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표 3-38]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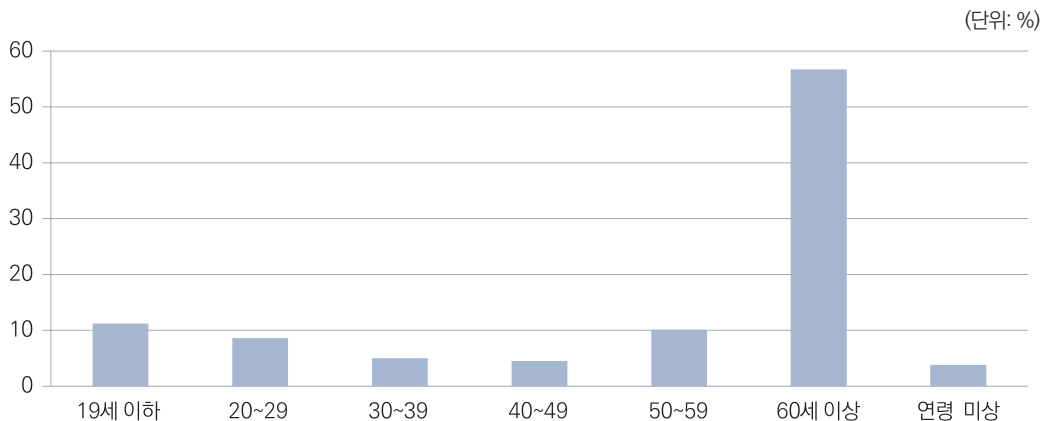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7	0	42	85	112	223	990	23	1,475
	(0.0)	(2.8)	(5.8)	(7.6)	(15.1)	(67.1)	(1.6)	(100)
2018	2	65	71	103	236	961	29	1,467
	(0.1)	(4.4)	(4.8)	(7.0)	(16.1)	(65.5)	(2.0)	(100)
2019	3	99	139	107	237	1,098	121	1,804
	(0.2)	(5.5)	(7.7)	(5.9)	(13.1)	(60.9)	(6.7)	(100)
2020	39	116	84	101	247	1,550	61	2,198
	(1.8)	(5.3)	(3.8)	(4.6)	(11.2)	(70.5)	(2.8)	(100)
2021	196	150	88	78	176	990	67	1,745
	(11.2)	(8.6)	(5.0)	(4.5)	(10.1)	(56.7)	(3.8)	(100)

※ ()는 구성비 %

- ▶ 2021년도 적발된 마약사범은 1,745명으로 전년(2,198명) 대비 20.6% 감소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56.7%를 점유함.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0세 이상 점유율은 66.8%에 달함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표 3-39] 행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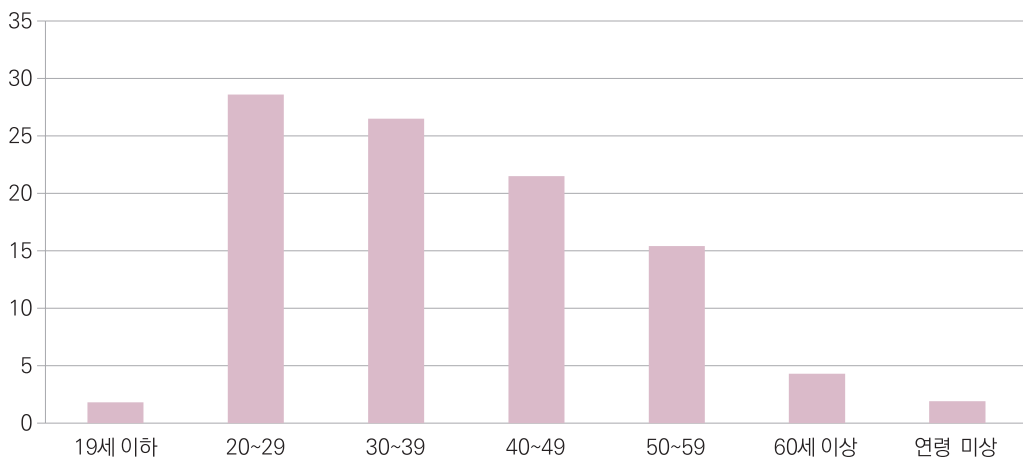
연도별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1.4)	(19.4)	(27.9)	(26.9)	(18.0)	(3.5)	(2.9)	(100)
2020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1.6)	(22.9)	(27.3)	(25.3)	(15.8)	(4.4)	(2.7)	(100)
2021	192	3,044	2,819	2,287	1,632	455	202	10,631
	(1.8)	(28.6)	(26.5)	(21.5)	(15.4)	(4.3)	(1.9)	(100)

※ ()는 구성비 %

- ▶ 2021년도 적발된 행정사범은 10,631명으로 전년(12,640명) 대비 15.9% 감소하였고, 20~30대가 5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그림 3-22] 행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표 3-40]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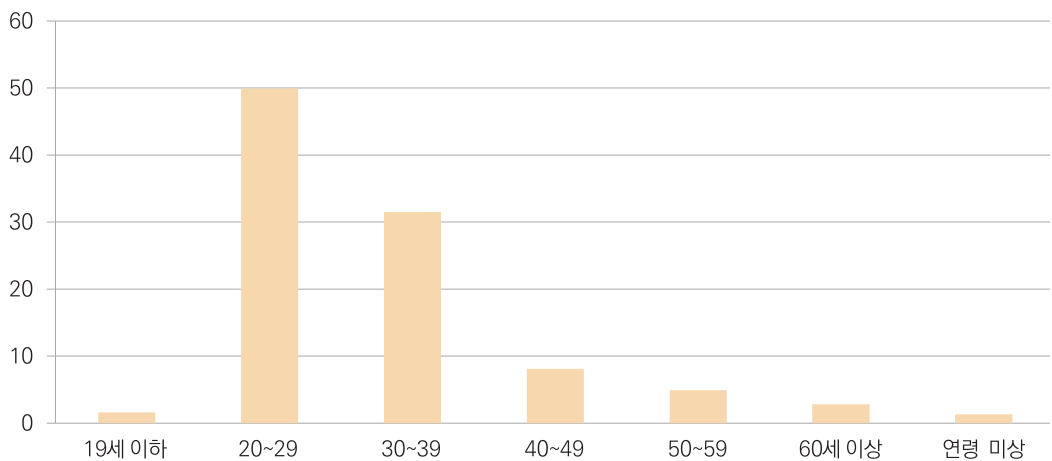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4)	(17.8)	(9.3)	(7.5)	(2.0)	(100)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3)	(34.6)	(26.3)	(14.5)	(12.5)	(7.0)	(2.7)	(100)
2019		69	1,167	748	257	225	97	66	2,629
		(2.6)	(44.4)	(28.5)	(9.8)	(8.6)	(3.7)	(2.5)	(100)
2020		78	1,481	983	294	180	120	76	3,212
		(2.4)	(46.1)	(30.6)	(9.2)	(5.6)	(3.7)	(2.4)	(100)
2021		62	1,883	1,189	305	184	105	49	3,777
		(1.6)	(49.9)	(31.5)	(8.1)	(4.9)	(2.8)	(1.3)	(100)

※ ()는 구성비 %

- 2021년도 적발된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전년(3,212명) 대비 17.6% 증가하였고, 20~30대가 81.3%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표 3-41]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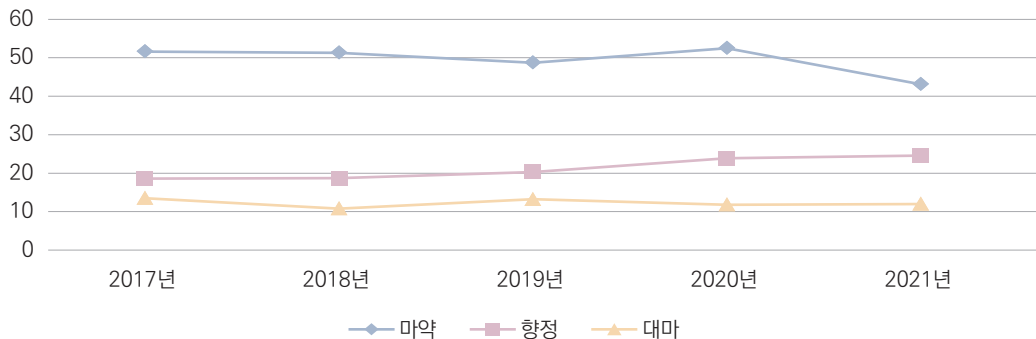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7		714	761	8,895	2,026	1,493	234	11,102	3,021
		(48.4)	(51.6)	(81.4)	(18.6)	(86.5)	(13.5)	(78.6)	(21.4)
2018		715	752	7,812	1,801	1,367	166	9,894	2,719
		(48.7)	(51.3)	(81.3)	(18.7)	(89.2)	(10.8)	(78.4)	(21.6)
2019		926	878	9,258	2,353	2,283	346	12,467	3,577
		(51.3)	(48.7)	(79.7)	(20.3)	(86.8)	(13.2)	(77.7)	(22.3)
2020		1,045	1,153	9,615	3,025	2,833	379	13,493	4,557
		(47.5)	(52.5)	(76.1)	(23.9)	(88.2)	(11.8)	(74.8)	(25.2)
2021		993	752	8,020	2,611	3,322	455	12,335	3,818
		(56.9)	(43.1)	(75.4)	(24.6)	(88.0)	(12.0)	(76.4)	(23.6)

※ ()는 구성비 %

- ▶ 2013년도 ~ 2015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점유율이 14%~19%에 그쳤으나, 2016년도부터는 2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2020년도 25.2%, 2021년도 23.6%를 차지함
- ▶ 2021년도 여성 마약류사범은 마약사범의 경우 752명으로 전년(1,153명) 대비 34.8% 감소, 향정사범의 경우 2,611명으로 전년(3,025명) 대비 13.7% 감소, 대마사범의 경우 455명으로 전년(379명) 대비 20.1% 증가하였음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단위: %)



[표 3-42]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단위: 명)

직업별	성별	남		여	
합계		12,335	(76.4)	3,818	(23.6)
무직		3,831	(69.8)	1,661	(30.2)
농업		166	(57.8)	121	(42.2)
도소매업		69	(83.1)	14	(16.9)
유흥업		27	(28.7)	67	(71.3)
서비스업		203	(85.3)	35	(14.7)
금융/증권		12	(60.0)	8	(40.0)
부동산업		34	(89.5)	4	(10.5)
노동		658	(94.9)	35	(5.1)
회사원		831	(82.3)	179	(17.7)
공업		244	(99.2)	2	(0.8)
건설		74	(97.4)	2	(2.6)
의료		111	(71.2)	45	(28.8)
운송업		75	(100)	0	(0.0)
가사		0	(0.0)	195	(100)
예술/연예		62	(86.1)	10	(13.9)
어업		46	(92.0)	4	(8.0)
학생		348	(70.4)	146	(29.6)
직업미상		1,229	(82.6)	258	(17.4)
기타		4,315	(80.7)	1,032	(19.3)

※ ()는 구성비 %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단위: %)



-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2.0%(전년도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 마약사범의 경우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무학자(7.3%)와 초졸(20.2%)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향정사범의 경우 고졸(39.5%), 대졸(14.2%), 중졸(11.8%)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고졸(33.7%), 대졸(31.4%), 전문대졸(5.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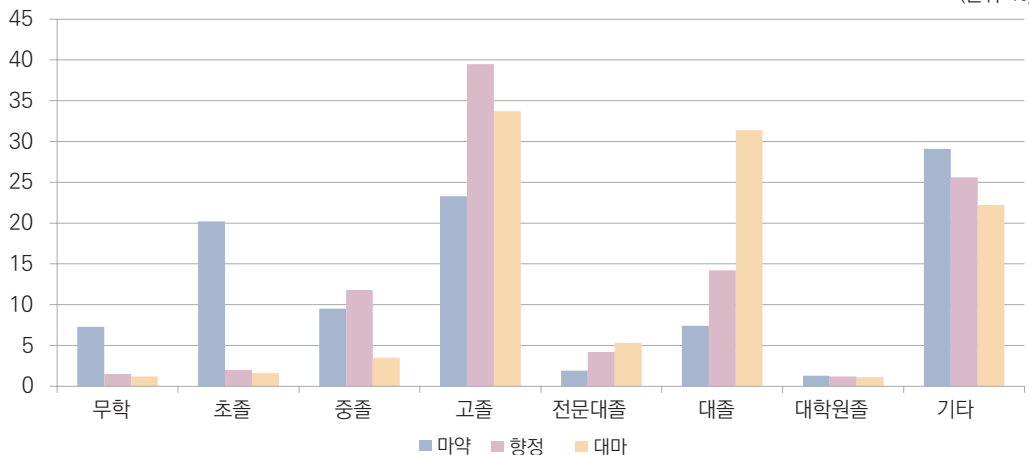
[표 3-43]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학력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7.3	20.2	9.5	23.3	1.9	7.4	1.3	29.1	100
향정	1.5	2.0	11.8	39.5	4.2	14.2	1.2	25.6	100
대마	1.2	1.6	3.5	33.7	5.3	31.4	1.1	22.2	100
합계	2.0	3.7	9.7	36.7	4.2	17.5	1.2	25.1	100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14

범죄원인별 현황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0.8%), 유혹(15.3%), 호기심(12.2%) 순이며, 그 중 중독과 유혹이 36.1%를 차지함
- ▶ 단순 투약자 등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며,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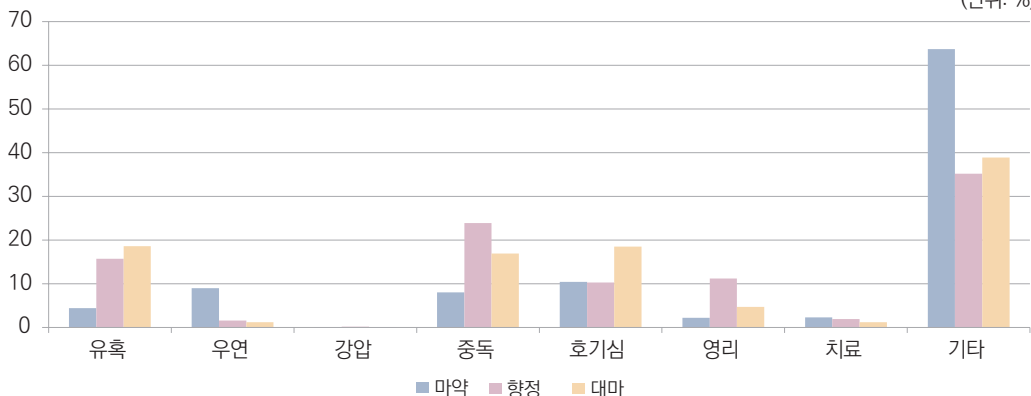
[표 3-4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원인별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4.4	9.0	0.1	8.0	10.4	2.2	2.3	63.7	100
향정	15.7	1.6	0.2	23.9	10.3	11.2	1.9	35.2	100
대마	18.6	1.2	0.1	16.9	18.5	4.7	1.2	38.9	100
합계	15.3	2.2	0.2	20.8	12.2	8.8	1.8	38.7	10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표 3-45]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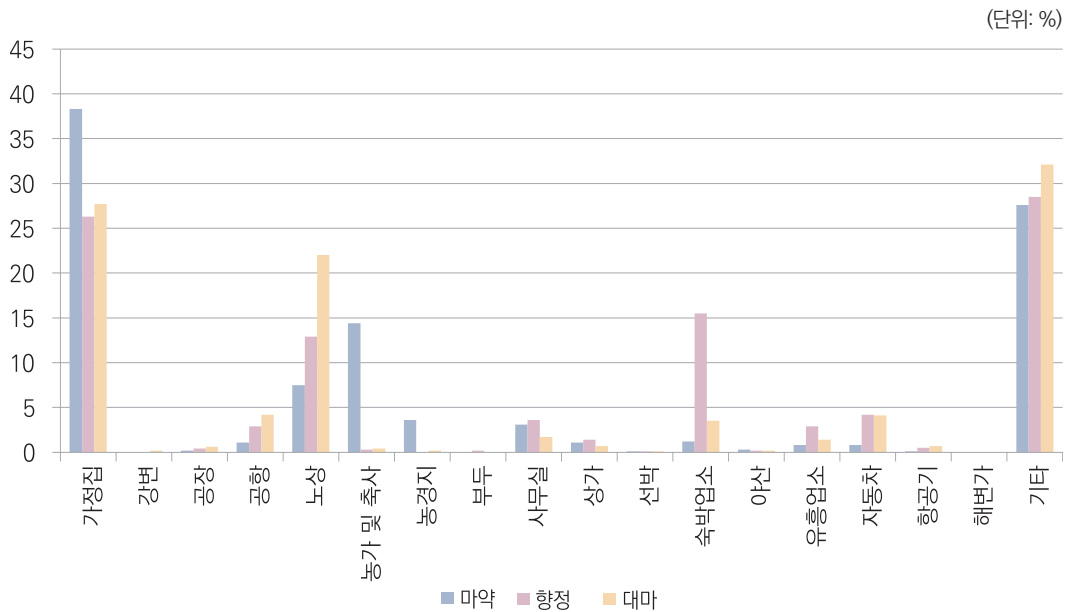
범행장소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38.3	26.3	27.7	27.8
강변		0.0	0.0	0.2	0.1
공장		0.2	0.4	0.6	0.4
공항		1.1	2.9	4.2	3.1
노상		7.5	12.9	22.0	14.5
농가 및 축사		14.4	0.3	0.4	1.7
농경지		3.6	0.0	0.2	0.4
부두		0.0	0.2	0.0	0.1
사무실		3.1	3.6	1.7	3.1
상가		1.1	1.4	0.7	1.2
선박		0.1	0.1	0.1	0.1
숙박업소		1.2	15.5	3.5	11.4
야산		0.3	0.2	0.2	0.2
유흥업소		0.8	2.9	1.4	2.3
자동차		0.8	4.2	4.1	3.9
항공기		0.1	0.5	0.7	0.5
해변가		0.0	0.0	0.0	0.0
기타		27.6	28.5	32.1	29.3
합계		100	100	100	100

▶ 범행은 가정집(27.8%), 노상(14.5%), 숙박업소(11.4%)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로 살펴보면,

- 마약사범은 가정집(38.3%), 농가·축사(14.4%)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를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 중 투약 장소는 가정집(26.3%), 숙박업소(15.5%) 등 비교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12.9%)이 많음
- 대마사범은 가정집(27.7%), 노상(22.0%) 순으로 이는 대마 흡연이 용이하기 때문임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표 3-46]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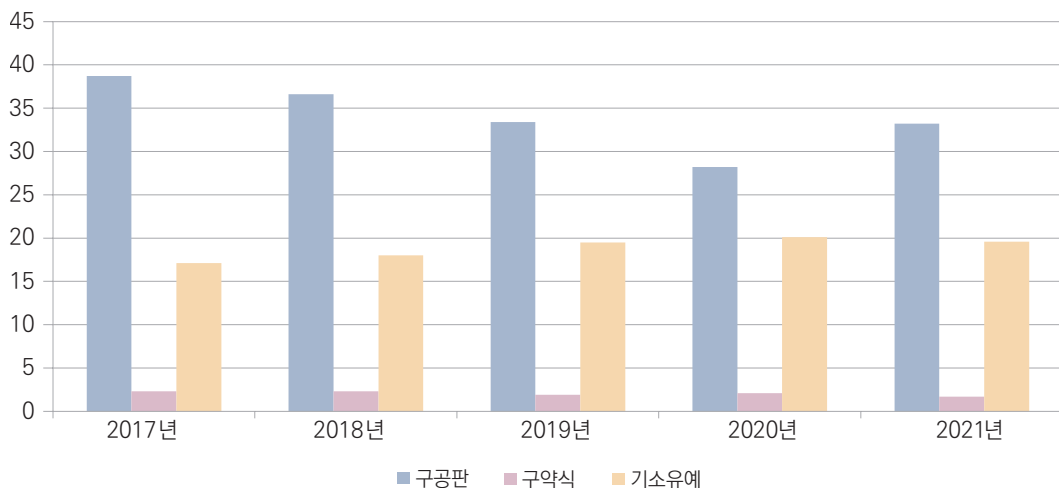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7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	208	808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	(1.4)	(5.3)
2018	13,483	4,929	308	2,430	764	1,419	11	2,714	-	218	690
	(100)	(36.6)	(2.3)	(18.0)	(5.7)	(10.5)	(0.1)	(20.1)	-	(1.6)	(5.1)
2019	16,829	5,619	321	3,278	864	1,490	10	3,716	-	398	1,133
	(100)	(33.4)	(1.9)	(19.5)	(5.1)	(8.9)	(0.1)	(22.1)	-	(2.4)	(6.7)
2020	19,277	5,429	400	3,873	1,214	1,465	13	4,093	-	298	2,492
	(100)	(28.2)	(2.1)	(20.1)	(6.3)	(7.6)	(0.1)	(21.2)	-	(1.5)	(12.9)
2021	18,695	6,205	315	3,668	672	584	26	3,861	1,844	123	1,397
	(100)	(33.2)	(1.7)	(19.6)	(3.6)	(3.1)	(0.1)	(20.7)	(9.9)	(0.7)	(7.5)

※ ()는 구성비 %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7] 마약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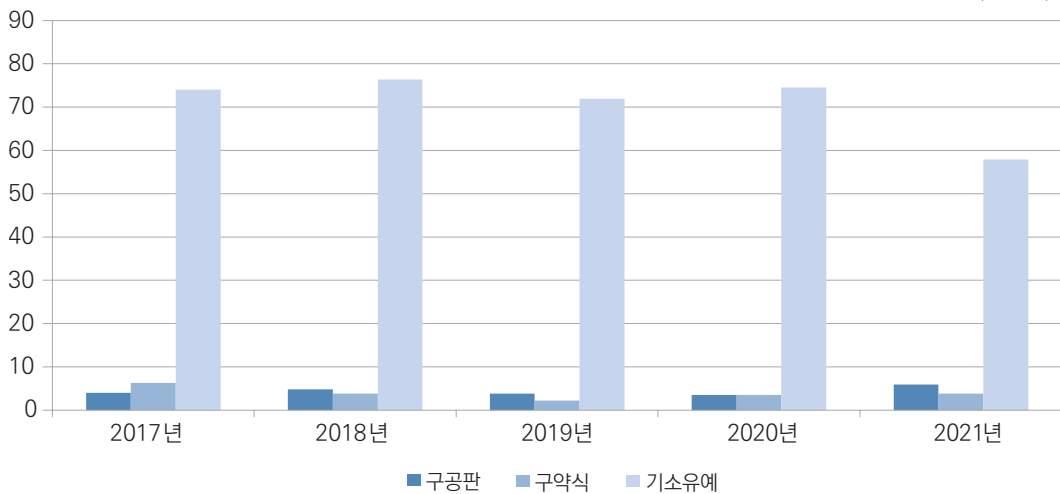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7	1,479	60	93	1,094	29	90	0	48	-	44	21
	(100)	(4.0)	(6.3)	(74.0)	(2.0)	(6.1)	(0.0)	(3.2)	-	(3.0)	(1.4)
2018	1,452	70	55	1,109	22	94	0	55	-	30	17
	(100)	(4.8)	(3.8)	(76.4)	(1.5)	(6.5)	(0.0)	(3.8)	-	(2.1)	(1.2)
2019	1,745	67	38	1,255	27	91	0	119	-	88	60
	(100)	(3.8)	(2.2)	(71.9)	(1.5)	(5.2)	(0.0)	(6.8)	-	(5.0)	(3.4)
2020	2,178	77	77	1,623	34	93	0	167	-	49	58
	(100)	(3.5)	(3.5)	(74.5)	(1.6)	(4.3)	(0.0)	(7.7)	-	(2.2)	(2.7)
2021	1,702	101	64	985	90	46	4	178	142	5	87
	(100)	(5.9)	(3.8)	(57.9)	(5.3)	(2.7)	(0.2)	(10.5)	(8.3)	(0.3)	(5.1)

※ ()는 구성비 %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8] 행정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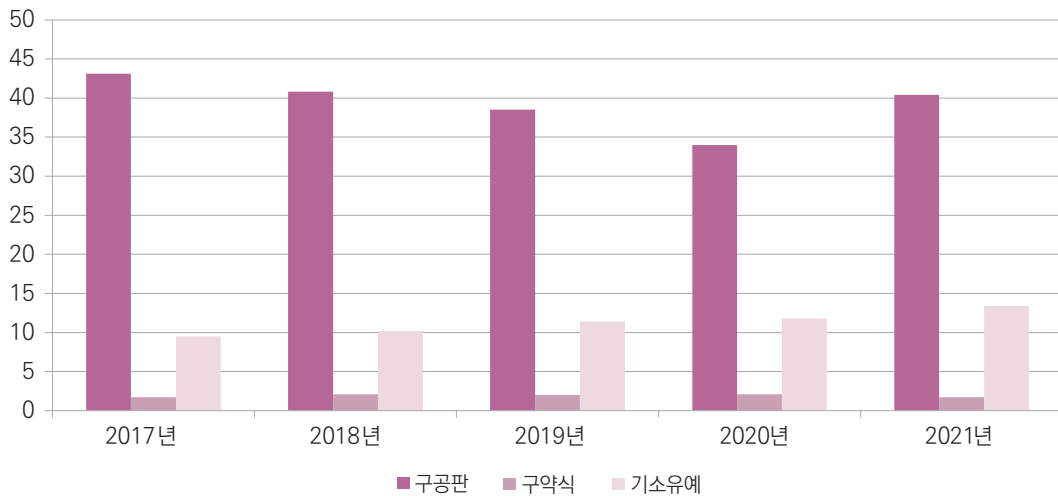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7	11,919	5,141	200	1,135	742	1,358	6	2,525	-	146	666
	(100)	(43.1)	(1.7)	(9.5)	(6.2)	(11.4)	(0.1)	(21.2)	-	(1.2)	(5.6)
2018	10,454	4,262	221	1,063	650	1,167	10	2,353	-	166	562
	(100)	(40.8)	(2.1)	(10.2)	(6.2)	(11.2)	(0.1)	(22.5)	-	(1.6)	(5.4)
2019	12,396	4,774	246	1,408	712	1,202	6	2,975	-	280	793
	(100)	(38.5)	(2.0)	(11.4)	(5.7)	(9.7)	(0.0)	(24.0)	-	(2.3)	(6.4)
2020	13,704	4,653	291	1,614	884	1,153	13	3,058	-	211	1,827
	(100)	(34.0)	(2.1)	(11.8)	(6.5)	(8.4)	(0.1)	(22.3)	-	(1.5)	(13.3)
2021	12,761	5,158	219	1,709	388	441	18	2,579	1,223	101	925
	(100)	(40.4)	(1.7)	(13.4)	(3.0)	(3.5)	(0.1)	(20.2)	(9.6)	(0.8)	(7.2)

※ ()는 구성비 %

[그림 3-31] 행정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9] 대마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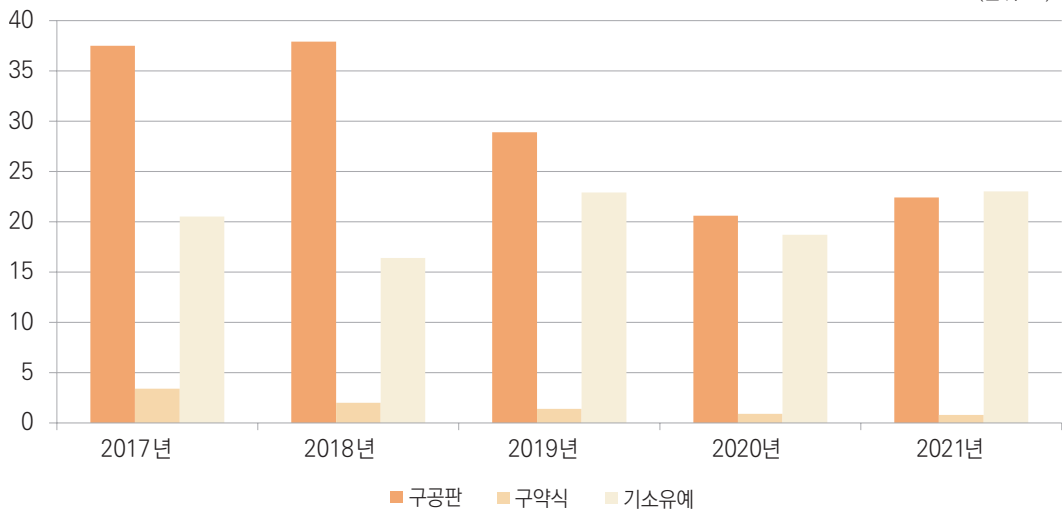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7	1,821	682	61	374	70	159	0	336	-	18	121
	(100)	(37.5)	(3.4)	(20.5)	(3.8)	(8.7)	(0.0)	(18.5)	-	(1.0)	(6.6)
2018	1,577	597	32	258	92	158	1	306	-	22	111
	(100)	(37.9)	(2.0)	(16.4)	(5.8)	(10.0)	(0.1)	(19.4)	-	(1.4)	(7.0)
2019	2,688	778	37	615	125	197	4	622	-	30	280
	(100)	(28.9)	(1.4)	(22.9)	(4.7)	(7.3)	(0.1)	(23.1)	-	(1.1)	(10.4)
2020	3,395	699	32	636	296	219	0	868	-	38	607
	(100)	(20.6)	(0.9)	(18.7)	(8.7)	(6.5)	(0.0)	(25.6)	-	(1.1)	(17.9)
2021	4,232	946	32	974	194	97	4	1,104	479	17	385
	(100)	(22.4)	(0.8)	(23.0)	(4.6)	(2.3)	(0.1)	(26.1)	(11.3)	(0.4)	(9.1)

※ ()는 구성비 %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2%로 일반 형사사범(13.0%) 보다 높게 나타남
 -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1.7%로 일반 형사사범(25.8%) 보다 낮은 편이나, 기소유예율은 19.6%로 일반 형사사범(13.3%) 보다 높게 나타남
 - ▶ 2021년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이 40.4%, 대마사범이 22.4% 이나, 마약사범은 5.9%에 불과함.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57.9%)을 하고 있기 때문임

17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표 3-50]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재판결과 구분		합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¹⁶
합 계	2019	4,199	138	1,723	571	1,411	191	24	16	0	125
		(100)	(3.3)	(41.0)	(13.6)	(33.6)	(4.5)	(0.6)	(0.4)	(0.0)	(3.0)
	2020	3,830	140	1,642	414	1,237	245	31	5	0	116
		(100)	(3.7)	(42.9)	(10.8)	(32.3)	(6.4)	(0.8)	(0.1)	(0.0)	(3.0)
	2021	4,747	205	2,089	463	1,410	351	32	20	0	177
		(100)	(4.3)	(44.0)	(9.8)	(29.7)	(7.4)	(0.7)	(0.4)	(0.0)	(3.7)
마 약	2019	53	2	27	2	5	12	1	0	0	4
		(100)	(3.8)	(50.9)	(3.8)	(9.4)	(22.6)	(1.9)	(0.0)	(0.0)	(7.5)
	2020	50	2	23	1	5	13	2	0	0	4
		(100)	(4.0)	(46.0)	(2.0)	(10.0)	(26.0)	(4.0)	(0.0)	(0.0)	(8.0)
	2021	69	10	34	0	8	14	0	0	0	3
		(100)	(14.5)	(49.3)	(0.0)	(11.6)	(20.3)	(0.0)	(0.0)	(0.0)	(4.3)
향 정	2019	3,542	101	1,275	532	1,326	154	22	16	0	116
		(100)	(2.9)	(36.0)	(15.0)	(37.4)	(4.3)	(0.6)	(0.5)	(0.0)	(3.3)
	2020	3,237	103	1,248	382	1,163	205	29	5	0	102
		(100)	(3.2)	(38.6)	(11.8)	(35.9)	(6.3)	(0.9)	(0.2)	(0.0)	(3.2)
	2021	3,986	173	1,575	417	1,306	306	30	20	0	159
		(100)	(4.3)	(39.5)	(10.5)	(32.8)	(7.7)	(0.8)	(0.5)	(0.0)	(4.0)
대 마	2019	604	35	421	37	80	25	1	0	0	5
		(100)	(5.8)	(69.7)	(6.1)	(13.2)	(4.1)	(0.2)	(0.0)	(0.0)	(0.8)
	2020	543	35	371	31	69	27	0	0	0	10
		(100)	(6.4)	(68.3)	(5.7)	(12.7)	(5.0)	(0.0)	(0.0)	(0.0)	(1.8)
	2021	692	22	480	46	96	31	2	0	0	15
		(100)	(3.2)	(69.4)	(6.6)	(13.9)	(4.5)	(0.3)	(0.0)	(0.0)	(2.2)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¹⁶ 무죄선고,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소년부송치, 구류·과료 등

- 2021년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47.9%), 집행유예(44.0%), 벌금(4.3%) 순이며,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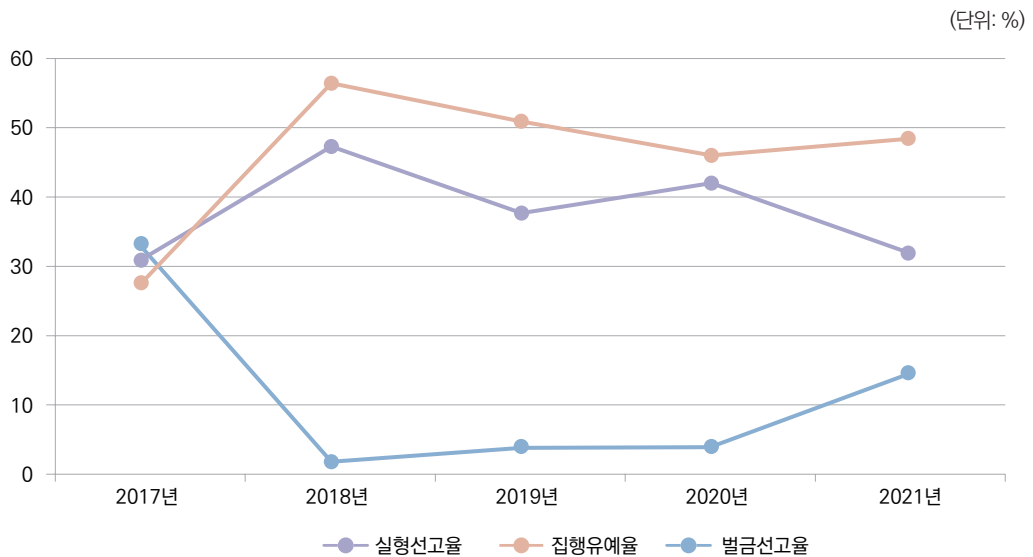
[표 3-51]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7	19	16	3	12	2	1	0	0	5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2018	1	31	0	11	4	0	0	0	8
	(1.8)	(56.4)	(0.0)	(20.0)	(7.3)	(0.0)	(0.0)	(0.0)	(14.5)
2019	2	27	2	5	12	1	0	0	4
	(3.8)	(50.9)	(3.8)	(9.4)	(22.6)	(1.9)	(0.0)	(0.0)	(7.5)
2020	2	23	1	5	13	2	0	0	4
	(4.0)	(46.0)	(2.0)	(10.0)	(26.0)	(4.0)	(0.0)	(0.0)	(8.0)
2021	10	34	0	8	14	0	0	0	3
	(14.5)	(49.3)	(0.0)	(11.6)	(20.3)	(0.0)	(0.0)	(0.0)	(4.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표 3-52]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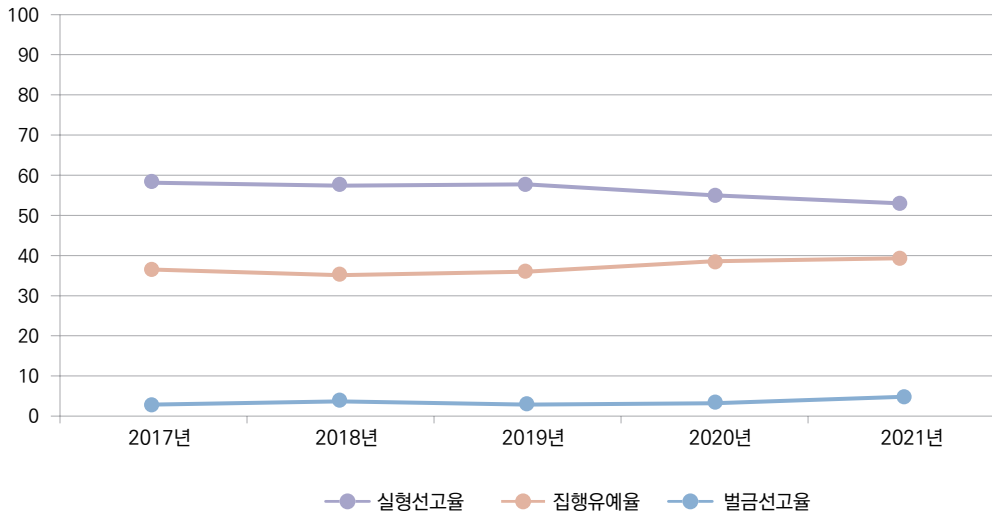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7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2018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28
	(3.7)	(35.1)	(14.4)	(37.2)	(4.3)	(1.1)	(0.4)	(0.0)	(3.8)
2019	101	1,275	532	1,326	154	22	16	0	116
	(2.9)	(36.0)	(15.0)	(37.4)	(4.3)	(0.6)	(0.5)	(0.0)	(3.3)
2020	103	1,248	382	1,163	205	29	5	0	102
	(3.2)	(38.6)	(11.8)	(35.9)	(6.3)	(0.9)	(0.2)	(0.0)	(3.2)
2021	173	1,575	417	1,306	306	30	20	0	159
	(4.3)	(39.5)	(10.5)	(32.8)	(7.7)	(0.8)	(0.5)	(0.0)	(4.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4]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표 3-53]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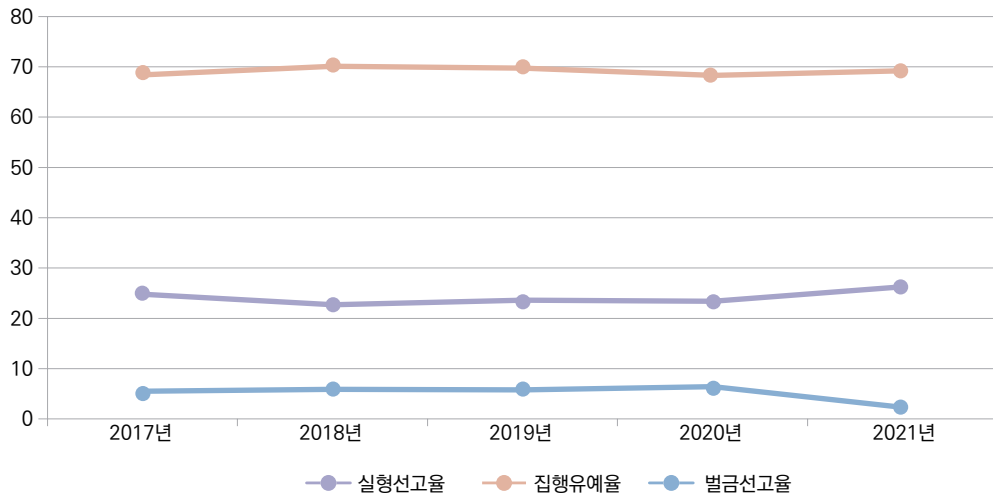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7	30	370	70	51	13	0	0	0	7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2018	31	366	42	44	27	6	0	0	6
	(5.9)	(70.1)	(8.0)	(8.4)	(5.2)	(1.1)	(0.0)	(0.0)	(1.1)
2019	35	421	37	80	25	1	0	0	5
	(5.8)	(69.7)	(6.1)	(13.2)	(4.1)	(0.2)	(0.0)	(0.0)	(0.8)
2020	35	371	31	69	27	0	0	0	10
	(6.4)	(68.3)	(5.7)	(12.7)	(5.0)	(0.0)	(0.0)	(0.0)	(1.8)
2021	22	480	46	96	31	2	0	0	15
	(3.2)	(69.4)	(6.6)	(13.9)	(4.5)	(0.3)	(0.0)	(0.0)	(2.2)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18

실행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54] 마약사범의 실행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7		47 (48.9)	35 (36.5)	4 (4.2)	10 (10.4)	96 (100)
2018		23 (29.5)	49 (62.8)	0 (0.0)	6 (7.7)	78 (100)
2019		37 (45.7)	38 (46.9)	1 (1.2)	5 (6.2)	81 (100)
2020		47 (51.1)	41 (44.6)	0 (0.0)	4 (4.3)	92 (100)
2021		36 (49.3)	29 (39.7)	0 (0.0)	8 (11.0)	7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55] 행정사범의 실행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7		2,270 (58.6)	1,413 (36.5)	2 (0.1)	186 (4.8)	3,871 (100)
2018		1,416 (58.4)	901 (37.2)	1 (0.0)	107 (4.4)	2,425 (100)
2019		1,571 (58.7)	989 (36.9)	2 (0.1)	115 (4.3)	2,677 (100)
2020		1,219 (56.9)	840 (39.2)	0 (0.0)	83 (3.9)	2,143 (100)
2021		1,296 (54.8)	945 (40.0)	4 (0.2)	119 (5.0)	2,36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56] 대마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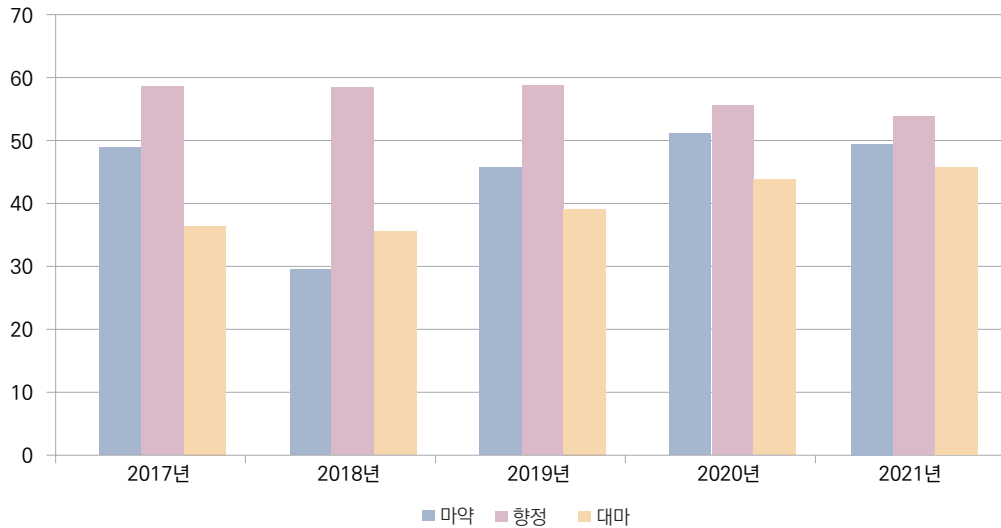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7	316 (36.4)	510 (58.7)	1 (0.1)	42 (4.8)	869 (100)
2018	214 (35.5)	362 (60.1)	0 (0.0)	26 (4.3)	602 (100)
2019	283 (39.1)	416 (57.5)	0 (0.0)	24 (3.3)	723 (100)
2020	254 (43.8)	293 (50.5)	0 (0.0)	33 (5.7)	580 (100)
2021	306 (45.0)	349 (51.3)	0 (0.0)	25 (3.7)	68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단위: %)



19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57]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7		0 (0.0)	11 (12.1)	23 (25.3)	32 (35.1)	25 (27.5)	1,298,901
2018		0 (0.0)	11 (20.0)	14 (25.5)	20 (36.4)	10 (18.2)	1,121,818
2019		0 (0.0)	1 (2.7)	6 (16.2)	20 (54.1)	10 (27.0)	1,651,351
2020		0 (0.0)	7 (9.7)	21 (29.2)	36 (50.0)	8 (11.1)	938,889
2021		0 (0.0)	1 (1.6)	12 (19.7)	39 (63.9)	9 (14.8)	1,204,91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표 3-58]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7		0 (0.0)	0 (0.0)	10 (5.6)	19 (10.6)	150 (83.8)	5,582,584
2018		1 (0.7)	0 (0.0)	10 (6.9)	24 (16.6)	110 (75.9)	5,267,143
2019		0 (0.0)	0 (0.0)	13 (7.5)	33 (19.1)	127 (73.4)	5,530,920
2020		0 (0.0)	3 (1.5)	7 (3.5)	49 (24.3)	143 (70.8)	4,604,975
2021		0 (0.0)	1 (0.8)	7 (5.4)	26 (20.2)	95 (73.6)	4,120,313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표 3-59]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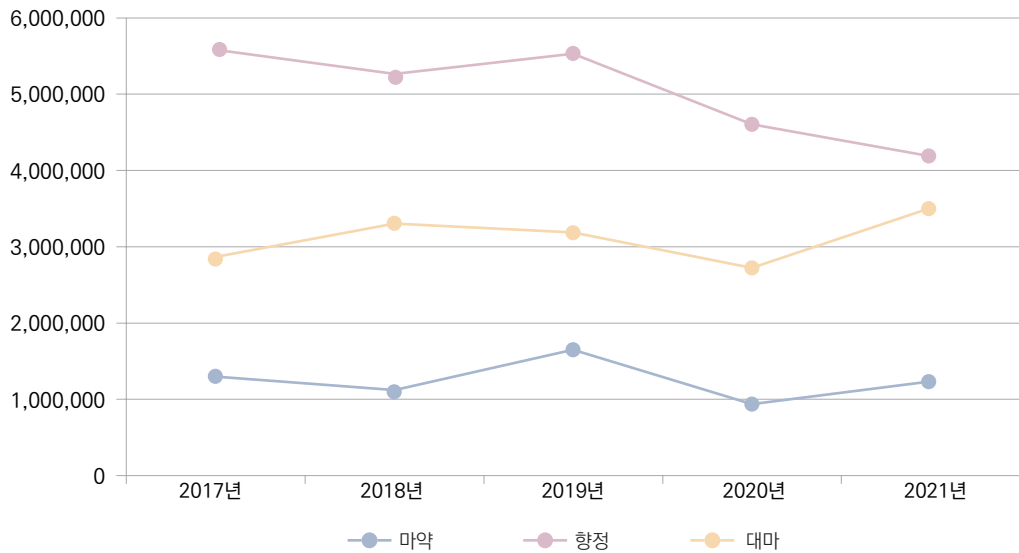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7		0 (0.0)	0 (0.0)	4 (6.6)	5 (8.2)	52 (85.2)	2,868,852
2018		0 (0.0)	0 (0.0)	1 (3.6)	0 (0.0)	27 (96.4)	3,303,571
2019		0 (0.0)	0 (0.0)	1 (3.4)	5 (17.2)	23 (79.3)	3,189,655
2020		0 (0.0)	0 (0.0)	1 (3.6)	7 (25.0)	20 (71.4)	2,721,429
2021		0 (0.0)	0 (0.0)	1 (4.3)	3 (13.0)	19 (82.6)	3,804,34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20

실행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표 3-60] 마약류별 실행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7	19.7	28.6	18.2	28.3	21.7	31.5
2018	36.8	32.3	19.1	28.9	22.3	29.7
2019	22.2	30.9	19.8	27.4	43.7	33.5
2020	24.1	27.3	23.9	28.0	35.9	26.6
2021	27.1	28.6	24.0	27.9	29.0	35.2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 2021년도 마약 및 향정사범의 실행 형기는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대마사범의 실행 형기는 감소하였음

[표 3-61]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3 (8.6)	20 (57.1)	8 (22.9)	4 (11.4)	35 (100)
2018	0 (0.0)	28 (57.1)	21 (42.9)	0 (0.0)	49 (100)
2019	1 (2.6)	17 (44.7)	17 (44.7)	3 (7.9)	38 (100)
2020	0 (0.0)	34 (82.9)	7 (17.1)	0 (0.0)	41 (100)
2021	0 (0.0)	12 (41.4)	14 (48.3)	3 (10.3)	2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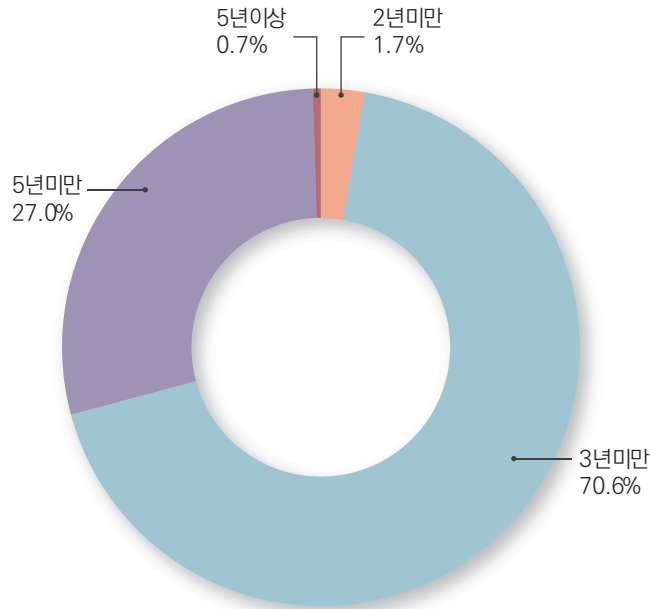
[표 3-62]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32 (2.3)	988 (69.8)	354 (25.1)	39 (2.8)	1,413 (100)
2018	11 (1.2)	633 (64.1)	223 (24.9)	30 (3.3)	897 (100)
2019	27 (2.7)	729 (73.7)	209 (21.1)	24 (2.4)	989 (100)
2020	23 (2.7)	571 (68.1)	241 (28.7)	4 (0.5)	839 (100)
2021	16 (1.7)	667 (70.6)	255 (27.0)	7 (0.7)	94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8]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표 3-63]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23 (4.5)	332 (65.1)	139 (27.3)	16 (3.1)	510 (100)
2018	10 (2.8)	227 (62.7)	113 (31.2)	12 (3.3)	362 (100)
2019	10 (2.4)	229 (55.0)	160 (38.5)	17 (4.1)	416 (100)
2020	4 (1.4)	218 (74.4)	69 (23.5)	2 (0.7)	293 (100)
2021	5 (1.4)	240 (68.8)	97 (27.8)	7 (2.0)	34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64] 마약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12 (25.5)	17 (36.2)	13 (27.6)	3 (6.4)	2 (4.3)	47 (100)
2018	3 (13.0)	9 (39.1)	4 (17.4)	3 (13.0)	4 (17.4)	23 (100)
2019	7 (18.9)	8 (21.6)	10 (27.0)	5 (13.5)	7 (18.9)	37 (100)
2020	6 (12.8)	12 (25.5)	10 (21.3)	14 (29.8)	5 (10.6)	47 (100)
2021	3 (8.3)	8 (22.2)	17 (47.2)	3 (8.3)	5 (13.9)	3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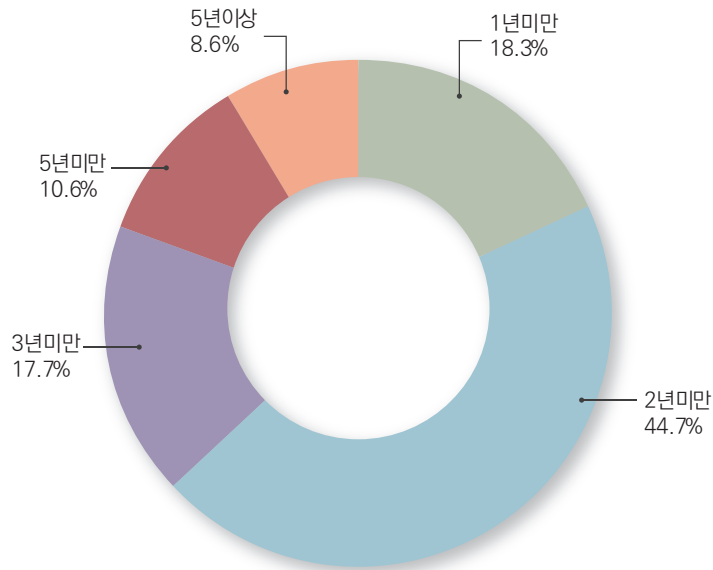
[표 3-65] 향정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590 (25.9)	1,173 (51.7)	280 (12.4)	171 (7.5)	56 (2.5)	2,270 (100)
2018	343 (24.3)	772 (54.8)	155 (11.0)	71 (5.0)	68 (4.8)	1,409 (100)
2019	377 (24.0)	805 (51.2)	212 (13.5)	110 (7.0)	67 (4.3)	1,571 (100)
2020	233 (19.1)	595 (48.8)	193 (15.8)	116 (9.5)	82 (6.7)	1,219 (100)
2021	237 (18.3)	579 (44.7)	230 (17.7)	138 (10.6)	112 (8.6)	1,29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9] 행정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표 3-66] 대마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7	85 (26.9)	127 (40.2)	64 (20.3)	31 (9.8)	9 (2.8)	316 (100)
2018	48 (22.4)	104 (48.6)	19 (8.9)	27 (12.6)	16 (7.5)	214 (100)
2019	49 (17.3)	123 (43.5)	64 (22.6)	37 (13.1)	10 (3.5)	283 (100)
2020	28 (11.0)	110 (43.3)	58 (22.8)	47 (18.5)	11 (4.3)	254 (100)
2021	40 (13.1)	120 (39.2)	73 (23.9)	46 (15.0)	27 (8.8)	30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67] 연도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사범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재범인원	5,131	4,622	5,710	5,933	5,916
재범률(%)	36.3	36.6	35.6	32.9	36.6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6.6%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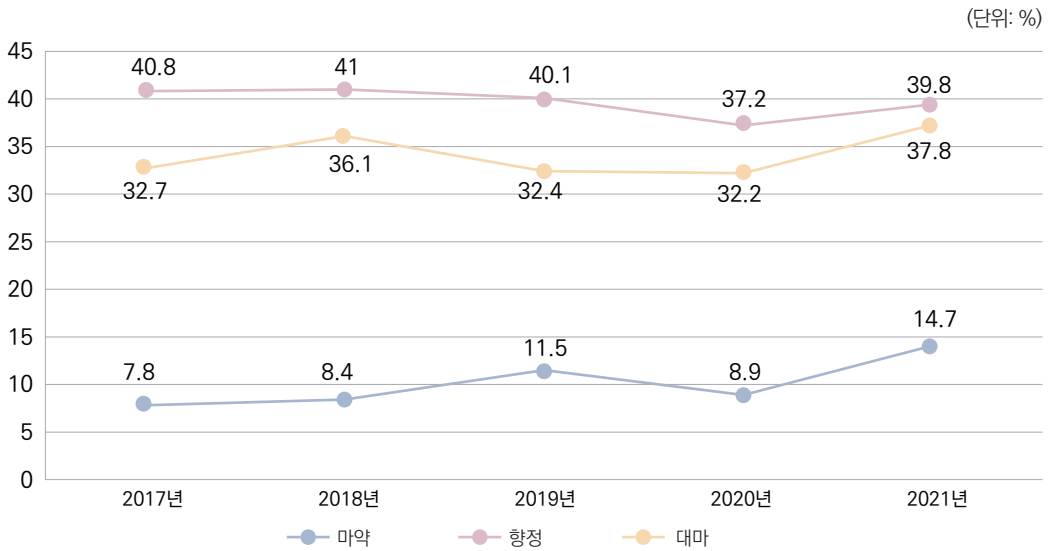
[표 3-68]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475	10,921	1,727	1,467	9,613	1,533	1,804	11,611	2,629	2,198	12,640	3,212	1,745	10,631	3,777
재범인원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196	4,704	1,033	256	4,233	1,427
재범률(%)	7.8	40.8	32.7	8.4	41.0	36.1	11.5	40.1	32.4	8.9	37.2	32.2	14.7	39.8	37.8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이며, 2021년도 향정사범 재범률은 39.8%로 여전히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보다 높음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69]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196	4,704	1,033	256	4,233	1,427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47	3,711	372	58	3,291	342	95	3,832	592	99	3,840	728	149	3,402	1,066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58	106	85	51	104	73	78	137	125	79	145	128	65	143	135
복합전과 인원	10	634	108	14	551	138	34	683	134	18	719	177	42	688	226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21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5,916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617명으로 78.0%, 이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343명으로 5.8%, 복합 전력자는 956명으로 16.2%를 각각 차지함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¹⁷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치료감호¹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0호)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21년도 치료보호 인원은 총 280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95.8% 증가함

▶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의뢰자는 1명으로 전년(9명) 대비 88.9% 감소함

[표 3-70]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30	267	260	143	280
입원	자의	108	87	89	48	90
	검찰의뢰	3	2	2	1	-
	기타의뢰	-	-	-	-	-
외래	자의	209	175	153	86	189
	검찰의뢰	10	3	16	8	1
	기타의뢰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¹⁷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 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음

¹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은 1,187명으로 전년(897명) 대비 32.3% 증가함

▶ 이는 검찰에서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해 처벌 위주 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한 결과임

[표 3-7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원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22	470	800	897	1,187	6,423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2021년도 치료감호 인원은 총 18명으로, 전년(13명) 대비 38.5% 증가함

[표 3-72] 치료감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6	29	30	13	18
마약	0	0	0	0	0
향정	16	29	30	13	18
대마	0	0	0	0	0

자료: 치료감호소 감호과, 입소자 기준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¹⁹

[표 3-73]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9개 의료기관	292	330	267	260	143	280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2	2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4	4	3	1
	강남을지병원		206	136	해제	해제	해제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참사랑병원	8	29	26	126	71	164
대전	참다남병원	4				2	2
대구	대구의료원	2	2	1	1		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4	1	5	2	1
울산	큰빛병원		1		해제	해제	해제
	마더스병원	84		35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2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					
	용인정신병원	10	1		1	1	
	계요병원	10	3	1	9	7	2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충북	청주의료원	2		1		1	
충남	국립공주병원	2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81	62	110	54	107
	양산병원	2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1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21 기준)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¹⁹ 2021년도 기준, 충남 국립공주병원은 병상수(10개→2개) 감소가 있어 19개 의료기관, 병상수 292개임

25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가. 개요

- ▶ 마약류 투약사범이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마약류 투약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나.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표 3-74]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연도별 유형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자살		강·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7	1	1	2	2	1	1	0	0	1	1	7	7	12	12
2018	0	0	1	1	0	0	4	4	0	0	5	5	10	10
2019	0	0	2	2	0	0	2	2	1	1	4	6	9	11
2020	1	1	2	2	0	0	1	1	2	2	3	3	9	9
2021	2	2	0	0	0	0	0	0	2	3	4	4	8	9
합계	4	4	7	7	1	1	7	7	6	7	23	25	48	51

다. 대표적 사례

살인 사건

- ▶ 2001. 3.경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중독 증세를 보이던 피의자(23세, 공익근무요원)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와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하다 칼로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01. 8.경 서산시 부석면 야산에서 피의자 3명(28세~30세 남자 3명)이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곡괭이로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 2001. 9.경 서산시 석림동 주택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 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 2002. 1.경 서울 강북구 OO동 여관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윤락녀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줄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 2004. 11.경 부산 연제구 OO동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필로폰 24g에 대한 가격 흥정 중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 2005. 6.경 서울 노원구 OO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던 피해자 2명의 어깨와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한 다음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함 (서울북부지검)
- ▶ 2006.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여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피의자(30세, 무직)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 2013. 2.경 피의자(50세, 무직)가 자신의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을 하자 형에게 필로폰을 알게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14. 6.경 피의자(34세, 중고차 매매)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금니 1개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 전체를 벗겨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살인미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 2015. 2.경 노래방 업주인 피의자(41세, 상업)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2명(노래방 여자종업원)이 동성애 관계라고 트집 잡아 덤벨, 금속봉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그 중 1명을 살해 (천안지청)
- ▶ 2016. 8.경 LSD를 투약한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피의자의 이모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 (대전지검)
- ▶ 2016. 12.경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칼로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 (대구지검)
- ▶ 2017. 4.경 피의자(5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양팔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 (대구지검)
- ▶ 2019. 12.경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8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중학교 동창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인천지검)

- 2021. 3.경 피의자(47세, 일용직)가 MDA(일명 ‘몰리’) 투약 후 함께 여행 중이던 모친의 얼굴을 수회 밟아 사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친의 얼굴을 수회 밟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대구지검)
- 2021. 7.경 피의자(38세, 무직)는 주거지에서 회칼로 친모를 협박하고, 같은 해 8.경 위 주거지에서 친부의 목을 베어 살인(피의자 필로폰 투약 사실 진술 거부하나 모발 감정, 계좌 내역을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 확인, 살해 동기는 필로폰 대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정) (안산지청)

자살·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3.경 대구시 OO구 주택에서 51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8.경 대구 북구 OO동 여관에서 37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경 부산 동래구 OO동 모텔에서 36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기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2012. 10.경 부산 서구 OO동 모텔에서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2013. 1.경 58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절취, 사용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직후 자살 (부산지검)
-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OO의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부천시청)
- 2014.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으로 난입하여, “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다. 두목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며 40여 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울산지검)

- ▶ 2015. 3.경 안산 단원구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성형외과의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안산지청)
- ▶ 2015. 6.경 경기 동두천시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4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및 디아제팜 과다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58세 남성(사업가)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사망. 위 남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40g, 아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 발견 (서울서부지검)
- ▶ 2016. 2.경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49세 남성(마약 전과 11회)이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 (부산지검)
- ▶ 2017. 1.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57세 남성과 49세 여성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여성이 과다 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 2017. 7.경 경상남도 거제시 OO의원 원장(57세, 의사)이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약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시키던 중, 피해자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자 통영시 앞바다에 시신 유기 (통영지청)
- ▶ 2018. 1.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30대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 2019. 4.경 서울 강남구 OO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43세,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시키고 골프를 치러간 사이, 동거녀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 2019. 8.경 수원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22세, 태국인,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수감)가 필로폰 다량 투약으로 사망 (수원지검)

- 2020. 6.경 마약류 전력 4회 있고 평소 우울증이 있는 남성(46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무에 목을 매 자살 (부산지검)
- 2020. 8.경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여성(29세, 무직)이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강·절도 등 사건

- 2001. 5.경 피의자들(27~28세 남자 2명, 무직)이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OO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폐치딘 10앰플을, 2002. 2.경 OO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폐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2001. 7.~12.경 안산시 OO동 병원에서 피의자(28세,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폐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2016. 10.경 절도를 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급 시계 등을 절취 (서울중앙지검)
- 2016. 12.경 절도 범행에 착수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다음 커피숍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취 (수원지검)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를 몰고 도주 (인천지검)

인질극, 난동 등 사건

- 2001. 3.경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피의자(34세, 노동)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 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 가량 대치하던 중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 2001. 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의자들(25세 및 30세, 각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검찰 수사차량 및 경찰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의자 1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울산지검)
- ▶ 2001. 6.경 군산시 자택에서 피의자(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군산지청)
- ▶ 2001. 9.경 서울 관악구 OO동 여관에서 피의자(4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서울남부지청)
- ▶ 2002. 1.경 대전 중구 여관에서 피의자(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들과 2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치하며 난동(대전지검)
- ▶ 200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에 자수한 피의자(29세, 무직)가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하던 중, 형사와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인천지검)
- ▶ 2002. 1.경 피의자(36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OO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을 죽여 버리겠다고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서울서부지청)
- ▶ 200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29세, 운전기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게 하고, 이어서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대구지검)

-
- 2006. 11.경 대구 동구 OO아파트에서 피의자(50세, 무직)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수 의사를 밝힌 후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배 부위를 과도로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이웃 할머니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2012. 10.경 부산 연제구 OO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흥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2013. 2.경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 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가 볼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난동 (대구지검)
 - 2013. 7.경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의자 (30세, 요리사)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후 환각상태에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2013. 9.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피의자(47세, 무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동거녀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는 등 난동 (광주지검)
 - 2014. 9.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창원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43세, 무직)가 교도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여 자해 (마산지청)
 - 2015. 4.경 피의자(49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김천지청을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난동 (김천지청)
 - 2015. 5.경 피의자(47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 (대구지검)

- ▶ 2015. 12.경 필로폰 환각상태의 피의자(40세, 무직)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 후 복용할 수 있도록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항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의 목에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환자와 피의자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인천지검)
- ▶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리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 (경주지청)
- ▶ 2018. 1.경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객실 창문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투신 소동 (부산지검)
- ▶ 2018. 2.경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냉장고 등 호텔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 (전주지검)
- ▶ 2018. 6.경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을 부수고, 모텔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 2018. 12.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 ▶ 2019. 6.경 의정부시 OO아파트 13층 난간에서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 있는 피의자(50세, 마약범죄 전력 6회)가 나체로 베란다 난간 실외기에 걸터앉아 자살 소동 (의정부지검)

-
- 2020. 7.경 ~ 12.경 북한이탈주민인 피의자(35세, 노동)가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효자손, 식칼 등으로 마구 때려 폭행·상해 등 난동, 동거녀 자녀에 대해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사타구니에 휴지를 끼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 (인천지검)

수사관 살해·상해 사건

- 1997. 9.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7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 상해 (인천지검)
- 1998. 1.경 대마 밀매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1998.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 상해 (부산지검)
- 1998. 10.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5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 (중)상해 (의정부지청)
- 1999. 1.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원인 피의자(30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해 (진주지청)
- 2006. 8.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6세, 무직)가 등산용 칼로 검찰수사관의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 (성남지청)
- 2014.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누범기간 중인 필로폰 소지혐의 피의자(52세, 무직)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 (대전지검)
- 2015. 1.경 피의자(54세, 회사원)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 경찰관이 검거하려 하자 범퍼로 경찰관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경찰관 2명에게 상해 (수원지검)

- ▶ 2015. 10.경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체포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중 검찰수사관 4명 상해 (의정부지검)
-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수 십 킬로미터를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 상해 (평택지청)
- ▶ 2019. 2. 마약 전과 5회 있는 피의자(45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 운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마약 투약 의심자로 검문을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로 경찰관 3명을 들이받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 (인천지검)
- ▶ 2020. 2.경 필로폰 174g 및 야바 2,011정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약 700m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1명 폭행 (의정부지검)
- ▶ 2020. 6.경 야바 160정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약 300m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1명 폭행 (대구지검)
- ▶ 2021.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2명을 칼로 찔러 상해 (의정부지검)
- ▶ 2021. 2. 말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3. 중순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역과한 후 15m 끌고 가 상해 (전주지검)

기타(상해·협박·강간·주거침입·폭행·운전·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 ▶ 2004. 7.경 필로폰 투약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피의자(37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 유흥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백미러를 부순 후, 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망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10주 상해 (인천지검)

-
- 2004. 11.경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 2명(44세, 46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대구지검)
 - 2005. 6.경 통영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 (통영지청)
 - 2006. 7.경 진주시에서 피의자(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6주 상해,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며 협박 (남원지청)
 - 2006. 9.경 여수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1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에 있는데 너 아니냐.’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상해, 2007. 6.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약 1시간 동안 전치의 목, 이마, 손목, 발목 등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범행중지하여 상해 (순천지청)
 -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
 - 2009. 10.경 서울 중구 OO모텔에서 피의자(37세, 무직)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상해 (서울중앙지검)
 - 2013. 6.경 오산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 ▶ 2014. 12.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좌수 중지열상을 입게 하여 상해 (안양지청)
- ▶ 2015. 1.경 피의자(34세, 기업인)가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주 (서울중앙지검)
- ▶ 2015. 3.경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수배 중인 피의자(43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고 도주 (성남지청)
- ▶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삼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 ▶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 ▶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 ▶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지청)
- ▶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 중앙지검)

-
- 2015.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조직원인 피의자(50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 공급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 (대구지검)
 - 2015. 12.경 인천 남구 OO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2세, 무직)가 환각 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있던 티슈에 불을 질러 방화, 위 모텔 투숙자인 피해자 1명 사망, 4명 상해 (인천지검)
 -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4세, 무직, 마약전력 5회)가 모친이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손가락, 팔 등을 잡아당겨 골절, 타박상 등 상해 (부산동부지청)
 - 2016. 6.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 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유인·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대구지검)
 -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 (청주지검)
 - 2016. 11.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라이트로 수건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우고, 방화 후 객실을 나오던 중 손님과 마주치자 칼을 휘둘러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서울동부지검)
 - 2016. 12.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처에게 흥기를 휘둘러 폭행 (순천지청)
 - 2017. 3.경 일행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모텔에 불을 놓아 다른 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치사 (천안지청)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3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대구 북구 OO아파트 지하 1층 창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환풍기를 손괴 (대구지검)

- ▶ 2017. 4.경 마약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여 질주 (여주시청)
-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급진로 변경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전주시검)
- ▶ 2017. 5.경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흥기를 든 채로 사람들을 위협 (부산동부지청)
- ▶ 2017. 5.경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뒤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 (부산동부지청)
- ▶ 2017.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커터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하고, 부산 소재 00시장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 (부산서부지청)
- ▶ 2018. 3.경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피의자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투약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뒤 도주 (부산지검)
- ▶ 2018.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동거녀가 매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녀를 골프채와 과도로 폭행, 뇌출혈 등으로 상해 (춘천지검)
-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중고등학생 등 승객 수십 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 (춘천지검)
-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터널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여 치상 (속초지청)

-
- 2018. 12.경 전 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 (서울북부지검)
 -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 2019. 5.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5세, 무직)가 대구 수성구 OO호텔 1층 휴게실 로비에서 20리터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호텔 내부 시설 소훼 (대구지검)
 - 2019. 8.경 서울 성북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7세, 약사)가 환각상태에서 라이터로 본인의 집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이후 알몸 상태에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연음란 (서울북부지검)
 - 2020. 9.경 대마 흡연 직후 환각상태에 있는 피의자(45세, 건설업)가 OOO 승용차 운전 중 부산 OOO구 OO역 부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를 연쇄 충돌 후 시속 113km로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부산동부지청)
 - 2020. 9.경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피의자(37세, 회사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OO 등 상선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톡방에 업로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대구지검)
 - 2020.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7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여 질주 (서울북부지검)

- ▶ 2021. 2.경 피의자(41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폭행, 순찰차 손괴,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 (서울북부지검)
- ▶ 2021.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유리물병을 수차례 휘둘러 협박 (수원지검)
- ▶ 2021. 5. ~ 11.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을 시도 (인천지검)
- ▶ 2021. 12.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폭력조직 조직원)가 환각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순찰차 5대를 파손 (울산지검)

제4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1

의의

-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이 향후 마약류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죄동향 분석 필요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범죄유형

-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

대상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

-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② 동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③ 부탄가스
- ④ 아산화질소

4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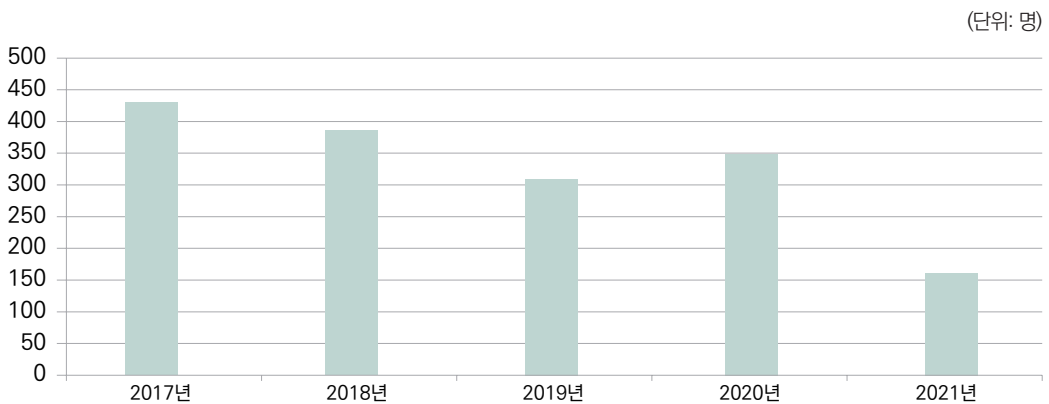
가.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추세

[표 3-75]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단속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인원
2017		301	430
2018		262	386
2019		226	309
2020		185	349
2021		122	161

-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은 2019년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12.9% 증가하여 잠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는 161명으로 전년(349명) 대비 53.9% 감소
- ▶ 최근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함

[그림 3-41]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나. 기관별 현황

[표 3-76] 기관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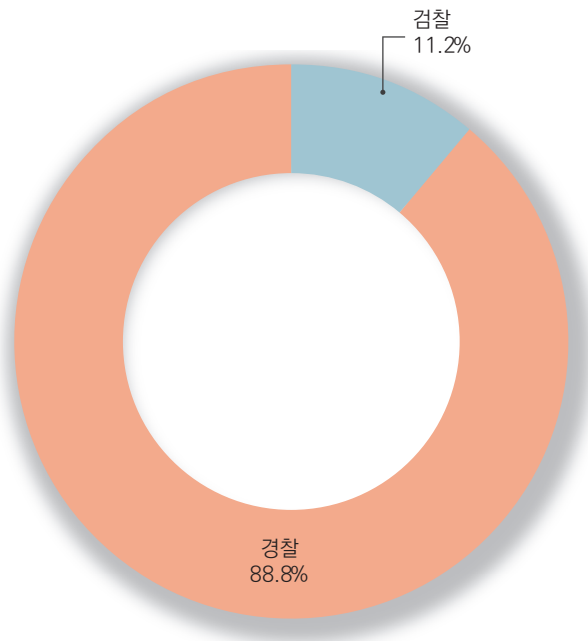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2017	36	394	430
	(8.4)	(91.6)	(100)
2018	61	325	386
	(15.8)	(84.2)	(100)
2019	64	245	309
	(20.7)	(79.3)	(100)
2020	51	298	349
	(14.6)	(85.4)	(100)
2021	18	143	161
	(11.2)	(88.8)	(100)

※ ()는 구성비 %

➤ 2021년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11.2%, 경찰 88.8%를 각각 차지함

[그림 3-42]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다. 지역별 현황

[표 3-77]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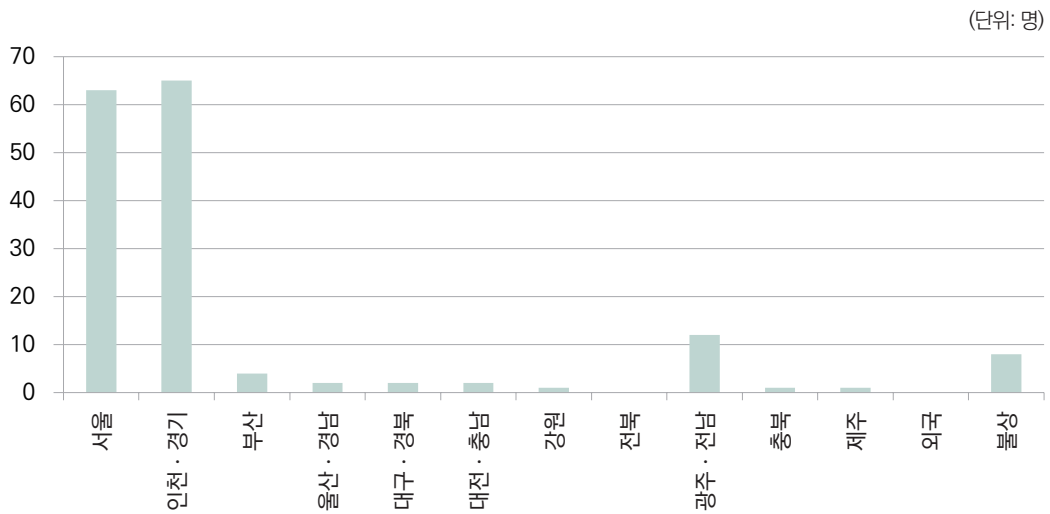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9	2020	2021
합계	309 (100)	349 (100)	161 (100)
서울	91 (29.4)	139 (39.8)	63 (39.1)
인천·경기	123 (39.8)	131 (37.5)	65 (40.4)
부산	6 (1.9)	16 (4.6)	4 (2.5)
울산·경남	16 (5.2)	6 (1.7)	2 (1.2)
대구·경북	10 (3.2)	9 (2.6)	2 (1.2)
대전·충남	12 (3.9)	6 (1.7)	2 (1.2)
강원	7 (2.3)	6 (1.7)	1 (0.6)
전북	8 (2.6)	2 (0.6)	0 (0.0)
광주·전남	17 (5.5)	14 (4.0)	12 (7.5)
충북	3 (1.0)	3 (0.9)	1 (0.6)
제주	5 (1.6)	1 (0.3)	1 (0.6)
외국	0 (0.0)	0 (0.0)	0 (0.0)
불상	11 (3.6)	16 (4.6)	8 (5.0)

※ ()는 구성비 %

- 2021년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40.4%), 서울(39.1%), 광주·전남(7.5%), 부산(2.5%) 순으로, 전체 사범의 79.5%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43]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라. 직업별 현황

[표 3-78]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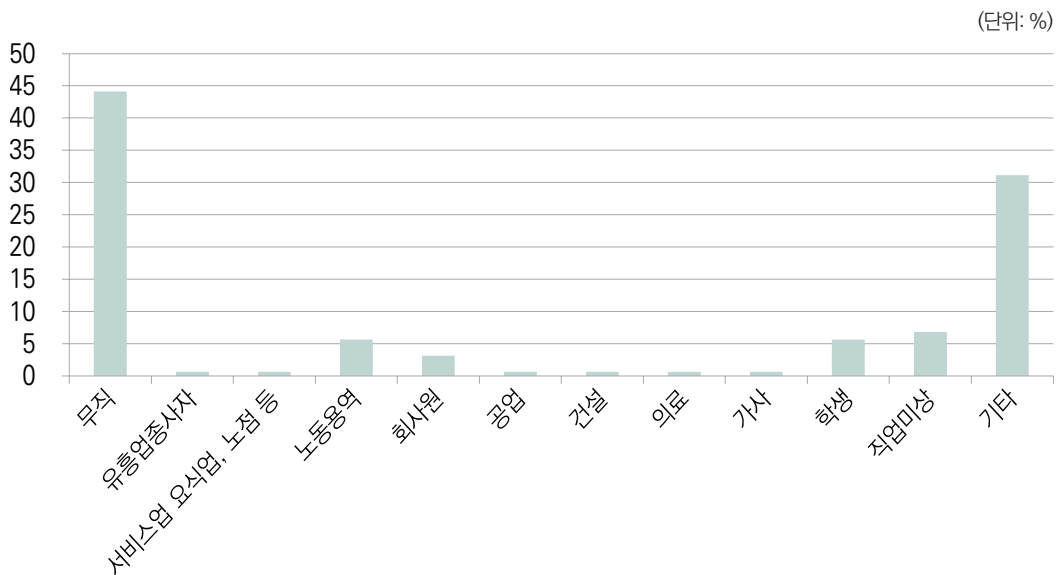
직업별 \ 연도별	2019	2020	2021
합계	309 (100)	349 (100)	161 (100)
무직	159 (51.5)	166 (47.6)	71 (44.1)
농업	2 (0.6)	0 (0.0)	0 (0.0)
도소매업	2 (0.6)	1 (0.3)	0 (0.0)
유흥업종사자	5 (1.6)	8 (2.3)	1 (0.6)
서비스업 (요식업, 노점 등)	4 (1.3)	2 (0.6)	1 (0.6)
금융/증권	0 (0.0)	1 (0.3)	0 (0.0)
부동산업	0 (0.0)	0 (0.0)	0 (0.0)
노동 (용역)	15 (4.9)	10 (2.9)	9 (5.6)
회사원	6 (1.9)	9 (2.6)	5 (3.1)
공업	0 (0.0)	0 (0.0)	1 (0.6)
건설	0 (0.0)	3 (0.9)	1 (0.6)
의료	0 (0.0)	2 (0.6)	1 (0.6)
운송업	2 (0.6)	1 (0.3)	0 (0.0)

연도별 직업별	2019	2020	2021
가사	0	0	1
	(0.0)	(0.0)	(0.6)
예술/연예	0	0	0
	(0.0)	(0.0)	(0.0)
어업	0	0	0
	(0.0)	(0.0)	(0.0)
학생	27	23	9
	(8.7)	(6.6)	(5.6)
직업미상	6	15	11
	(1.9)	(4.3)	(6.8)
기타	81	108	50
	(26.2)	(30.9)	(31.1)

※ ()는 구성비 %

- ▶ 2021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4.1%), 학생(5.6%)·노동(5.6%), 회사원(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4]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마. 연령별 현황

[표 3-79]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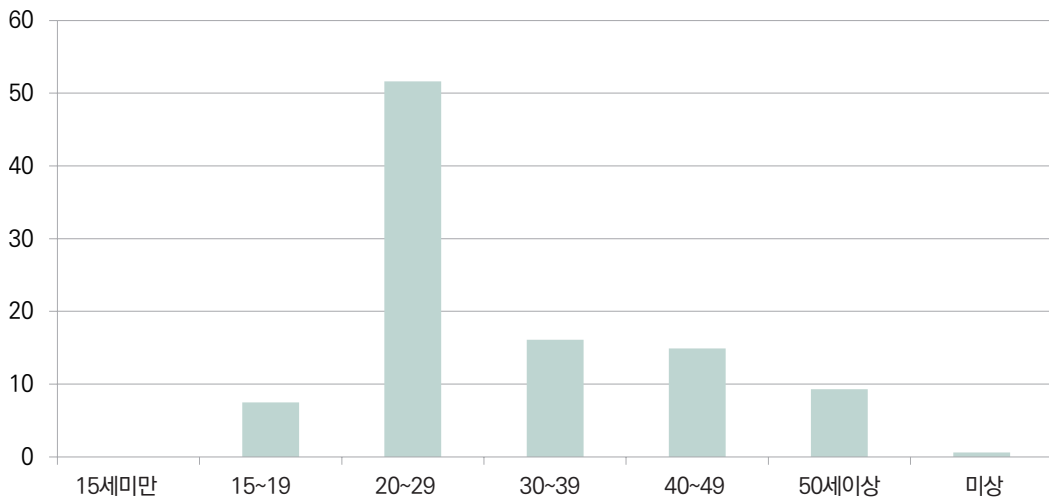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 연령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미상	합계
2017	25	183	65	64	79	13	1	430
	(5.8)	(42.6)	(15.1)	(14.9)	(18.4)	(3.0)	(0.2)	(100)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
2019	5	50	143	43	54	9	5	309
	(1.6)	(16.2)	(46.3)	(13.9)	(17.5)	(2.9)	(1.6)	(100)
2020	2	29	202	56	44	10	6	349
	(0.6)	(8.3)	(57.9)	(16.0)	(12.6)	(2.9)	(1.7)	(100)
2021	0	12	83	26	24	15	1	161
	(0.0)	(7.5)	(51.6)	(16.1)	(14.9)	(9.3)	(0.6)	(100)

※ ()는 구성비 %

[그림 3-45]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바. 성별 현황

[표 3-80]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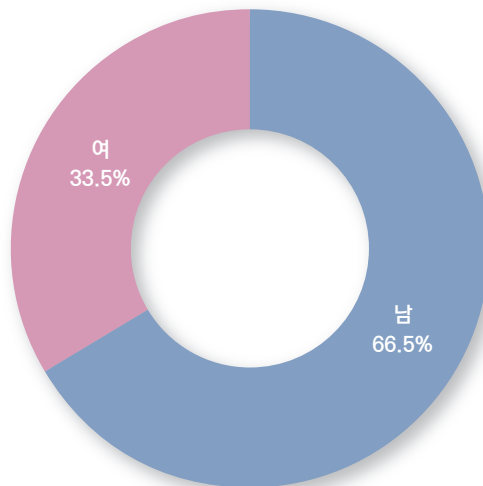
연도 \ 성별	남	여	합계
2017	317 (73.7)	113 (26.3)	430 (100)
2018	244 (63.2)	142 (36.8)	386 (100)
2019	204 (66.0)	105 (34.0)	309 (100)
2020	206 (59.0)	143 (41.0)	349 (100)
2021	107 (66.5)	54 (33.5)	161 (100)

※ ()는 구성비 %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6.5%, 여성이 33.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46]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



사. 검찰 처리현황

[표 3-81]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검찰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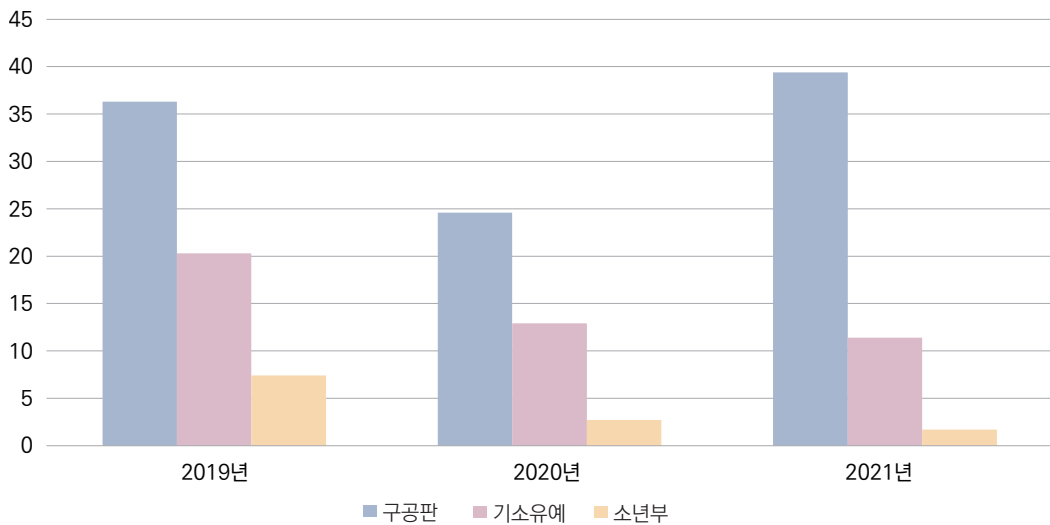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처리내역										합계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미제	
2017	178 (38.0)	32 (6.8)	39 (8.3)	68 (14.5)	13 (2.8)	110 (23.5)	17 (3.6)	-	0 (0.0)	12 (2.6)	469 (100)
2018	134 (32.4)	49 (11.8)	42 (10.1)	50 (12.1)	8 (1.9)	52 (12.6)	41 (9.9)	-	1 (0.2)	37 (8.9)	414 (100)
2019	195 (36.3)	60 (11.2)	31 (5.8)	109 (20.3)	4 (0.7)	40 (7.4)	52 (9.7)	-	3 (0.6)	43 (8.0)	537 (100)
2020	118 (24.6)	44 (9.2)	47 (9.8)	62 (12.9)	9 (1.9)	13 (2.7)	27 (5.6)	-	18 (3.8)	142 (29.6)	480 (100)
2021	138 (39.4)	39 (11.1)	4 (1.1)	40 (11.4)	0 (0.0)	6 (1.7)	18 (5.1)	89 (25.4)	2 (0.6)	14 (4.0)	350 (100)

※ ()는 구성비 %

[그림 3-47]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단위: %)



아. 1심 재판결과

[표 3-82]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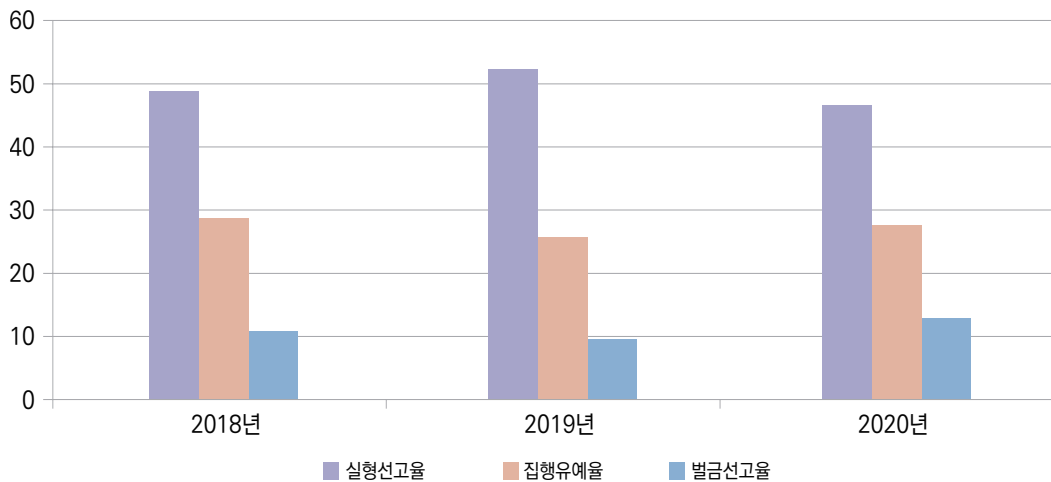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구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17		11	17	31	42	0	0	0	0	14
		(9.6)	(14.8)	(27.0)	(36.5)	(0.0)	(0.0)	(0.0)	(0.0)	(12.2)
2018		7	19	31	37	0	0	0	0	7
		(6.9)	(18.8)	(30.7)	(36.7)	(0.0)	(0.0)	(0.0)	(0.0)	(6.9)
2019		14	37	24	39	0	0	0	0	15
		(10.9)	(28.7)	(18.6)	(30.2)	(0.0)	(0.0)	(0.0)	(0.0)	(11.6)
2020		10	27	25	29	1	0	0	0	13
		(9.5)	(25.7)	(23.8)	(27.6)	(1.0)	(0.0)	(0.0)	(0.0)	(12.4)
2021		13	27	17	29	0	0	0	0	14
		(13.0)	(27.0)	(17.0)	(29.0)	(0.0)	(0.0)	(0.0)	(0.0)	(14.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자.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83]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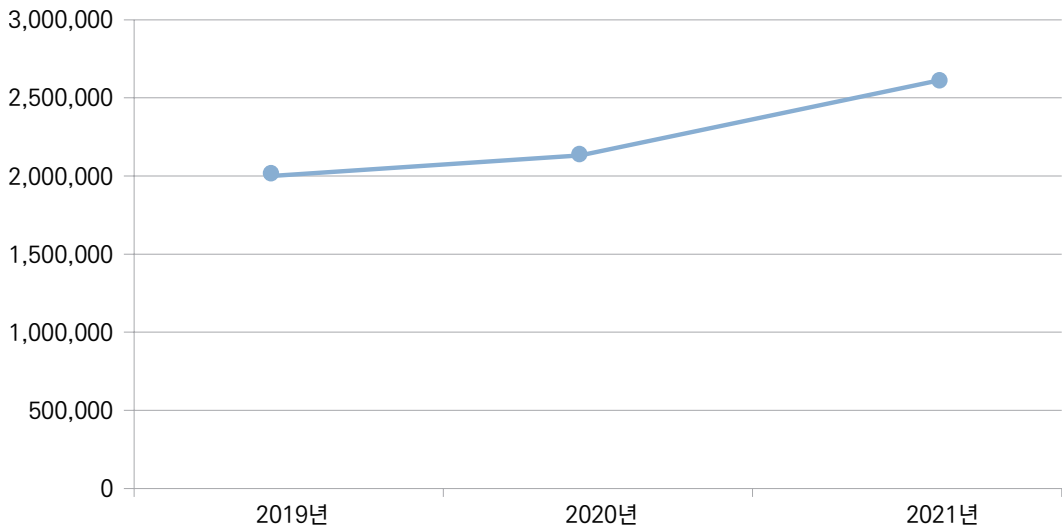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평균 (단위:원)
2019	0	0	17	20	0	0	2,000,000
2020	0	0	9	19	0	0	2,132,143
2021	0	0	4	9	1	0	2,607,143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차.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84]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9		13.4	26.4
2020		16.7	27.3
2021		17.2	26.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카.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85]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9		0 (0.0)	3 (10.0)	22 (73.3)	3 (10.0)	2 (6.7)	30 (100)
2020		0 (0.0)	0 (0.0)	8 (72.7)	3 (27.3)	0 (0.0)	11 (100)
2021		0 (0.0)	3 (23.1)	5 (38.5)	5 (38.5)	0 (0.0)	1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타. 실행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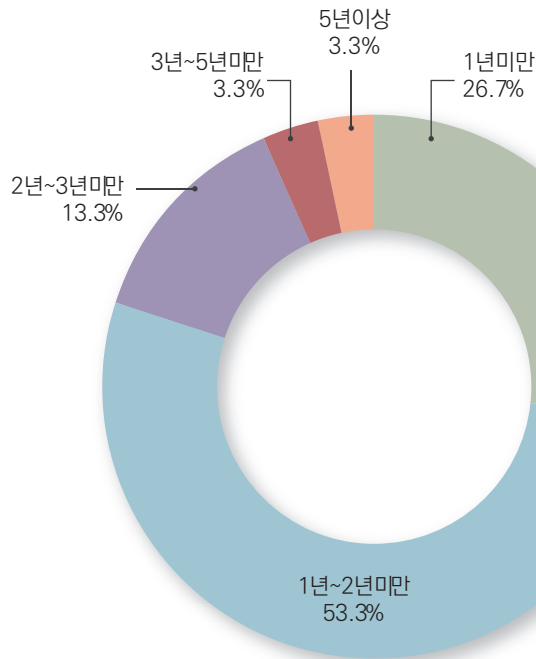
[표 3-86]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9		11 (30.6)	22 (61.1)	3 (8.3)	0 (0.0)	0 (0.0)	36 (100)
2020		6 (31.6)	10 (52.6)	2 (10.5)	0 (0.0)	1 (5.3)	19 (100)
2021		8 (26.7)	16 (53.3)	4 (13.3)	1 (3.3)	1 (3.3)	3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본드, 아산화질소 흡입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범 감소

-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7년도 430명 아래로 떨어진 다음 2019년도 309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이었다가 2020년도에 349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년도 161명으로 대폭 감소함
- ▶ 2019년경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흡입이 클럽, 가정집 등지에서 유행처럼 번져 2020년경까지 아산화질소 흡입 사범이 증가하였으나,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2021. 1. 1.부터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6

향후 대책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필요

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 ▶ 아산화질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수십 초의 짧은 쾌락 뒤에 신체 마비증상 등 평생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음
- ▶ 이처럼 그 부작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이 새롭게 유행을 할 경우 발생할 악영향을 예측할 수도 없기에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단속 등 노력 필요

